

RR - 2016 - 7 - 626 호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및 PBL을 활용한 ‘졸탁동시’ 교육과정 개발

2016.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및 PBL을 활용한 ‘줄탁동시’ 교육과정 개발

연구책임자 : 신희선(숙명여자대학교)

공동연구자 : 윤희정(서강대학교)

이진남(강원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이 연구는 2016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연구과제명'에 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This work was funded by 2016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연구결과 요약

.....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신입생 교육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PBL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기존의 대학 신입생 프로그램이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해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학교당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신입생, 재학생)과 학교 본부(교직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줄탁동시’의 신입생교육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신입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목표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에 PBL 방법을 적용하여 리더십, 학습관리, 인문교양의 세 개의 모듈이 각 대학의 필요에 따라 융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신입생들이 보다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2. 연구의 필요성

- 1) 대학 신입생을 포함, 대학의 준비성 결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생활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교육에는 올인 하면서도 정작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생에 대한 대학의 안내와 배려의 필요성이 있음. 입학 이후 대학의 교육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입학 전부터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

2)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

-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대학이 사실상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대학의 이념이 왜 소중한 가치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
- 각 대학 고유의 건학 정신과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개별 대학의 고유한 정신과 전통을 신입생들에게 전수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 입학 전에 이러한 건학정신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각 대학에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러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생활로 인도하는 공통 교육안을 제공하고, 이를 대학 사정에 따라 학생들과 보다 밀착된 내용으로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임기응변식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비판

- 갖가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함. 학생회 주도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선배들의 음주 강요로 인한 사고, 성추행, 가혹행위 등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오리엔테이션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행사 진행 위주의 발상에서 생겨난 결과인 바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행사를 취소,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함. 오리엔테이션의 본래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대학생활을 잘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가 필요.
- 학생과 학교의 협업과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신입생 교육이 개편될 필요가 있음.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운영주체가 학교본부, 단과대학, 학과, 혹은 총학생회 등으로 구분되어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대학이 적지 않기에 신입생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절실한 교육이 무엇인지 검토·제공할 필요가 있음.

4) 학생들의 리더십능력 개발 및 대학생활설계 교육의 필요

- 초·중등교육에서 인성교육, 진로교육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스스로 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임.
- 학생 주도형 생애 설계 및 대학 생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대학생활에 대한 설계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작되는 1학년은 혼란과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삶의 비전을 세우고 대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셀프리더십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창의성을 활용한 교육의 다각화가 요망됨. 신입생들이 수동적인 대상이 되어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학습자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5) 대학공부의 방향 설정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실천의 필요성

-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체계화된 학습 지원이 필요함. 신입생들은 대학에서 자신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음. 신입생들이 겪는 이러한 두려움과 1학년 시기에 겪게 되는 학습 부담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대학공부의 특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기초학습역량의 강화를 통한 전공학습의 기반 조성이 필요. 다양한 입학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선수학습의 상황이 있기에, 출발점 수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진단하고 기본적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예비대학 교육과정이 필요.
- 체계적인 학습전략 수립 및 학습설계가 중요하기에, 학문탐구의 영역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이 출발선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학습설계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6) 인문교양 기반 전공교육으로의 접근 및 인문적 가치 배양의 필요성

- 사고와 표현 교육의 필요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전공 교육 이전에 실시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필요.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역량 개발의 기초이면서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자질을 훈련하는 방편이 대학공부의 기초이기 때문임.
- 인문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와 시너지를 실감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인문학적 교양과 의사소통능력이 각 전공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신입생들로 하여금 실감하게 함으로써 기초부터 적극적으로 다져나가는 대학생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자신이 진출하려는 영역별로 필요한 교양교육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계기 마련.

3. 연구범위 및 방법

1)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 사례 및 내용분석:

-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전국의 각 대학의 사례를 유형별로 표본 선정하여 해당 대학의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강원, 제주를 포함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이라는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며, 대형, 중형, 소형의 대학 규모와 남녀공학과 여자대학, 전문대학의 상황을 고찰.

2) 참가자들의 교육평가자료 분석 및 참여관찰 방법:

- 각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반영.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어떤 점을 불편해 하고 아쉬워했는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에 실제 참여한 교수자로서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관찰 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간담회를 통해 논의.

3)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을 이수한 학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메일로 1차 답변을 받은 후에 직접 면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FGI 방법을 활용함. 연구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FGI 사전 동의를 구하고 표본으로서 의미가 있는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과의 깊이 있는 대화 내용을 분석.

4) 미국 등 서구대학 예비대학 프로그램 조사:

- 서구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주요 미국 대학의 홈페이지를 리서치하고 외국 문헌 및 자료를 고찰.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 온 학생들과 교수, 전문가 등의 경험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음.

4. 주요 연구결과

1) 신입생 교육의 의미와 현실 진단

- 대학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대학의 기원, 정체성, 사명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 서양의 초기 대학 수립과정과 한국에서의 대학의 성격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
- 서양 중세 대학이 시작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대학 설립과 형성과정에서 강조된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적 자유의 중요성을 고찰. 중세대학의 단체주의, 자치권, 면세특권, 보편성과 국경 초월, 파업권에 주목. 근대의 대학이 국가 기관화되는 배경과 인쇄술 발명과 아카데미의 발생과정에 대해 고찰.
- 대학 발달의 역사를 정리. 제1기: 중세초기~산업혁명으로 엘리트의 집결소이자 학문수수의 상아탑이며 고급 지식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기: 산업혁명~20세기 초로서 실과교육이 도입되고 기술공업사회를 위한 역군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강함. 제3기: 제1,2차 세계대전 후로 대학이 더 이상 엘리트의 상아탑이 아니라 일반사회의 산업예비군 양성소로 역할을 하게 됨. 네트워크로 국가와 개별학문의 벽을 넘어 유동하는 21세기 대학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색이 필요함을 지적.

- 신입생 교육에서 인문교양교육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미국 대학의 변화를 통해 고찰. 즉 1980년대 학부대학이 탄생하고 핵심교양교육이 부활하였으며, 한국 대학의 경우도 2000년대 이후 사고와 표현 교육이 강조되며 인문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신입생들에게 자아 발견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노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ACE사업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학생중심의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면서 대학사회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음.
- 신입생 교육 관련 연구 동향에서 먼저 대학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은 ‘신입생 경험(First-Year Experience)’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겪게 될 전반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보의 습득 및 자기계발의 기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최근 들어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연구와 함께 교육의 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신입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 주제로 부각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PBL 교수학습 전략의 도입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동적 객체로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 이런 점에서 PBL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과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함.
- 국내외 대학 사례 검토를 통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세 가지 유형 파악. 1) 대학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소개 및 비전 공유, 학생지원 프로그램 안내, 학생 특강, 캠퍼스 투어, 교수 및 선배와의 만남 등의 내용으로 진행. 2)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 입학식 직후 전체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각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 해외대학의 경우 미국 사립대학 6개(여대 2개 포함), 주립대학 4개로 총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 학부모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운영,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신입생들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를 제공함. 각 대학의 전통과 특징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체험 및 야외 활동 프로그램 등 발견.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관련한 실제적 상황을 파악. 신입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목적은 선배, 동기, 학과 교수와의 만

남, 대학생활 정보 획득, 대학생활 계획,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입학식과 함께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의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파악.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특히 선배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포함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입생들은 함께 참여한 선배들로부터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 학과 교수들과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공부 설계 기회 희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의로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되길 희망. 신입생 교육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의 주체였던 교직원, 재학생의 인식. 학교본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재학생들은 본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하여 ‘문제 없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음. 기본 프로그램은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으로 전달하고 선후배간 네트워킹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대학별로 차이가 있음. 학생처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체 기획을 이원화하여 전체학생용 프로그램과 단과대학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도 함.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문제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예방 교육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시행.
-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전체의 행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예산 및 학생 관리 등의 이유로 축소되거나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 해당 부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 가중. 학생 참여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 발생.
- 향후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또한 부서간 업무 분담 및 학교 전체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고 신입생을 위한 연계된 후속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고민해 볼 필요. 나아가 외국인 학생, 야간과정 입학생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 선후배 멘토링 등을

확산하고 교수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학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입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신입생들이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1)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셀프 리더십능력 개발, 2) 대학에서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리능력 개발, 3) 인문학적 교양에 대한 관심과 기초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 첫째, 자기주도적인 삶을 구성하기 위한 셀프 리더십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기관리를 위한 셀프 리더십’ 프로젝트 추진. 자아존중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셀프리더십 교육. 비전과 꿈을 찾아는 목표관리, 시간관리, 관계관리 프로그램 구성.
- 둘째, ‘미래 사회 동향 분석과 진로교육’ 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 사회를 전망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며 그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함. K-CESA(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 셋째, ‘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한 프로젝트로서, 교육과정에 총학생회나 리더십 그룹의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후배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선배들이 멘토로서 신입생들을 이끌어주는 멘토링이나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튜터링 등을 통해 선후배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선배의 특강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넷째,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 프로젝트로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하며 존중하기 위한 성교육과 인권교육 커리큘

럼 구성. 젠더적 관점을 갖고 성평등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의 기초를 마련.

o 학습관리 능력 개발:

-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자 되기' 프로젝트로서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모델을 세워 학습수행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재학생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공부하기에 도움 되는 기본적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둘째,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이 전공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습역량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충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퍼실리테이터로 투입하여 학생밀착형 워크숍을 진행.
- 셋째, '체계적 학습전략 수립 및 학습설계' 프로젝트로서, 입학 전 준비와 1학년 기간 동안의 학습지도의 측면에서 연속적인 개념을 갖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학의 학습개발 전문가 및 그로부터 훈련된 학습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수행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

o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개발:

- 첫째, 대학의 기원, 정체성, 사명에 대한 특강으로서,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대학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교수와 학생의 관계, 학생자치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함. 왜 초·중·고 등 여타 교육기관과 대학이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 신입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움. 나아가 모교의 진학 이념과 전통,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으로 구성.
- 둘째,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 인지 프로젝트로서, 인문학 교육이 부재한 우리나라의中等교육의 현실에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인문교양교육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성숙한 인간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준

비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인문고전교육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장이 되도록 함.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학문 탐구의 삶을 동시에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 나아가 신입생들이 접하는 교양필수 교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

- 셋째, 생애설계 및 대학생활설계 프로그램으로, 성인으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대부터 각 단계별로 삶의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생애설계 실행. 대학생활의 매학기, 방학, 휴학 등 각 기간을 어떻게 보낼 지 교과, 비교과 과정으로 나눠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3) 신입생 교육 모델 개발

o 신입생 교육 설계의 기본 요소

- 목적에 대한 검토: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서 설정하는 목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각 대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함. 예를 들어 대학의 이념과 사명에 대한 교육, 소속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구성원간의 친목 도모 등.
-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기획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의 여부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됨. 주체별로 대학 당국 주도 운영주체가 입학처인지 학생처인지, 아니면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인지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학생회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 행사 내용이 주로 친목도모라는 목적에 치중해 있기에, 1학기 중에 있을 MT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학교당국과 학생회 공동주최의 경우 친목 위주의 행사는 학생회에게 맡기고 대학의 이념,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학교생활 안내는 학교 당국이 맡는 식으로 분업을 할 수 있음.
- 시기에 대한 검토: 시기별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월 중순의 경우 방학 중이기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여 여유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시모집 신입생의 추가합격자를 포함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2월 말에 개최할 경우 최종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입학 전에 수강신청과 학교생활 등을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월 초에 실시할 경우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기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입학과 수업 시작 후에 학교생활 안내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장소에 대한 검토: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장소는 대학 사정상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음. 대학 내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을 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고 캠퍼스 투어를 같이 할 수 있고 재학생과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 대학 외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사진행의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으나 숙박비용이 올라가고 음주문제나 이동시 안전상의 문제에서 불리하고 캠퍼스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학교 투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내용에 대한 검토: 대학의 이념에 대한 설명을 대학의 역사에 대해 영상이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각 개별 대학이 처한 위치에서 추구해야 할 현실적 목표에 대해 공유. 해당 대학의 역사와 전통 소개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졸업선배를 초청 강연, 조별 졸업선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꿈꾸게 하는 기회를 제공.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학생 리더십 그룹 학생들과 신입생 그룹을 짝지어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와 친목을 도모. 학교생활 안내 및 학습법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동아리, 기숙사, 지역사회 등 대학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 신입생 시기에 이수하게 되는 의사소통능력 교과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 생애설계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거나 학과별로 자체적으로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생, 재학생, 교수와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방법에 대한 검토: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놓고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PBL 등과 같이 학습자 주도형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혼합형의 BL(Blended Learning)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임. 대단위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여 동일한 콘텐츠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과대학이나 전공별로 분반을 형성

하여 특성화와 개별화를 통해 전통적인 면대면 지도로 효과를 극대화함.

- 기타 적용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 검토: 예를 들면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많이 쌓이면 기숙사 배정, 장학금 등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제고하는 것. 특수 그룹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외국인 학생과 편입생 등을 배려하고 전담부서를 두어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특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o PBL 기반 신입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 신입생 교육의 차원에서 신입생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생활동 전체를 조감하여 PBL에 기반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설계·진행되어야 함.
- PBL등을 활용하여 협동학습 형태로 교수와 학생 간에, 혹은 재학생과 신입생 간에, 신입생들의 상호간 면대면 논의와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룬 자료와 주제를 보다 심화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
- o 신입생 교육내용과 PBL 모듈설계에 있어 세 가지 교육방향, 즉 셀프리더십 계발, 학습관리 능력 개발,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개발 제시함
- PBL문제에 따라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앉아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활용하고 논의를 전개. 각 조당 5~6명의 신입생과 1명의 재학생 멘토를 배치하고 팀워크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며 과제를 수행. 해당 모듈을 진행하는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먼저 논의하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하며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자원을 안내하거나 조별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며 필요한 지원을 함. 조별활동 결과물을 전지에 그림으로 그려 발표하도록 하거나 함께 소감을 나누면서 학교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계획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함.

o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모델 제시

- 예비대학의 목적과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입생들에게 선택한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고 소속감을 키워주는 것일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음. 각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예비대학이 역할을 해야 함. 각 대학마다 예비대학의 주요 테마와 컨셉을 잡아서 워크숍 형태나 PBL 방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예를 들어 2박 3일 기숙형 예비대학 모델로서 운영을 대학본부가 맡더라도 기획에서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만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재학생들이 선배로서 후배 신입생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고, 캠퍼스투어를 안내하며 대학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자랑스러운 선배 동문의 특강과 만남의 장을 만들고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필드 트립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임.
- 오리엔테이션 모델은 1일형, 2일형, 3일형으로 구성하되 장소는 가급적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학 사정 상 기숙사 이용이나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출퇴근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배부해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가급적 구체적 정보에 대한 교육은 생략하고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진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리엔테이션 첫날 접수 때 재학생 멘토 1인 신입생 5~6인으로 조를 편성하고, 오전 행사 뿐 아니라 같이 활동하도록 재학생 멘토는 사전 선발과 교육을 통해 양성함.

4) 신입생 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o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입학식의 연장선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경우 교육적 의미는 소략되고 형식적인 행사로 그침. 학생회 주관의 경우 선후배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교수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돌아가고, 오락성 프로그램으

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음. 신입생 입장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설계·운영되어야 함.

-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자녀의 대학 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녀의 학업 및 대학 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 신입생만이 오리엔테이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대학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o 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각 대학의 교육 목적과 신입생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소속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함.

o 자기관리능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필요

- 대학 신입생들의 자기관리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셀프 리더십 교육을 포함. 비전과 꿈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고 대학생활의 목표를 관리하고 시간관리 및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줌. 이제 성인이 된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주체적이었나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함.

o 재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해 선후배 네트워킹 강화

- 재학생 선배들의 멘토링, 튜터링을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접목하여 대학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대하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 지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학생활 노하우도 얻게 되고 대학의 소속감을 갖게 함. 학교 본부만의 일방적인 기획과 운영이 아니

라 훈련받은 재학생들도 참여하여 후배인 신입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재학생 멘토제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는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신입생들이 선배들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동문 선배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함.

○ 신입생의 참여과정 활성화 및 피드백 모색

-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에 신입생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 학생주도적인 PBL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조별활동과제를 주어 신입생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보게 함.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스스로 학습동기를 갖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즐거운 경험으로 출발하게 됨.

○ 신입생 인문교양교육과의 연계

-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교양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 인문학 교육이 부재한 한국사회 중등교육의 현실로 볼 때 인문교양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1학년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게끔 도와줌. 또한 신입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신입생들이 보고 난 느낌을 글과 말로 표현하거나 나아가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음.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이 신입생 교양필수 과정으로 연결되어 인문교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확대.

○ 신입생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21세기형에 걸맞는 신입생 교육이 필요하기에 관리주체별, 시점별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 센터->학교 본부->단과대학->학과'라는 종적 체계를 만들고, 시기별로는 신입생들의 '입학 전->예비대학->오리엔테이션->입학 후 교육과정->취업'이라는 로드맵 속에서 단계별로 특정 목표 아래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즉 신입생교육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과 평가가 요구되며, 국가와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신입생 지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5. 결론

- o 본 연구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비대학이 자리매김하고 신입생 교양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과 PBL에 기반한 교육모델을 제시함.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기대사항은 재학생과의 관계형성을 돕는 선후배간의 멘토링을 강화하고 학생주도적인 과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강조.
- 기존의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은 학교당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거나 총학생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신입생, 재학생)과 학교 본부(교직원, 교수)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성패는 프로그램 내용 못지않게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달려 있고, 지속적으로 대학 공부를 통해 핵심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입생들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후속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함.
- o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세 가지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

- 첫째,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여러 대학의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중심으로 향후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예비대학을 신입생들의 1학년 대학생활과 연계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양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데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신입생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인문 교양교육의 강화: 신입생 교육의 시작인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신입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책임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비대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된 리더십, 학습관리, 인문학적 소양을 계속해서 함양하기 위해 교양필수 교과를 비롯해 인문교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효과가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셋째, 신입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교육의 성패는 프로그램 내용 못지않게 신입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학 공부를 통해 핵심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는가 여부. 이에 신입생들과 재학생들과의 멘토링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입학 이후에도 학사설계 및 진로지도만이 아니라 향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습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통해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효과를 확산해 가는 것이 필요함.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필요성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9
-

II. 신입생교육의 의미와 현실 13

- 1. 대학의 의미와 가치 13
 - 2. 신입생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및 이론적 배경 26
 - 3. 국내외 대학 사례 검토 29
 - 4. 심층인터뷰 분석 80
-

III.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95

- 1.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96
 - 2. 학습관리 능력 개발 98
 - 3.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개발 100
-

IV. 신입생 교육 모델 개발 103

- 1. 신입생 교육 설계의 기본 요소 103
- 2. PBL 기반 신입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112
- 3.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모델 134

목차

.....

V.신입생 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143

- | | |
|---------------------------------|-----|
| 1.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143 |
| 2. 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144 |
| 3. 자기관리능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필요 | 145 |
| 4. 재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해 선후배 네트워킹 강화 | 146 |
| 5. 학생들의 참여과정 활성화 및 피드백 모색 | 148 |
| 6. 신입생 인문교양교육과의 연계 | 149 |
| 7. 신입생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150 |

.....

VI.결론 153

- | | |
|----------|-----|
| 1. 연구 요약 | 153 |
| 2. 기대 효과 | 154 |

.....

<참고문헌> 157

표 목 차

.....

<표1> 사례 조사 대학	30
<표2> 가톨릭대학교 예비대학 캠프 프로그램	32
<표3> 건양대학교 동기유발교육체계	33
<표4> 건양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및 동기유발학기 입교식 프로그램	34
<표5> 경희대학교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35
<표6>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6
<표7>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예비대학 프로그램	37
<표8> 광운대학교 ‘미리 가보는 대학’ 교육 내용	39
<표9> 동국대학교 예비대학 개설 과목	40
<표10> 동신대학교 비전설계 프로그램	41
<표11> 목원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2
<표12> 부산대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43
<표13> 상명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44
<표14> 서강대학교 입학식 및 교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46
<표15> 서강대학교 신입생 교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47
<표16> 서울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48
<표17>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수련회 프로그램	49
<표18> 서울여대 신입생 사전교육 및 새내기 새로배움터 프로그램	50
<표19> 성균관대학교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51
<표20> 숙명여대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52
<표21> 숙명여대 예비대학 ‘불꽃’ 프로그램	53
<표22> 순천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54
<표23>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프로그램	56
<표24> 아주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58
<표25> 아주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59
<표26> 연세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60
<표27> 전북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61
<표28> 전북대학교 예비대학생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62
<표29> 조선대학교 ‘CU ST★AR’ 프로그램	63
<표30> 조선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65

표 목 차

.....

<표31>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65
<표32> 창원대학교 신(편)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66
<표33> 한양대학교 ‘미리 가 본 대학’ 프로그램	68
<표34> 버지니아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79
<표35> FGI(Focus Group Interview) 문항	81
<표36> FGI 참여 대상	82
<표37>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84
<표38> 신입생 교육의 다각적인 접근 사례	89
<표39> 신입생 교육의 목적과 주관 사례(J대학)	90
<표40> 예비대학-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구성시 고려사항	94
<표41> 연구방향에 따른 PBL교육 목적	95
<표42>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체제	111
<표43> 셀프리더십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118
<표44> 모듈1-1의 문제해결 가이드	120
<표45> 모듈1-2의 문제해결 가이드	121
<표46> 모듈1-3의 문제해결 가이드	122
<표47> 학습관리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124
<표48> 모듈 2-1의 문제해결 가이드	126
<표49> 모듈 2-2의 문제해결 가이드	127
<표50> 모듈 2-3의 문제해결 가이드	128
<표51>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130
<표52> 모듈3-1의 문제해결 가이드	131
<표53> 모듈3-2의 문제해결 가이드	132
<표54> 모듈3-3의 문제해결 가이드	133
<표55> 예비대학 프로그램(2박 3일) 일정	135
<표56> 오리엔테이션 1일 프로그램	137
<표57> 오리엔테이션 2일 프로그램	138
<표58> 오리엔테이션 3일 프로그램	141
<표59> 신입생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안)	151

그림목차

[그림1] 신입생 교육 시스템과 로드맵	3
[그림2] 가천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포스터	31
[그림3] 텍사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71
[그림4]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77
[그림5] ‘줄탁동시’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	95
[그림6] PBL 수행의 기본 과정	114
[그림7] PBL 기반 과제수행 계획 및 학습수행의 과정	116

부 록

[부록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FGI 질문지	161
[부록2]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PBL 개발을 위한 도구	162
[활용서식]	162
1. PBL 모듈 문제	162
2. PBL 운영 결과보고	163
3. PBL 과제수행계획서 (학생용)	164
4. PBL에 대한 교수자 평가	165
5. PBL 개인성찰보고서 (학생용)	166
6. PBL 그룹평가 (학생용)	167
7. PBL 동료평가 (학생용)	168
8. PBL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학생용)	169
9. PBL 자기평가 (학생용)	170
10. Feedback Sheet (학생용)	171
11. 학습팀 구성표	172
[참고자료]	173
1. PBL 오리엔테이션	173
2. PBL 문제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매뉴얼	174
3. PBL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체크리스트	175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범위 및 방법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신입생 교육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PBL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기존의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학교당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신입생, 재학생)과 학교 본부(교직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줄탁동시(啍啄同時)’의 교육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줄탁동시’는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쪼는 것을 ‘줄(啍)’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啄)’이라 하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흔히 사제시간을 빗대어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수자도 함께 애쓰는 과정을 비유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본 연구는 ‘줄탁동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문제중심학습(PBL)과 같은 교수학습 모델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팀워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신입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목표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어떤 교육내용과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모색 하였다. 이에 신입생들이 대학 캠퍼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학교 당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재학생들이 신입생을 맞이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주며, 또한 신입생들이 대학 새내기로서 대학생활을 주체적으로 익히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삼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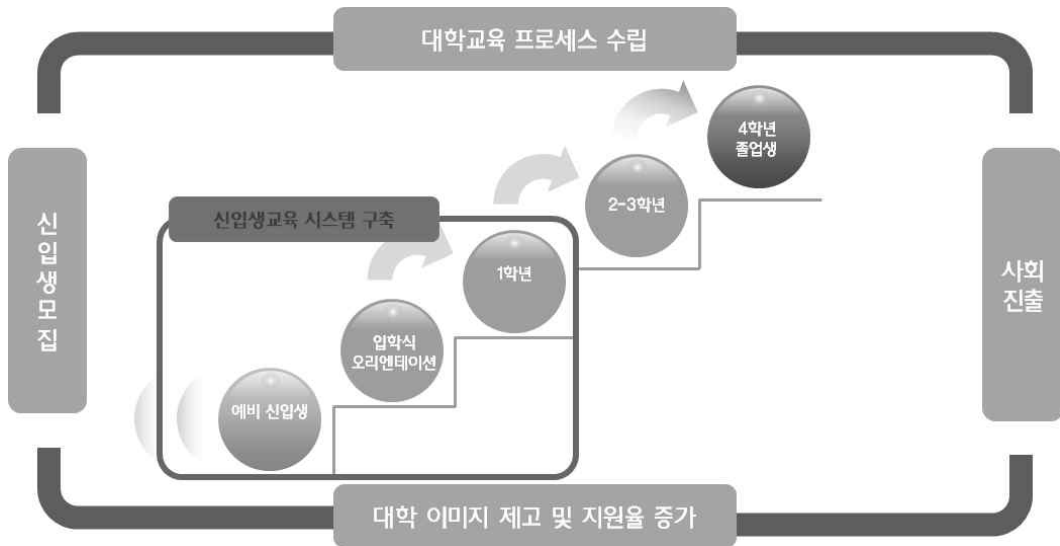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역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 첫째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 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과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과 대학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기에 이와 관련한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신입생들이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관리 능력과 공부전략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교과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담고자 하였다.

셋째 대학 교육의 기초인 인문학적 교양의 기초를 다지고 학생들의 사고와 표현 능력을 개발하는 1학년 교양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초교양으로서 독서와 토론 및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리더십, 학습관리, 인문교양의 세 개의 모듈을 각 대학이 필요에 따라 융합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신입생들이 보다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개발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즉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첫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아래 <그림1>과 같은 방향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예비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이 무엇인지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설계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입학식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구체적인 대학생활에 대해 계획하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1학년 과정에 들어와 신입생 교양필수인 기초교양교과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대학 공부의 기본방법을 익히면서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하며 고학년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에서 신입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려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PBL방식의 해당 모듈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스템과 로드맵을 고려한 구성이다.



[그림1] 신입생 교육 시스템과 로드맵

2. 연구의 필요성

1) 대학의 준비성 결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 대학생활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사실상 대학입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전시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교육에는 올인 하면서도 정작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이란 무엇이고 왜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학습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입생에 대한 대학의 안내와 배려의 필요성:

신입생의 대학생활 준비성은 대학의 입장에서조차 절실한 문제이다. 신입생들은 대학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대학 공부의 목적과 방향성도 모르는 채 무기력하게 방황하며 지내는 1학년이 적지 않다. 이는 신입생 개인에게만 학습의욕과 학업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학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입학 전부터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입학 이후 대학의 교육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

(1)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대학은 기존의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은 사실상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대학이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대학 간 경쟁과 평가에서 살아남으려는 과정에서 대학 스스로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을 포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학에 갓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대학의 이념이 왜 소중한 가치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 각 대학 고유의 건학 정신과 그에 따른 비전 공유의 필요성:

대학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이념 외에도 각 대학은 건학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한 전통이 있다. 개별 대학의 정신과 교육 전통을 신입생들에게 전수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일은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입학 전에 이러한 건학정신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신입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모색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서 대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즉 대학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고 해당 대학의 실정과 정체성을 반영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이 필요하다.

(3) 각 대학에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여러 대학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각 대학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생활로 인도하고 인재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공통 교육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대학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각 대학이 학생들과 보다 밀착된 내용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임기응변식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비판

(1) 갖가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많은 대학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생회 주도로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시대의 구습이나 마치 군기를 잡는 듯한 군대문화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선배들의 음주강요로 인한 사고, 성추행, 가혹행위 등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교육적인 의미가 상실된 행사진행 위주의 발상에서 생겨난 결과인 바, 학생회와 대학당국의 대화와 협조로 본래의 오리엔테이션의 취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2)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움직임의 문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을 우려한 대학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생략되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의 본래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여 대학생활을 잘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학생과 학교의 협업과 역할분담에 기초한 개편 필요성: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운영주체가 학교본부, 단과대학, 학과, 혹은 총학생회 등으로 구분되어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대학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입생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 알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영 주체들이 각각 난립하지 않고 신입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협업하며 또 역할을 분담하는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에 들어와 1학년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교양필수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하는 유기적인 연계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학생들의 리더십능력 개발 및 대학생활설계의 필요

(1) 초·중등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진로교육의 실패: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이지만, 점수화되지 않기에 소홀하게 여겨지는 인성교육과 전문성이 결여된 진로교육은 대부분 적성검사 위주의 피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인성교육이 사실상 교육의 본질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깨닫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과 관련한 내용을 주입하고 암기하는 위주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스스로 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2) 학생 주도형 생애설계 및 대학생활 설계의 필요성:

대학 신입생의 장래 희망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한 선택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와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적성과 성향도 고려하지 않는 진로 설정과 직업선택은 실패와 방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대학생활에 대한 설계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작되는 1학년은 혼란과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그에 기반 한 생애설계, 단기적으로는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을 설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학생들의 창의성을 활용한 교육의 다각화 요망:

지금처럼 신입생들이 수동적인 대상이 되어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식을 접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융·복합적 능력이 강화될 수 있고, 대학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학공부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실천 필요성

(1)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체계화된 학습 지원 필요:

고등학교까지의 중등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의 필요나 선택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하는가가 학습의 성공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입생들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5년 대학 신입생의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차영은, 2015)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문제 1위는 진로(취업)문제, 2위 대인관계 문제, 3위 학업문제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대학에서 자신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신입생들이 겪는 이러한 두려움은 학문의 탐구 혹은 공부 그 자체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며, 대학에서의 공부를 ‘좋은 성적’ 혹은 ‘스펙’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고민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1학년 시기에 겪게 되는 학습 부담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기초학습역량의 강화를 통한 전공학습의 기반 조성:

다양한 입학 전형과 경로로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선수학습의 요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출발점을 인지하지 않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생 본인의 현재 수준과 교수자가 설정하고 있는 출발점 수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보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다보니 계속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 교수학습센터의 학생 학습상담 내용 중

위의 상담 사례에서 보듯이, 신입생들이 대학공부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기초학습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전공별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진단하고 기본적인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예비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3) 체계적인 학습전략 수립 및 학습설계의 중요성:

학문탐구의 영역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이 출발선에서 준비해둘 수 있는 핵심적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학습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지각하고 인식, 처리하는 유형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을 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예비대학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서 요구되는 학습내용을 설계해 보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6) 인문교양교육에의 접근을 통한 인문가치 배양 필요성

(1) 사고와 표현 교육의 필요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대학 전공 교육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의 기초이면서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사고와 표현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대학공부의 기초로서 중세 대학의 7과(논리학, 수사학, 문법, 산수, 기하, 천문, 음악)의 현대적 버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대학교육에서도 왜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어떻게 이를 개발해 갈 것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초중고 교육에서 이러한 사고와 표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분야의 능력과 성향이 대학의 전공교육 뿐 아니라 졸업 후 직장 생활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 인문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와 시너지를 실감하는 기회 제공:

인문교양교육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전공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과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대학생들을 시작하기 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적 교양과 의사소통능력이 각 전공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신입생들로 하여금 실감하게 함으로써 기초부터 적극적으로 다져나가는 대학생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기초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교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고양하기 위해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필요한 교양교육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고찰에 한정하고, 입학 이후에 학생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새터에 대한 논의는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입학 이전에 대학 신입생을 맞이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본부와 재학생 그룹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소속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찰하면서 직접, 간접적인 경험사례를 포함하여 각 대학 유형별로 몇 개 대학을 표본 선정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강원, 제주를 포함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이라는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며, 대형, 중형, 소형의 대학 규모와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표본이 되도록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내용의 충실성을 위해 각 대학에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실무를 담당했던 교직원을 비롯하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와 남녀 신입생들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을 통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FGI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밀도 있게 기존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PBL 등과 관련한 교육학적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연구진의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사례 및 내용분석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소속한 세 개 대학의 사례를 비롯하여 대학 유형과 성격에 따른 표본의 의미를 갖기 위해 다양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사례분석 하였다. 지방의 국립대학과 서울의 사립대학, 나아가 남녀공학만이 아니라 여자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내용분석과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연구의 표본으로서 의미가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참가자들의 교육평가자료 분석 및 참여관찰 방법

각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어떤 점을 불편해 하고 아쉬워하는지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돌려 받은 각 대학의 평가자료와 약식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에 실제 참여한

교수자의 참여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을 고찰해 보았다. 함께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동료 교수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행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의도와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본 연구내용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를 통해 보다 밀도 있게 진행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16년 6~10월 동안 이루어진 FGI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FGI는 연구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선발하여 주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표본으로서 의미를 갖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선정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FGI 방법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및 기대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교수와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4) 미국 등 서구대학 예비대학 프로그램 조사

서구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사례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주요 미국 대학의 홈페이지를 리서치하고 외국 문헌 및 자료 등을 살펴 보았다. 주립대학, 사립대학, 여자대학의 범주를 정해 각 대학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에서 이들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국에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 온 학생들과 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Ⅱ .신입생교육의 의미와 현실

1. 대학의 의미와 가치
 2. 신입생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및 이론적 배경
 3. 국내외 대학 사례 검토
 4. 심층인터뷰 분석
-

Ⅱ. 신입생교육의 의미와 현실

1. 대학의 의미와 가치

신입생교육을 논하기 전에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 대학이란 무엇이고 대학의 특징과 다른 교육기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다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신입생에 대한 교육이고, 대학이 다른 교육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동안 대학 신입생 교육이 대학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논의는 생략된 채 기획되고 실행되어 진정한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 특징, 주체 등에 대해 먼저 따져보고 진정한 대학을 만들어가는 목적에 부합하는 신입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고찰은 중요하다.

1) 대학이란 무엇인가?

(1) 대학의 두 명칭:

중세에 대학을 부르는 말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었다. 첫째는 스투디움 게네랄레(Studium Generale)로, 장소적 의미의 대학을 의미했다. 이는 모든 과목이라는 뜻보다 전 유럽 학생을 모은 보편적 교육기관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전체’ 혹은 ‘조합’이라는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는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로,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직업단체를 의미했다. 기본적으로는 길드와 같은 조합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형성되었지만 차차 교수들의 조합, 학생과 교수의 공동 조합으로 다양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학생조합, 알프스 북부 지방에서는 교사조합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각자 돈을 출연하거나 독지가들이 돈을 내어서 교회 건물을 빌어 교수를 초빙하고 봉급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대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대학은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과 가르치려는 사람이 모여 만든 모임이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룹과외나 보습학원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컬리지와 유니버시티의 기원:

12세기 당시 대학은 결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사실 대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었다. 수업료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내면 되었고, 수업료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들의 학문적인 관심사에 따라 함께 거주하였고, 이러한 집에는 한 사람의 교수가 배당되었다. 이들 거처는 단과대학(collegium)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대학(universitas)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학생 혹은 교수들의 조합을 의미했다. 11세기 볼로냐에는 페포(Pepo), 이르네리우스(Irnerius)와 같은 유명한 법학자가 있었고 이들에게서 배우려는 학생들이 전 유럽에서 몰려왔다. 이들이 볼로냐 사람들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조합(consortium)이고 이것이 바로 대학(universitas)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출신지역 별로 개별조합(natio)을 만들고 이 개별조합들의 대표들이 모여 대학단(universitas)을 만든 것이 바로 대학이 된 것이다. 대학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는 약화되고 수강료와 수업을 매개로 하는 계약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조합인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협상력을 발휘하게 되어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3) 학위의 기원:

한편 교수들은 학생들의 조합인 유니베르시타스에 대항하기 위해 교수들의 조합인 콜레기움(collegium)을 만들어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협상력은 수강료에서 나온 반면, 교수들의 협상력은 학사(baccalaureus), 석사(magister), 박사(doctor)와 같은 학위를 부여하는 학위 수여권에서 나왔다. 당시 석사나 박사 학위는 각각 파리 대학의 자유학예 교수와 볼로냐 대학의 법학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사 이후에 받는 학위를 지칭하는 말로 변화했다. 석사, 박사 학위는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취득하는 학위로 자리 잡았고, 중세 대학의 엘리트적 경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 중세 대학의 발생

(1) 시대적 배경:

서양의 역사에 있어 문명의 이동은 세계 공용어의 이동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에는 그리스를 사용하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이 발달했고 로마시대와 중세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근대 초기에는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어가 학계의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고, 19세기 이후에는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한 영어가 학계의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서양에 있어 대학의 발생에는 중세 11세기 동안 확고하게 사용되었던 라틴어라는 공용어가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언어 외에도 카를 대제에 의해 8세기 말부터 진행되었던 카롤링거 르네상스(Carolingian Renaissance)는 교회와 수도원 소속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유학예의 교육을 진흥시켜 대학 설립에 기초가 되는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원래는 성직자들에게 정확한 라틴어 구사능력을 가르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일반적 교육 문화 증진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러나 라틴어와 카롤링거 르네상스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학 발생에 기여한 것은 바로 아라비아 충격(Arabian Shock)일 것이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 의해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성지회복을 모토로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원정을 빼고는 나머지 일곱 원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시간이 갈수록 호기심과 약탈, 정치적 야욕에 휘둘리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라비아의 발달된 학문과 기술에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문, 기술 등 다양한 것들을 수입하게 되어 중세 유럽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중 유럽에 전해지지 않았던 자연학, 윤리학과 같은 작품들이 처음에는 아라비아어를 통해 중역되었고 나중에는 그리스 원전을 통해 직접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신학의 경우 보편정신을 가진 이슬람신학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유클레이데스 기하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 의학이 전해졌고 종이, 나침반, 화약과 같은 기술이 도입되었다. 당시 아랍 문명의 두 축은 바그다드와 스페인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아랍 세계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자를 통해, 그리스도교 세력이 스페인에서 이슬람세력을 몰아내고 국토를 회복하려는 운동인 레콩키스타(Reconquista)의 주체들은 후자를 통해 아랍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인 과학기술은 장원의 해체와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여 대학 발생의 인적, 물적,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으로 대표되는 철학, 신학 등 새로운 학문의 유입은 대학 설립의 내용적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스페인 중부 톨레도(Toledo)의 룰루스(Raimundus Lullus) 대주교를 중심으로 아랍문헌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업이 유럽의 학문 부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는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을 그리스어 원전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하는 사업과 맞물리면서 13세기에 파리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아리스토텔레스 열풍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사회적 배경:

서양 중세에 대학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12세기는 최초의 대학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지만 크게 볼 때, 대학 발생의 준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봉건제도가 완성되고 도시경제와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이 분화되고 지식인도 도시 직업인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봉건제도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신분제도의 붕괴와 중세 봉건제도의 몰락이 시작된 기점이 되었다. 장원이 해체되고 자유로운 도시인들이 증가하면서 부와 사회적 지위와 자유의 확대를 위해 교육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정보와 지식이 권력과 부를 의미했다. 따라서 교회권력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신학 공부를 추구했고, 세속권력과 부를 보장받기 위해 법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인쇄술이 생겨나기 전의 책은 사치품으로서의 필사본이었고 유통 속도가 느렸다. 대신 아름다운 서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오늘날의 줄부들처럼 카페와 비슷한 고서점에서 외국서적 전집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학문이란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보물이었다.

장원이나 교회권력을 가지지 못한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팔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고 학생들도 지식인 룬펜 선생을 따라 다니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학생이건 선생이건 모두 지식인으로서의 지적 유랑생활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학문과 교육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학문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어야 할 상품으로 간주되었으며, 학교는 지식을 만들고 파는 작업장이고 시장으로 여겨졌다. 통속 라틴어를 공용어로 쓰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 있어 국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유럽 전체가 지식들에게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3) 대학의 탄생:

물론 1158년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대학에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특허장이 내려지면서 최초의 대학이 생긴 것을 사실이지만, 유럽에 대학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13세기에 이르러서이다. 13세기는 대학의 탄생기이자 조합의 세기였다. 대학도 당시 활발하게 생겨나고 발달했던 조합의 한 형태였고, 구체적으로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조합이 발생하였다. 조합이라는 것은 종교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혹은 특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대학도 왕이나 교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신분의 자유를 보장받은 조직이었다. 전통적으로 세속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교황의 권력 뿐 아니라 당시 강화되고 있었던 중앙집권적 군주들은 물론 대학을 수중에 넣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결국 대학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에 손을 들고 만다. 그리하여 대학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의 시작이다.

(4) 이탈리아의 대학:

12세기 중반까지는 볼로냐(Bologna)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법학이 학문의 중심을 이루었다. 볼로냐 대학은 대학설립 이전인 1141년에 이미 그라티아 누스의 교회법을 편찬할 정도로 법학 연구가 활발한 곳이었다. 이는 교황세력에 대항하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교회법 대신 로마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법학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발생하던 자치도시의 여러 단체들에 학생들이 대항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법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 측면도 있다. 즉, 대학은 법학생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수들에게는 높은 수업료에 불만을 제기하고 지역사회에는 방세, 식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대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법학은 다른 모든 학문 위에서 권력을 독점했고 그 독주와 특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자유학예를 중심으로 새로운 독자적 대학단을 만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결국 1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의학을 중심으로 학생뿐 아니라 교수들이 같이 새로운 대학단을 만들어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탈리아 남부에 의학중심의 살레르노(Salerno) 대학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렛조 대학(1188), 비첸짜 대학(1204), 알렛조 대학(1215), 파도바 대학(1221), 베르첼리 대학(1228), 시에나 대학(1240), 로마시립 대학, 페루자 대학, 트레비조 대학, 피사 대학 등이 생겨났다. 그 후 대학설립 용이해서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교황과 황제의 허가에 의해서만 설립을 인정받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유럽의 대학은 학생들의 조합, 교수들의 조합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5) 알프스 북부의 대학:

한편 알프스산맥 북쪽 유럽의 경우 신학 중심의 파리 대학이 학문의 중심이 되었다. 1231년 파리 대학에 교황의 칙서가 내려진 것이 파리 대학의 시작이 되었다. 파리대학은 원래 11세기 노트르담 성당 부속학교가 발달해서 아벨라르(Abelard)와 같은 대학자를 배출할 정도로 12세기에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1213년 파리의 대학 감독이 가르칠 면허(licentia docendi)라는 특권을 상실했고 다시 파리대학(1215)으로 명명한 후 1219년 탁발수도사들이 대학진출로 대학 내 종교세력의 복귀를 꾀하였다. 이에 맞서 1229~1231년 2년간 유혈사태와 더불어 파리대학 대파업이 일어났고 1231년 교황의 칙서로 대학이 주교의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어 비로소 대학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를 파리대학의 진정한 개교로 본다.

그러다가 1301년 종교권력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 유럽 학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캠퍼스가 없었고 시 건물을 빌려서 강의를 했다. 그러다가 독지가들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지었는데 이를 콜레기움(Collegium)이라 부르며 최초의 대학건물이 되었다. 기숙사 중 루이 9세의 주선으로 사제신부로 있던 소르본느(Sorbonne)가 기부한 콜레기움이 가장 유명했다. 학생단의 중심이 되어 교수를 채용했던 볼로냐 대학의 수평적인 전통과는 달리, 파리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종적인 동시에 횡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평의회는 의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대학의 운영권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이 소르본느는 현재의 파리 4대학 즉, 인문학부 문리과대학으로 파리 대학교의 여러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대학이기도 하지만 파리대학교 자체를 소르본느(Sorbonne)라 부르기도 한다.

그 이후 파리 대학의 이동으로 오를레앙대학(1231), 앙제대학(연대 불확실)등이 설립되었고, 대학설립의 규제에 의해 툴루즈대학(1229), 카오르대학(1332), 쿠르노브로대학(1339) 디종대학(1422), 푸아티에대학(1431), 낭트대학(1460)등이 설립되었다. 영국의 경우 옥스포드(Oxford) 대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지만 정확히 언제가 개교 시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096에 강의를 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고 1167년 헨리 2세가 영국 학생들이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급속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왕이나 교황으로부터 공식적인 독점적 특권을 문서로 취득

한 날을 개교일로 보는 유럽대학의 전통으로 볼 때는 대학의 시작이 1354년 에드워드 3세의 특허장 수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1209년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는 이후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이 만들어졌고 1226년 면허를 획득했다.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은 1366년 세워진 프라하 대학이었고, 독일의 경우 최초의 대학은 1386년 세워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이 표시이다.

(6) 대학의 형성과 성격:

이렇게 서양의 역사에 있어 대학의 시작은 대학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권을 교황이나 황제가 문서로 인정한 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의 본질에 학문의 자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대학의 실체는 교실이나 기숙사와 같은 건물이나 도서관의 책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장원이 약화되어 해체되고 도시가 생겨나면서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의 그룹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초경계적이고 탈영역적인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대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교황이나 황제들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가던 자치도시들이 횡단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학으로 발전해갔다. 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횡적인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자유의 정신이 대학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주체였던 것이다. 전 유럽에서 공통으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자유7과(7 liberal arts)라는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대학들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장소적 이동과 사상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학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유럽에 70~80개 정도의 대학이 존재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7) 대학의 커리큘럼:

그렇다면 중세의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들을 가르쳤을까?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교양학부를 마친 후 신학, 의학, 철학, 법학의 네 전공(고등학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부에서는 자유7과라고 부르는 교양과목만을 가르쳤다. 이 과목을 자유7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인(시민)에 어울리는 교양이기 때문이었다. 최소 6년을 다녀야 하는 학부에서는 우선 문법, 수사학, 논리학으로 구성된 3과(trivium)를 배우고 다시 산수, 천문학, 기하학, 음악으로 구성된 4과(quadrivium)를 배웠다. 3과는 오늘날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중핵교과 혹은 핵심교양교육(core curricula)에 해당한다. 그리고 4과는 수학과 자연과학과 같이 이공계 기초과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유7과를 가르치는 전통은 사실 중세 대학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4~5세기부터 기독교 신학교육의 기초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를 8~9세기에 카롤링거 르네상스의 일부분으로서 알킨이 규정한 것이 바로 자유 7과이다. 이렇게 교양교육을 받고 일반적 지식인으로서 검증을 받고난 후에 비로소 고등학부에 진학하여 법학, 의학, 신학, 철학의 네 가지 중에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여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데, 법학, 의학, 신학의 세 과목은 각각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철학은 갖가지 학문 분야로 분과되어 오늘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대부분의 개별 학문 분과들이 이 철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철학박사(Philosophiae Doctor 줄여서 Ph.D.)라고 부르는 것이다.

(8) 대학의 수업방식:

중세 대학의 수업방식에는 기본적으로 강의(lectio), 물음(quaestio), 토론(disputatio), 자유토론(disputatio quodlibet)의 네 가지가 있었다. 강의(lectio)는 원래 ‘읽는다’는 의미로 교수가 준비해 온 내용을 읽는 형태에서 출발했지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단락을 읽고 교수의 해설이 있는 후에 학생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읽고 가르치고 숙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의의 순서였다. 물음(quaestio)은 학생의 질문과 교수의 답변이 이어지는 형태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탐구해가는 수업형태였다. 보통 긍정과 부정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닫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찬반양론을 통해 풍부한 논의를 하도록 했다.

토론(disputatio)은 처음부터 교수가 논제를 던지고 학생들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과정이었다. 교수의 간단한 강의 후에 이론과 반론, 그리고 해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강독을 통해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이어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신학대전』과 같은 당시 전형적인 글쓰기의 양식은 사실 토론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유토론(disputatio quodlibetalis)은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날

청중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권위 있는 교수의 주제 하에 공개적으로 열렸다.

3) 중세대학의 특색:

(1) 단체주의:

중세의 대학은 학생단, 교수단이라는 조합을 단위로 만들어졌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수업료를 둘러싸고 학생단과 교수단 서로가 갈등하기도 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학은 학생단 혹은 교수단의 이름으로 투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하기도 하면서 대학의 권익을 보호했다.

(2) 자치권:

대학이 대학일 수 있는 기준은 학생들 혹은 교수들에게 왕이나 교황이 재판특권, 자치권을 문서로 부여하는 것에 달려있었다. 이렇게 특허장을 부여받은 날이 바로 대학의 개교기념일로 간주되었다. 이런 특허장에 의해 세속권력 혹은 종교권력의 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학 안에서 벌어진 민형사상의 사건들은 대학 자치위원회에서 재판을 열어 판결했고, 심지어 대학 안에 감옥을 두어 범죄를 저지는 학생이나 교수를 투옥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치권은 외부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유, 여행의 자유, 사법권 등을 의미했다.

(3) 면세특권:

대학의 자치권과 자유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까지 보장받았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세계 대부분의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대학이 영리추구의 단체가 아니라는 데에 근거가 있다.

(4) 보편성(국제성)민족과 국경초월:

대학의 보편성은 내용과 자격에 있어서 공히 나타난다. 학문에 있어 보편성은 유럽 전 대학에 걸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체계와 그리스도교적 전통이 기초가 되었다. 이는 수평적인 학문적 보편주의와 수직적인 초월적 보편주의 사이의 긴장과 조화에 입각한 것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13세기가 이 두 보편주의 사이의 조화의 시기였다면, 윌리엄 오캄으로 대표되는 14세기는 이 둘 사이의

갈등과 분열의 시기였다.

그러나 중세 대학의 커리큘럼과 학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간 인적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시작한 대학 설립은 유럽 전역에 70 여개의 대학이 생겨날 정도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대학에서는 기존 대학의 졸업생들을 교수진으로 초빙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유럽 어느 대학에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왕이나 교황에 의해 부여되었고 그렇게 왕이나 교황에 의해 승인받은 교수면허는 전 유럽에서 통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한 나라에서 받은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국제적 관행이 통용되고 있다.

(5) 파업권: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과 교수는 학문의 자유와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각 파업권을 가진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존경과 배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무능과 게으름을 견제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교수가 연구나 수업준비에 충실하지 못하면 학생은 그 교수의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교수는 그 학생을 수업에서 내쫓을 권리가 있다.

4) 근대의 대학

14세기 초반부터 대학은 세속과 종교의 분리라는 학문적 경향의 증가와 더불어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학부와 신학부는 신부들로 채워졌고 유럽 전체에 걸쳐 형성되었던 대학의 보편성은 사라지고 개별 국가의 종교와 권력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이후 대학이 그 존립 근거인 자치권을 상실하고 군주 권력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국가기관으로, 교수와 학생은 국가의 관리로 전락했다. 지식인의 이동성에 근거하여 도시와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중세 유럽의 대학은 사라지고 대학은 각기 신교 혹은 구교, 각 개별 국가의 군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다.

16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지식세계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출판계는 대학을 대신해서 지식을 재생산하는 기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수도원, 대학, 교수가 폐쇄적으로 독점했던 책을 이제 대량생산을 통해 모

든 소비자에게 대규모로 전달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고 개방되었으며 학문의 권위는 수평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롭게 책을 쓰는 작가, 인문주의자, 자연과학자들을 성장하게 하고 모이게 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만들어 자유롭게 학문적 토론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대학은 전통적 지식을 고집하는 폐쇄적 공간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에 패한 프로이센의 지식인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아카데미즘에 대항해서 민족주의와 자유의 이념으로 독일의 대학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칸트는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와 같은 상급학부는 국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는 지성으로, 자유학예를 가르치는 철학부와 같은 하급학부는 모든 명령을 판정하는 자율적 지성으로 역할을 나누는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통일을 도모한 칸트의 제안에 근거해서 피히테, 쉼라이어마허, 훔볼트와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 같이 만든 베를린 대학에서 시작한 독일의 새로운 대학 시스템은 전 독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19세기 대학의 전형이 되었다. 훔볼트가 주도한 이 새로운 대학 모델은 세미나와 실험실과 같은 연구를 대학교육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대학들은 독일의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얹어 자신들만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모델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인 대학 모델이 되었다.

5) 현대의 대학

21세기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왕과 교황의 권력 사이에서 치외법권을 얻어냈던 중세의 대학도, 지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 했던 낭만주의 시대의 국가주도 대학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무한 공유와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국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의 대학은 어떠한 모델이어야 하는가?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을 독점하던 중세 대학의 권위가 허물어지고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변화가 최근 벌어지고 있다. 20세

기까지의 대학이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동되었다면, 21세기의 대학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의 담을 넘어 물질적 실체가 없는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식 노마드로서의 학생과 교수 집단의 협동조합은 중세 대학이 시작할 당시의 생성조건이자 이상이었다. 이제 21세기의 대학은 네트워크로 가상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국가와 개별학문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떠다니는 실체 없는 개념이 되고 있지 않을까?

6) 대학이 가지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은 일반적인 교육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크게 이념과 주체의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1) 이념: 자유와 진리

대학은 자유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학은 12세기에 처음 설립될 때부터 황제와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치외법권을 문서로 보장받은 날을 개교기념일로 삼았다. 이뿐 아니라 대학은 지역사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역사가 있다. 교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치외법권을 인정받듯이 대학교 치외법권을 인정받아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학자치위원회에서 그 처벌을 결정했고 세금도 면제받았다. 이렇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은 이유는 진리탐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아탑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마지막 양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위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기관과는 다르다.

(2) 주체: 학생과 교수

대학의 주인이자 주체는 학생과 교수, 교수와 학생이다. 학생은 교수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 교수도 학생을 가르치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 이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다. 조화로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갈등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교수는 이미 만들어진 굳은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는 학생과 함께 진리의 바다에서 같이 항해

하며 소중한 결과를 얻어낸다. 그렇기에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수업방식은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토론식 수업이다. 교수는 게으른 학생을 꾸짖고 권력이나 학생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수업을 거부할 파업의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학생 또한 게으르거나 실력 없는 교수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수업을 거부할 파업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긴장 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바람직한 대학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7) 대학의 정체성이 신입생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와 같이 여타의 교육기관과는 다른 대학의 정체성이 신입생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왜 신입생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 대학의 정체성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대해 따져야 할까?

첫째, 그것은 바로 작금의 왜곡된 대학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에게 대학의 본질과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1학년 입학 직후부터 토익과 공무원시험에 열중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학의 모습은 진리탐구나 사회봉사라는 사명은 외면하고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방향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방향잡기(orientation)는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 질문과 토론이 왜 중요한지, 팀플레이 대학생활 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도 왜 필요한지, 그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문 교양 교육이 대학생활과 인생 전반에 왜 절실한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방향잡기를 하는 것은 대학 신입생 뿐 아니라 재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학의 이념과 역사,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관련된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등 역사적 당위를 떠맡아야 했던 한국대학의 역사는 대학의 이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대학 정체성 교육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그 결과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교수들마저도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취급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대학 본연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열

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신입생 교육은 그중 중요한 자리가 된다.

셋째, 중세 대학의 전통에 따라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화와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수가 같이 토론을 통해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수의 권위의 의존하고 교수의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구태의연한 학습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반론과 재반론의 과정을 통해 진리에 조금씩 다가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같이 하는 ‘줄탁동시’의 과정과 그 대표적 방법인 문제해결학습(PBL)은 단순히 최근 개발된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가 아니다. 이는 이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교수와 학생이 같이 문제를 던지고 찾아가던 중세 대학의 수업방식이었고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수학습 방식이다.

넷째, 대학신입생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자유의 보장을 통한 진리탐구를 이념으로 했던 중세대학의 모델로부터 배울 바가 많기 때문이다. 13세기 중세의 대학은 장원의 몰락과 도시계급의 형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도입과 전통적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급속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생단을 중심으로 교수단과 협력, 긴장하면서 왕권과 교황권, 지역사회의 압력에 대항하면서 진리탐구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이에 신입생들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푸는 과정은 성인으로서의 자유와 책임감을 확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신입생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및 이론적 배경

1) 대학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대학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교 시기에서 ‘신입생 경험(First-Year Experience)’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겪게 될 전반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보의 습득 및 자기계발의 기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지원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발달 이론을 근거로 체계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이원경 외, 2012)

또한 최근 들어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연구와 함께 교육의 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신입생을 위한 교육이 중요 주제로 부각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동향을 소개하고 대학별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및 효과를 소개(이원경 외, 2012, 권해수, 2013, 추문식 외, 2013, 이문정 외, 2014 등)하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대학의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이제봉, 2007, 신의향, 2010, 2011, 유솔아, 2011)하는 등의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입생 교육목표 및 개념 규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살펴볼 수 있다. Tinto의 학생통합이론과 Astin의 관여이론을 기반으로 신입생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언급(염민호, 이정은, 2007; 유솔아, 2011)하거나, 대학교육 준비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의 하나로서 예비교육을 제안(이제봉, 2007)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학습을 위한 로드맵으로 규정하거나, 미국의 오리엔테이션 개념과 시행 동향을 근거로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정체성을 규명(임원영, 한상희, 2012)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신입생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대학별 신입생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차영은(2015), 제주대학교 학생처(2015) 등)를 대학 학생생활 상담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 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상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기도 한다(금명자, 남향자, 2010).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관련한 연구들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학생 및 학교의 요구도 분석(홍성연, 2016)이나, 대학별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권해수, 2013; 이문정, 최예정, 2014; 이미아, 이순덕, ; 이희원 외, ; 한우석, 김진경, 이해경, 2013) 등이 있다.

2) PBL 교수학습 전략의 도입 관련 연구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기본 목적은 모두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생활과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에 따라 캠퍼스별 또는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거나 학교 당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경향도 대두되고 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도 대학에 따라 선택적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처와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느 쪽이 행사를 주최를 하든지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과정에서 신입생들은 수동적인 객체로서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신입생을 적극 참여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PBL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PBL은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책을 향한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써 Barrows(1985)에 의해 구체화된 것이다. Levin(2001)은 PBL을 학습자가 실세계의 문제와 이슈에 대한 내용지식,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활용할 경우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과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고 당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이끌 것이다.¹⁾

무엇보다 PBL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 생활과 관련 지식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실제 경험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는데 있다. Barrow는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고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PBL을 활용하여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상황의 실제성에 기반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강의실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PBL²⁾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해 가기 때문에

1) 광병선 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82~83쪽.

2)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1997.

학생들의 자유로운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조별 협동학습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활동에 조언과 안내를 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 기능하게 된다. 학교 본부나 교수자는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설계와 수업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신입생들은 예비대학 교육에서 학습의 주체가 됨으로써 스스로 학습동기를 갖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이에 수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예비대학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배움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3. 국내외 대학 사례 검토

1) 국내대학 사례

국내 대학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국공립·사립 대학, 남녀공학·여자 대학으로 구분하여 총 33개 대학을 살펴보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첫째,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차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해당 대학에 대한 소개 및 비전 공유, 학생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특강, 캠퍼스 투어, 교수 및 선배와의 만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각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입학식과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각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가톨릭대, 계명대, 광운대, 동국대, 동신대, 서울대, 아주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한동대, 한림대, 한양대)들의 경우 대체로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관련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습동기유발학기’로 시작하여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건양대)하고 있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어, 수학 시험과 함께 전공에 따른 필수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아주대)하는 경우, 학부 및 학과 재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조선대, 숙명여대) 등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 사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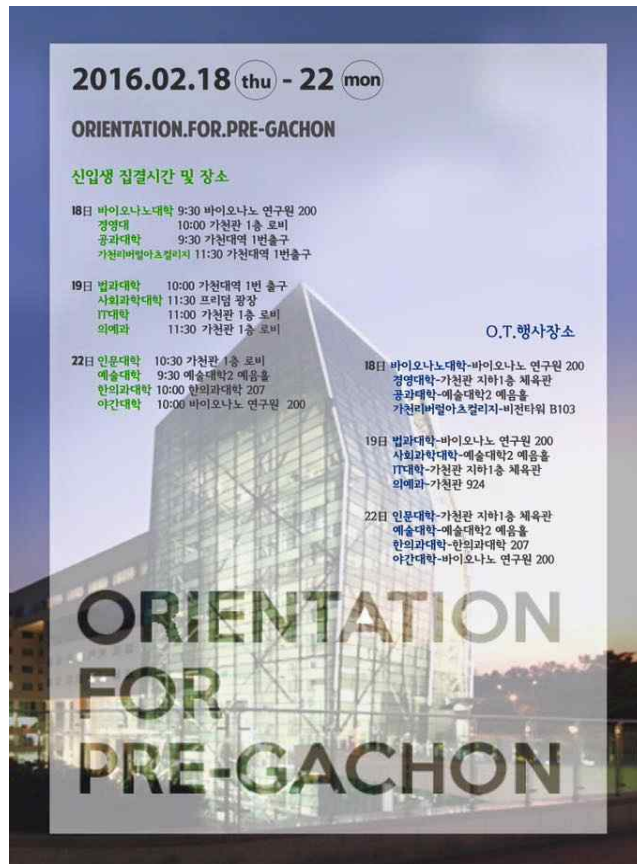
ACE 지원 대학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한 사례 조사 대학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 리서치를 통해 개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운영상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1> 사례 조사 대학

구분	수도권	지방
국공립 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사립 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조선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여자 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 가천대학교³⁾

가천대학교는 'Pre-Gachon 신입생 교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 대학생활, 수강신청, 학사안내, 단과대학 소개, 지도교수와의 만남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2]와 같이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었다.



[그림2] 가천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포스터

3) 가천대학교

http://www.gachon.ac.kr/community/opencampus/03.jsp?mode=view&boardType_seq=358&board_no=5197

○ 가톨릭대학교4)

가톨릭대학교는 학교소개 및 수강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다음 날부터 2박 3일 동안 새내기 인성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톨릭대학교는 1박 2일 동안 ‘수시합격자 대상 예비대학 캠프’에서 학생 특강 및 학교 소개, 캠퍼스 투어, 선배들의 공연과 만남, 친목도모, 다양한 미션 수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2>와 같다.

<표2> 가톨릭대학교 예비대학 캠프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9/10(수)	10:00~11:00	접수 및 안내	접수, 캠프장 안내, 방 배정	미카엘 홀
	11:00~11:20	교목실장님환영인사	환영인사 및 교목실 소개	미카엘 홀
	11:20~12:10	총장님환영인사 및 특강	가톨릭대학에의 환영인사 및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위한 특강	미카엘 홀
	12:30~13:30	점심		학생식당
	13:30~14:30	이동	성심교정 → 성신교정	버스
	14:30~16:30	성신교정투어	성신교정 방문, 캠퍼스 돌아보기	성신 교정
	16:30~18:00	이동	성신교장 → 성심교정	버스
	18:00~19:00	저녁식사		교직원식당
	19:00~20:00	가톨릭대학 선배들의 이야기와 공연	-동아리 공연감상과 선배들의 대학생활 이야기	미카엘 홀
	20:00~22:00	레크레이션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	스머프 광장
	22:00~22:30	일정안내	내일 일정 안내 및 숙소 소개	미카엘 홀
9/11(목)	22:30~23:00	숙소로 이동	학교에서 숙소로 이동	대교HRD센터
	23:00~07:00	취침	취침	대교HRD센터
	07:00~08:30	아침식사 및 산책	숙소에서 아침식사, 소래산 산책	대교HRD센터
	08:40~09:10	학교로 이동	숙소에서 학교로	미카엘 홀
	09:10~10:40	미션 성심교정	조별 수행 목록	성심교정
	10:40~11:00	콘서트홀 이동		
	11:00~12:30	개강미사		콘서트홀
	12:30~13:30	점심		기스홀
	13:30~14:30	예비대학 프로그램 안내	-캠프평가서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학점인정과정안내 -미션우수자 시상	미카엘 홀
	14:30~	귀가		

4) 가톨릭대학교

http://www.catholic.ac.kr/openspace/02_01.html

○ 건양대학교⁵⁾

건양대학교는 기초교양교육대학에서 ‘동기유발학기’라는 프로그램을 2011학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동기유발학기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대학생활 적응, 미래진로 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기유발교육체계는 <표3>과 같다.

<표3> 건양대학교 동기유발교육체계

동기유발학기 대상	학습동기유발학기 신입생	레지던스컬리지 1학년	파트너십트레이닝 1,2학년	취창업 동기유발 2학년
교육목표 및 성과	·대학조기적응 ·학과 및 전공 만족도 향상 ·학습동기 향상 ·동기 관련 생애 역량 강화	·인성강화 ·예절강화 ·행복증진	·자기주도성 증진 ·창의성 강화 ·사회기반문제해결 ·협동성 증진	·진로탐색 ·도전의식 고양 ·실용적 사고 ·창의적 아이디어
주요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미래비전 특강 ·대학적응 프로그램 ·미래직장 방문 ·전공몰입교육	·RC 휴먼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학생주도 프로그램 ·프로젝트형 협동 과제 ·봉사 및 독서	·청춘 특강 ·상상재능경매 ·아이디어 대항전 ·창업 시뮬레이션 ·드림 컨설팅

건양대학교는 학습동기 유발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도약 리더십 캠프를 3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존감과 자신감 넘치는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비전 특강은 지역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 계기와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멘토 특강이 있다. 전공몰입 교육은 전공 학문에 입문하기 전에 전공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 가치를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의미를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직장 방문은 현장방문을 통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탐색하고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방문형 프로그램이다.

5) 건양대학교

http://www.konyang.ac.kr/lac/sub02_01_01.do

〈표4〉 건양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및 동기유발학기 입교식 프로그램

시간계획	행사 내용	장소
~12:40	학교 도착 ※ 개별적으로 점심식사 후 명곡정보관 광장 대기 ※ 학과 지정장소로 이동 예정	명곡정보관 광장
13:00~14:00	(신입생) 학과 오리엔테이션	인문학관 302호
	(학부모) 대학 학사(비전)운영 설명회	콘서트홀
14:00~14:30	이동 및 입학식장 착석	짐나지움 (체육관)
14:30~16:10	1부 : 입학식 및 동기유발학기 입교식 2부 : 건양의 꿈	
16:10~16:30	이동	학과 지정장소
16:30~17:30	동기유발학기 시작(학과별 OT 및 프로그램)	

2015학년도에 진행된 건양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및 동기유발학기 입교식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4>와 같다. 신입생 대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하여 대학의 교육비전과 학사제도에 관해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기유발학기 사례 발표 및 동영상 시청과 함께 동기유발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경희대학교⁶⁾

경희대학교는 수시 고른 기회 전형 입학생과 수시 입학생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선착순 200명) 수시 입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소개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특강, 대학생활설계 그룹 프로젝트, 캠퍼스 투어, 레크레이션, 재학생 멘토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과대학별로 이루어지는 신,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표5>와 같다.

<표5> 경희대학교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학과	대상	오리엔테이션	
			일시	장소
외국어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19(금) 10:00	르네상스홀
		편입생	2016.02.24(수) 11:00	외국어대학관 211호
응용과학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3(화) 09:30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211-1호
		편입생	2016.02.24(수) 09:00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211-1호
생명과학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3(화) 09:00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편입생	2016.02.24(수) 09:30	생명과학대학 422호
체육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3(화) 09:30	체육대학 시청각실
		편입생	2016.02.24(수) 13:00	체육대학 211호
공과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6(금) 10:00	르네상스홀(중앙도서관 3층)
		편입생	2016.02.24(수) 09:00	공학관 107호
예술디자인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3(화) 09:00	예술 디자인대학관 A&D홀
		편입생	2016.02.24(수) 11:00	예술 디자인대학관 225호
전자정보대학	전체학과	신입생	2016.02.23(화) 10:00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205호
		편입생	2016.02.24(수) 10:30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101호
국제대학	국제학과	신입생	2016.02.19(금) 08:30	국제 경영대학관 시청각실
		편입생	2016.02.24(수) 09:30	국제학관 202호

6) 경희대학교

<http://www.khu.ac.kr/life/noticeView.do?category=ntcate04¬iceId=2290>

○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국제학대학의 경우에는 교직원 및 학생회 소개, 학사일정 안내, 학생 특강 및 학과별 안내, 수강신청 안내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간	주 요 내 용	장 소	비 고
13:30 ~ 14:00	학교 홍보영화 상영 파이프오르간 연주	아담스채플 대예배실	
14:00 ~ 14:30	기 도 학장 인사말씀 및 보직교수 소개 행정팀 직원 소개 학생회 임원 소개 학사업무 안내	아담스채플 대예배실	사회: 행정팀장 안내: 학과조교
14:30 ~ 15:00	특강 (김용일 학생부총장)		
15:00 ~ 15:10	영암관 및 스미스관으로 이동		조교 및 학생회 임원 인솔
15:10 ~ 17:00	학과(전공)별 활동 학사안내 및 대학생활 지도 강의시간표 안내 수강신청 지도 학생증 발급신청 안내 기타 설문조사 등	영 암 관 스미스관 지정강의실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조교 학생회 임원

계명대학교의 예비대학 프로그램 역시 학부 및 단과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명대의 경영대학 경우는 수시합격 예비대학생을 위한 비전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비전캠프 내용은 아래의 <표7>과 같다.

<표7>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예비대학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장 소	비 고
09:30~10:00	등록 및 입실	의양관 118호	
10:00~10:50	학장 인사 학과장 소개 경영대학 홍보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 COMPass K와 KABE 소개	의양관 118호	
10:50~11:00	휴식		
11:00~12:00	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소개 학생회 활동 소개 친목시간	의양관 118호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3:50	학과 교수 소개 환영사 학과학생회 소개 학과 홍보 동영상 시청	지정강의실	
13:50~14:00	휴식		
14:00~15:30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학과 동아리 소개 졸업 후 진로소개	지정강의실	
15:30~15:40	휴식		
15:40~17:00	학과 교수님과의 개인면담시간 선배들과의 대화시간 참가자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지정강의실	

○ 고려대학교⁷⁾

고려대학교는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학부 및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대 학생활동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대학의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 상영, 환영사, 생활 특강, 학사안내, 학생회 안내, 학부(과) 소개 및 학부(과)별 교육과정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해외 대학에 진학 예정인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하계대학 예비 대학생 과정 (KU Pre-Colleg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최초로 예비 대학생을 위한 여름 특별 강좌로, 해외대학의 현직 교수진에 의한 전 과목 영어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최대 3과목 수강 가능), 한국의 역사와 예절, 민족정신 교육, 전통 문화 및 유적지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 준비를 위한 필수 4과목뿐 아니라 국제하계대학 120개 과목도 수강 가능하다.

○ 광운대학교⁸⁾

광운대학교는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교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장 환영사 및 주요 부처별 업무소개와 신입생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교가 및 응원가 연습, 동아리소개, 단과대학별 전공 설명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2박3일 동안 진행되며, '총학생회 신입생 환영 문화행사, 단과대학별, 학과별 환영 행사, 학교소개 및 생활안내'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수시전형 등록생을 대상으로 '미리 가보는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활탐구, 자아발견, 영어교육, 커리어개발, 문화예술 특강 등'의 교육내용으로 5일 동안 진행한다. 출석율 100% 참가자에게는 2학점의 학점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표8>과 같다.

7) 고려대학교

http://www.korea.ac.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36&boardSeq=305322&id=university_060101000000

8) 광운대학교

<http://www.kw.ac.kr/sub/plaza/mn1bbsCP.do?np=1&cate=&st=1&sw=%EB%AF%B8%EB%A6%AC%20%EA%B0%80&bbsSeq=559003&bbsId=notice>

〈표8〉 광운대학교 ‘미리 가보는 대학’ 교육 내용

영역	교육 내용	시수
대학생활 탐구	오리엔테이션	1
	[꿈을 향해가는 대학생활 4인4색] 선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성공 사례	4
	대학 동아리 공연, 종강식	1
자아발견	[MBTI(성격유형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4
	[진로선택과 경력개발]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학	2
영어로 놀자	[김미어픽쳐폴리즈] 공대생의 실전영어 정복기	2
	[Prep. Academic English]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 잘하는 법	6
커리어 개발	[브랜드 프리젠테이션] 나만의 브랜드 개발, 차별화된 경력개발을 위한 발상의 전환	2
	[스마트학습전략] 스마트한 대학생활을 위한 시간관리 및 목표설정	2
문화예술 특강	[귀로듣는영화] 영화감독 유대열의 영화,광고 속 음악 이야기	2
	[이야기가있는 재즈콘서트] 재즈 피아니스트 김철수의 라이브연주와 토크	2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세계사와 인간] 인문학 특강	2
총 교육 시수		30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수시전형 및 재외국민전형 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은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최대 4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 강의평가 후에 성적조화가 가능하며, 이 성적은 입학년도 공통학기 성적에 반영되어 ‘자유

선택’ 영역으로 인정되고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 평가되며 수강료는 학점 당 80,000원이다. 구체적인 개설 과목은 <표9>와 같다.

<표9> 동국대학교 예비대학 개설 과목

번호	대상	교과목	학점	분반	수강 정원	강의 유형	요일 및 시간	강의실	강의 기간
1	공통	창의적비전코칭	1	2	60	-	월, 수 : 1~13시 화, 목 : 11~13시	Q301/ Q302	1.4~ 1.28
2		스페인어기초	1	1	30	-	월, 수 : 14~16시	Q301	
3		중국어기초	1	1	30	-	화, 목 : 14~16시	신공학관 2166	
4		한자의세계	1	1	120	사이버	-	-	
5		TOFEL Reading Strategies	1	1	100	사이버	-	-	
6		세계명작맛보기	1	2	60	팀티칭	월, 수 : 9~11시 화, 목 : 9~11시	신공학관 2166	
7		창의적상상과 소프트웨어	2	1	60	팀티칭	월, 화, 수, 목 : 11~13시	신공학관 6144, 신공학관 6119	
8		계산적 사고	2	1	60	-	월, 화, 수, 목 : 14~16시	신공학관 6144	
9	학생 부 위주 전형	담론의의미와소통	1	1	40	-	화, 목 : 11~13시	Q301	1.4~ 1.28 (화,목)
10		English Speaking Practice(Basic)	1	2	30	-	화, 목 : 9~11시	Q301/ Q302	
11		Discovering the English Speaking Countries(Basic)	1	1	40	팀티칭	화, 목 : 14~16시	Q301	
12		기초미적분학	1	1	120	사이버	-	-	
13		대학기초작문	1	1	40	-	화, 목 : 11~13시	Q302	
14	그 외 합격 자 대상	담론과 미디어	1	1	40	-	월, 수 : 16~18시	Q301	1.4~ 1.28 (월,수)
15		Exploring English Cultures	1	1	40	-	월, 수 : 16~18시	Q302	
16		Practical English	1	2	30	-	월, 수 : 9~11시	Q301/ Q302	

○ 동명대학교⁹⁾

동명대학교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안내(장학안내, 학군단 소개,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불법 다단계 판매 예방 교육, 동아리 공연 및 초청가수 공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강조하여 ‘선배와 함께 하는 신입생 비전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비숙박으로 2일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표10>과 같다.

<표10> 동신대학교 비전설계 프로그램

1일차(16.03.19.토)		2일차(16.03.20.일)	
굿모닝 셀프리더십	09:00 - 09:40	성취경험	09:00 - 10:30
나 이런사람이야	09:50 - 11:20	셀프토크	10:40 - 12:00
빛장열기	11:30 - 12:40	나의 비전찾기1	12:10 - 12:40
중식 12:40 - 13:40			
때문에, 덕분에	13:40 - 15:00	나의 비전찾기2	13:40 - 14:50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15:10 - 16:40	비전, 내 것으로 만들기	15:00 - 16:20
친친백서	16:50 - 18:00	진정한 리더로 도약	16:30 - 18:00

○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단과대학별로 그룹으로 진행되며, 1,2차로 나누어 1박 2일 동안 운영되었다(1차: 2016년 02월 23일(화) ~ 02월 24일(수) 테크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2차: 2016년 02월 24일(수) ~ 02월 25일(목)

9) 동명대학교

<http://www.tu.ac.kr/default2/sub/subLocation.tu?categorySeq=1000005&menuSeq=100000551&confSeq=&boardSeq=-1>

인문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TV영화학부)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생활 안내, 신입생 특강, 환영행사 및 축하공연, 교수 및 선후배간의 만남, 홍보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11>과 같다.

<표11> 목원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행사내용	주관	비고
09:00~10:00	행사장 입장	학생복지팀 및 총학생회	단과대학별 지정 자리
10:00~10:40	입학식	교무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장소 : 문화예술관 대신홀(1층) -진행 : 취업경력개발센터
10:40~10:50	무대 및 객석 정리	학생복지팀 및 총학생회	
10:50~11:00	교가배우기	음악학과	
11:00~11:15	축하공연	무용예술학과	
11:15~11:30	영상(학교소개 7분) 영상(설립자 소개 6분 30초) 학생회 소개	학생복지팀 및 총학생회	
11:30~11:45	총학 홍보영상 및 경품행사	총학생회	
11:45~11:50	동아리 및 SMBS 홍보영상	동아리 및 교육방송국	
11:50~12:30	동아리공연(허밍/소리마을/토네이도/그루빈 및 사랑놀이)	동아리	
12:30~13:30	연예인 공연(여자친구, 씨잼)	학생복지팀 및 총학생회	사회 : 개그맨 김기욱
13:30~13:45	행운권 추첨	총학생회	아이패드 미니 4 등
13:45~	중식	학생복지팀 및 총학생회	교내식당
24일(수), 25일(목)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개별진행	단과대학생회	계당홀, 대신홀 등

○ 부산대학교¹⁰⁾

부산대학교는 입학식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표12>와 같다.

<표12> 부산대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	내용
13:35-14:00	동아리 공연 / 교가 및 찬가 배우기
14:00-14:05	개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1절)
14:05-14:08	학사보고 - 교무처장
14:09-14:12	입학 허가 선언 - 총장
14:12-14:19	선배 축하 동영상 - 대외협력과
14:19-14:23	학장위원 및 주요보직자 소개
14:23-14:27	신입생 대표 선서
14:27-14:37	총장 식사
14:37-14:47	총동문회장 축하
14:47-14:57	총학생회장 축하
14:57-15:10	음악학과 합창단
15:10-15:25	부산대학교 홍보영상물 상영
15:25-16:20	동아리 공연 /UCDC 등
16:20-16:30	폐회
16:30- 이후	각 대학별 신입생 지도 및 행사 안내

10) 부산대학교

http://www.pusan.ac.kr/uPNU_homepage/kr/sub/sub.asp?menu_no=1001070105&board_no=64947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내 기숙사와 체육관, 강의동에서 1,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오리엔테이션은 유럽미주대학, 아시아대학이 중심이 되고, 2차 오리엔테이션은 인문사회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글로벌 창의융합 대학이 포함되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학과 체험과 입학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습 성공사례 특강 등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교수 및 선배들의 대학생활 팁을 제공하고, 취업 및 해외 교류프로그램 설명회, 토크 콘서트와 축하 공연,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 상명대학교¹¹⁾

상명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과 전체 오리엔테이션으로 구분하여 단과대학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일차는 인사대, 경영대, ICT대만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진행되었고, 2일차는 모든 단과대학이 오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사범대, 문예대, 자연대, 군사학과만 대학별 오리엔테이션 진행되었다. 1일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마친 단과대학은 2일차 오전행사 종료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내용은 <표13>와 같다.

<표13> 상명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차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담당부서
<1일차> 2.15(월) 2.17(수)	12:00 ~12:40	학생 집결	자정강의실/학생운팀
	13:00 ~13:50	학과 소개	자정강의실/각학과
	14:00 ~14:50	기숙사 배정 및 입실	기숙사/학생기숙사
	15:00 ~16:20	입학식 (15시 집결, 15시30분 입학식)	체육관/학문리팀
	16:30 ~17:50	동기부여특강 I - 2.15(월) : 부산외대 대학생활백서 공모전 및 미래비전 경진 대회 수상자 3명/고요한, 김유진, 정수원/부산외대 재학생	체육관/교육혁신팀

11) 상명대학교

https://www.smu.ac.kr/mbs/smu/jsp/board/view.jsp?spage=1&boardId=14446&boardSeq=17795129&mcCategoryId=&id=smu_040100000000

		- 2.17(수) : 학습 성공 사례 특강/강성태/공부의 신 대표	
	18:00 ~19:20	저녁식사	자정상담학생지원팀
	19:30 ~21:30	토크 콘서트 - (고정) 정희정/아나운서, 송길영/빅데이터전문가, 안드류/BUFS 교수 - 2.15(월)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스카웨이커즈/인디밴드 - 2.17(수) 알베르토 몬디/방송인, 에브리 싱글 데이/인디밴드	체육관/교육혁신팀
	21:30	기숙사이동	가습사/학생지원팀
<2일차> 2.16(화) 2.18(목)	07:00 ~08:50	아침식사	자정상담학생지원팀
	09:00 ~11:20	영어능력진단평가 - (종료 후) 외국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소개	자정강의실/교육혁신팀
	11:30 ~12:50	점심식사	자정상담학생지원팀
	13:00 ~14:50	학과 행사	자정강의실/각 학과
	15:00 ~15:50	대학 생활 안내 -“넌, 어디까지 가 봤니? -해외취업의 꿈”(30분)/조재형/부산외대 교수, 취업진로개발센터장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목표 및 주요 교육 프로그램 안내(20분) /서상범/부산외대 교수, 교육혁신교무처장	체육관/취업진로센터/교육혁신처
	16:00 ~17:20	동기부여 특강 II - 2.16(화) : 학습 성공 사례 특강/조승연/작가 - 2.18(목) : 부산외대 대학생활백서 공모전 및 미래비전 경진 대회 수상자 3명/고요한, 김유진, 정수원/부산외대 재학생	체육관/교육혁신팀
	17:20 ~17:50	폭력 예방 특강 - 객진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체육관/학생상담센터
	18:00 ~19:20	저녁식사	자정상담학생지원팀
	19:30 ~21:30	동아리 소개 및 동아리연합회 환영 공연	체육관/학생지원팀
	21:30~	기숙사 이동	가습사/학생지원팀
<3일차> 2.17(수) 2.19(금)	07:00 ~08:50	아침식사, 기숙사퇴실	자정상담학생지원팀
	09:00 ~09:50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A팀) - 김윤지, 함동인/부산외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임연구원 마음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B팀) - 이성실, 김보경/부산외대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	3일차 강의실 /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
	10:00 ~10:50	마음건강 스크리닝 프로그램(A팀)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B팀) 만족도 조사	3일차 강의실 /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학사관리팀
	11:00~	귀가	

○ 서강대학교¹²⁾

서강대학교는 교내 오리엔테이션과 교외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 오리엔테이션은 입학식과 함께 진행된다. 교내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심리검사와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와 교육, 성평등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표14>와 같다.

<표14> 서강대학교 입학식 및 교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시간	행사명	장소	비고
10:00 - 11:30	입학식	체육관	학사지원팀
11:30 - 12:10	김대건관으로 이동	김대건관지정장소	
12:10 - 12:50	점심식사		
12:50 - 13:50	신입생 심리검사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3:50 - 14:30	체육관으로 이동, 정리		
14:30 - 16:00	학교생활 안내 및 교육 -수강신청 및 학사 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교목팀 안내 -장학금 신청 안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애인식 개선 및 절주 교육	체육관	각 관련 행정부서
16:00 - 16:20	성평등 교육(20분)	체육관	성평등상담실

12) 서강대학교

[http://club.sogang.ac.kr/@bb/bboard.asp?db=@bbs_www_notice&mode=read&num=4223&page=](http://club.sogang.ac.kr/@bb/bboard.asp?db=@bbs_www_notice&mode=read&num=4223&page=1)

한편 서강대는 교외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소개, 학부별 교수 및 선배와의 만남, 문화행사, 응원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15>와 같다.

<표15> 서강대학교 신입생 교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자/시간		행사명	내용	장소
첫째 날/ 2.21 (일)	09:00 - 10:00	버스 탑승 수속	학교에서 학부별 집결 및 버스 탑승	김대건관 체육관
	10:00 - 13:00	이동 및 점심 식사	대명비발디파크로 이동 도시락 배부 및 식사	지정 버스
	13:00 - 14:00	행사장 이동	중앙 행사장으로 이동 정리 및 착석	다이아몬드홀 (메이플동 3층)
	14:00 - 14:40	입소식	국민의례, 총장 환영사, 기도 보직 교수 소개, 기타	
	14:40 - 14:50	학생회 시간	총학생회 소개	
	14:50 - 15:45	방송제 1부	SGBS, 서강TV. 학교 소개 프로그램	
	15:45 - 16:30	객실 이동 및 정리	학생회 및 학부별 새맞단 인솔	
	16:30 - 17:00	방별 시간	자기 소개, 내규 작성	객실
	17:00 - 18:00	교수와의 대화	학부별 교수와의 간담회 시간	객실
	18:00 - 19:45	저녁 식사		지정 식당
	19:45 - 20:40	방송제 2부	SGBS, 서강TV. 학교 소개 프로그램	다이아몬드홀
	20:40 - 22:20	풍물 및 동아리 공연	풍물패 및 동아리 기획 공연	
	22:00 -	객실 이동 후 취침		객실
둘째 날/ 2.22 (월)	07:20 - 08:00	미사	교목처	에메랄드홀
	08:00 - 09:00	아침 식사		지정 식당
	09:00 - 11:00	학부별 행사	학장 환영사, 소속 교수 소개, 전공 소개, 학부 학생회 소개 등	학부별 행사장
	11:00 - 13:00	점심 식사		지정 식당
	13:00 - 16:00	학부별 행사	학부별 자체 기획 행사	학부별 행사장
	16:00 - 16:30	이동	행사장으로 이동	
	16:30 - 16:50	응원교육	응원단 공연 및 교육	다이아몬드홀
	16:50 - 19:00	저녁 식사		지정 식당
	19:00 - 21:40	대동제	학생회, 동아리, 응원단 기획 행사	야외행사장
	21:40 -	이동 후 취침		객실
셋째 날/ 2.23 (화)	07:20 - 08:00	미사	교목처	에메랄드홀
	08:00 - 10:30	아침 식사, 정리	소지품 지참, 식사 후 주차장 버스 승차	지정 식당 주차장
	10:30 -	학교로 이동	13:00 도착 예정	지정 버스

○ 서울대학교¹³⁾

서울대학교는 수시모집 합격자 대상의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1, 2차 오리엔테이션은 수시모집 합격자, 3차 오리엔테이션은 정시모집 합격자(글로벌인재 특별 전형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입생은 3회의 오리엔테이션 중 반드시 1회는 참석해야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서울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갖고, 단과대학을 넘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선배들과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함께 형성’하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는 대학본부 주관 오리엔테이션으로 사전신청 없이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부는 재학생 멘토와 함께 진행되기에 사전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참가등록도 필요하다(등록비 20,000원, 당일 현장접수).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아래의 <표16>과 같다.

<표16> 서울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순서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부	09:10-09:30	등록	문화관 대강당	신입생 누구나 참석가능
	09:30-11:00	본부주관 OT -교과 배우기 및 축하 -홍보동영상 -인사말 -교무, 수업, 학사, 학생활동, 장학, 복지 안내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인권,성평등 교육 및 안내 -안내사항 공지		
2부	11:00-12:30	분반이동 및 멘토와의 시간	분반 강의실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여가능 1차 : 720명 2차 : 720명 선착순
	12:30-13:20	점심식사	분반 강의실 (도시락)	
	13:20-16:00	서울대인 선포식 미션투어 및 팀파워프로그램	학내기관	
	16:00-17:00	연정한마당	문화관 대강당	

13) 서울대학교

<http://www.snu.ac.kr/press-releases?bm=v&bbsidx=122612>

○ 서울시립대학교¹⁴⁾

서울시립대학교는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신입생 수련회 및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입생 수련회 프로그램은 <표17>과 같다.

<표17>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수련회 프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7:00-08:00		조식	조식
08:00-09:00	집결		
09:00-10:00	대학생활 안내 (학생처 주관)	단과대학(학부,과) 프로그램Ⅱ	체크아웃 준비
10:00-11:00			중앙 돔(컨벤션A) 집결
11:00-12:00	해오름제 (입소식)	중식	이동
12:00-13:00			
13:00-14:00	중식 (교내식당 이용)	단과대학(학부,과) 프로그램Ⅲ	도착 후 해산
14:00-15:00	행사 간 안전 준칙 안내		
15:00-16:00	이동(도착 후 체크 인)		
16:00-17:00			
17:00-18:00	석식	석식	
18:00-19:00			
19:00-20:00	단과대학(학부,과) 프로그램 I	총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20:00-21:00			
21:00-22:00			
22:00-23:00			
23:00-24:00	취침 (1일차 전면 무알콜)	신입생 환영식 (익일 02:00까지)	

서울시립대학교는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미리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입학 후에는 신입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 및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인 ‘궁금한 게 많은 신입생, 당신을 위한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는 1박 2일 동안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예정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문 초청 강연, 학교 탐방 및 조별 활동, 팀 빌딩 프로그램, 멘토링 박람회, 대학생활 로드맵 세우기, 수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uos.ac.kr/korNotice/view.do>

○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는 총학생회 주관의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본부 주관의 오리엔테이션이 함께 진행되는데, 1, 2차로 나뉘어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다(참가비 38,000 원). 1박 2일 행사 중에서 하루는 공통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데, 신입생들에게 서울여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입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오리엔테이션의 첫 날과 2차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날은 총학생회 주관의 새내기 새로배움터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18>과 같다.

<표18> 서울여대 신입생 사전교육 및 새내기 새로배움터 프로그램

	2월 22일(월)			
2차 새내기 새로배움터 : 자연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아트앤디자인 스쿨, 자율전공학부	2월 23일(화)	08:30 ~ 09:00	홍보동영상 및 출석체크	1차 새내기 새로배움터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경영)
		09:00 ~ 09:05	개회사	
		09:05 ~ 09:15	환영사	
		09:15 ~ 09:45	ACE SWU 토크쇼	
		09:45 ~ 10:00	슈먼인 캠퍼스 투어(동영상)	
		10:00 ~ 10:30	수강신청 및 학사안내	
		10:30 ~ 11:00	교양교육과정 안내	
		11:00 ~ 11:10	SWELL&ICT 안내	
		11:10 ~ 11:20	학생증 발급 안내	
		11:20 ~ 12:00	특강Ⅰ : 활기찬 대학생활	
		12:00 ~ 13:00	특강Ⅱ : 성폭력 예방교육	
		13:00 ~ 16:00	점심식사 및 학과 소개	
	2월 24일(수)			

○ 성균관대학교¹⁵⁾

성균관대학교는 계열별, 단과대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앞으로의 대학생활 및 학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달라지는 교육환경 적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re-College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소계열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9>와 같다.

<표19> 성균관대학교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12:00~13:00	LC별 등록	프레시맨 가이드(FG)	자연과학 캠퍼스 대강당 및 강의실
13:00~13:05	행사 안내	성균멘토	
13:05~13:20	PRECOLLEGE 안내/학부대학 소개	성균멘토	
13:20~13:40	학부대학 LC활동 동영상 소개	2015 LC활동 최우수(인사/자과캠)	
13:40~14:00	대학생활 안내 동영상 소개	프레시맨 가이드(FG)	
14:00~14:50	축하공연/응원가 배우기	킹고응원단	
14:50~15:10	LC별 강의실 이동	프레시맨 가이드(FG)	
15:10~16:50	-학습공동체 시가 : 커뮤니티빌딩 자기소개(15:00-16:00) 학교 및 학교 주변 소개(16:00-16:20) OX퀴즈게임(16:20-16:40) 선배와의 Q&A(16:40-17:00)	성균멘토, 프레시맨 가이드(FG)	
17:30	과제정리 및 귀가		

15) 성균관대학교

<http://ibook.skku.edu/Viewer/7YAPUQKS81RZ>

o 숙명여자대학교¹⁶⁾

숙명여자대학교는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내 삶의 당당한 새 이름 숙명인’을 주제로 입학식 및 숙명가족 환영회를 개최하고 축하공연을 통해 숙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단합을 다지고 있다. 그 이후 단과대학별로 오리엔테이션(1박 2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20>과 같다.

<표20> 숙명여대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순서	주제	내용
1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숙명여자대학교 홍보영상 교가배우기
2부	입학식	개회 교무위원, 보직교원 입장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신입생 선서 장학금 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이사장 치사 올해의 숙명 가족 교표달기 교가제창 폐회
3부	축하행사	총동문회장 인사 축하공연 광고/폐회

16) 숙명여자대학교

<http://www.sookmyung.ac.kr/app/smnews/view.jsp?cmsCd=CM0249&ntNo=993>

또한 숙명여자대학교는 수시 등록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예비대학인 ‘불꽃’ 프로그램을 1,2차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예비대학 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숙명여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자신의 비전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에서 기숙사를 활용하여 2박 3일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21>과 같다.

<표21> 숙명여대 예비대학 ‘불꽃’ 프로그램

일정(2회)	내용
1일차 1월 12일(화)/ 1월 27일(수)	입학식 리더십교양교육원장의 특강 학교 캠퍼스 투어 (홍보대사 앰배서더) 리더십 워크숍 (1차 멘토 : 폴라리스, 2차 멘토 : ABLE)
2일차 1월 13일(수)/ 1월 28일(목)	동문특강 (1차 : 정미선 아나운서, 2차 : 이금희 아나운서) 문화예술체험 조별활동 발표 수료식

○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환영 인사와 대학 소개, 졸업생 초청 특강 및 초청공연, 단과대학 및 학과별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내용은 아래의 <표22>와 같다.

<표22> 순천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시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9:00 ~ 09:50	50분	집결 및 입장(광장 및 체육관)	각 학과
10:00 ~ 10:10	10분	•홍보영상 상영	기획평가과
10:10 ~ 10:30	20분	•개회식 - 국민의례 - 총장 환영사 - 단과대학장 및 보직교수 소개	학생지원과
10:30 ~ 10:45	15분	•총학생회장 환영사 •학생대표자 소개	총학생회
10:45 ~ 11:10	25분	•대학소개 - 우리 대학 순천대의 위상 (홍보대사)	홍보대사
11:10 ~ 11:40	30분	•졸업생 초청 특강 - Keep going	학생지원과
11:45 ~ 12:35	50분	초청공연 (3개팀)	학생지원과
12:35 ~ 12:50	15분	퇴장 및 이동	각 학과
13:00 ~ 14:20	80분	•중식(구내 식당) 원활한 배식을 위해 워킹 투어와 연동 실시함 A조 (인예대, 공대, 사범대) B조 (생명대, 사과대, 약대)	1식당 : 교직원 식당 2식당 : 푸드코트 3식당 : BTL 식당 학생자치기구(워킹투어)

		※ 참석인원에 따라 식당 배정 변경 가능	
14:20 ~ 14:30	10분	•각 단과대학 지정 장소 집결	
14:30 ~ 15:30	60분	•단과대학별 자체 프로그램 진행 • 단과대학장 환영사 • 학생회 소개 • 교육과정 특징, 졸업 후 진로 등 소개 • 해당 단과대학 출신 동문 초청 특강 • 신입생들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내용 • 기타 :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과대학
15:30 ~ 15:50	20분	•각 학과 지정장소 이동 및 집결	
16:00 ~ 17:50	110분	• 학부(과)별 자체 프로그램 진행 ※ 학부(과)별 공통 사항 - 학과별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학부(과) 교수 소개 • 학생회 소개 • 세부적인 교육과정 안내 • 수강신청 방법 및 학점취득 설명 • 학부(과) 취업진로 안내 • 대학생활 비전 특강 (학과교수, 동문, 명사)	학부(과)
17:50 ~ 18:00	10분	귀가	

○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소개 및 홍보, 총학생회 공연, 단과대학 및 학과별 프로그램,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검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23>과 같다.

또한 순천향대학교는 수시 합격자 중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500명) 2주 동안 순천향 예비대학 ‘SCH Pre-Academy’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학습 프로그램(영어, 수학 중에서 선택 1과목), 특별학습 프로그램(사고와 표현, 소프트웨어 중에서 선택 1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독서, 영화, 스포츠 등 자율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3>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프로그램

날짜	시간		세부일정		장소
2/24 (수)	~09:00	-	해당 강의실 집결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학과 집결장소 안내)		강의실
	09:00~10:00	60"	인원파악 신입생대학생활적응검사 소개		강의실
	10:00~12:00	120"	학과 프로그램	단과대학 프로그램 취업지원관 진로탐색	강의실(학과)
			인문대, 글로벌경영대, 자연과학대, 의료과학대, 의과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강당(단과대)
	12:00~13:30	90"	점심식사		지정식당
	13:30~15:30	120"	학과 프로그램	-단과대학 프로그램	강의실(학과)

				-취업지원관 진로탐색	
			사회과학대, 공과대	인문대, 글로벌경영대, 자연과학대, 의료과학대, 의과대	강당(단과대)
	15:30~16:30	60"	체육관 집결		
	16:30~17:30	10"	응답하라 2016 (총학생회 공연)	-학교홍보영상	체육관
		40"		-대학 및 학생회 소개	
		10"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7:30~19:00	30"			
		30"			
		30"			
	19:00~20:30	90"	저녁식사		식당
	20:30~21:30	60"	신입생대학생활적응검사		기숙사
2/25 (목)	07:00~09:00	120"	기상 및 인원점검		기숙사
			아침식사		지정식당
	09:00~10:00	150"	무한상상 강연관, 홍보관, 체험관		지정장소
	10:00~12:00	90"	점심식사		식당
	12:00~13:30	60"	체육관 집결		체육관
	13:30~15:30	60"	입학식		체육관
	15:00~	-	귀가		

○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식 이후에 영어 시험을 실시하고 각 전공별로 해당 필수 과목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 후에는 각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24>와 같다.

<표24> 아주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일	정보통신 신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금융 공학과	의과 대학	간호 대학	경영 대학	인문 대학	사회과 학대학
11:00	입학식(10:00~12:10)								
12:00									
13:00	점심시간(12:10~13:30)								
14:00	영어시험 입실(13:30~14:00)								
15:00	영어시험(14:00~16:00)								
16:00									
17:00	수학시험(16:00~17:00)					집결: OT장소이동(16:00~16:20)			
						OT(16:20~17:00)			
18:00	집결, OT장소로 이동(17:00~17:40)			수강신청 (17:00~17:40) 후 OT장소 이동		수강신청 장소로 이동 (17:00~17:40)			
19:00	OT(17:40~18:40)			OT(17:40~18:40)		수강신청(17:40~18:10)			
2일	정보통신 대학	자연과학 대학	공과대학	금융공 학과	의과 대학	간호 대학	경영 대학	인문 대학	사회 과학 대학
10:00	생물학 시험(9:30~10:20)				생물학 시험(9:30~10:20)				
11:00	화학 시험(10:30~11:20)				화학 시험(10:30~11:20)				
12:00	물리학 시험(11:30~12:20)				물리학 시험(11 :30~12: 20)				
13:00	수강신청 장소 이동 (12:20~13:00)		점심시간 (12:30~ 13:30)						
	수강신청(13:00~13:30)								
14:00	점심시간 (13:30~14:30)		OT장소로 이동(13:30 ~14:00)						
			오리엔테이 션(14:00~ 15:00)						
15:00			수강신청 장소이동						
16:00			수강신청						

또한 아주대학교는 기초수학, 물리학, 물리학1, 컴퓨터 과학입문의 총 4과목을 예비대학 과목으로 개설하여 4주 동안 예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표25>와 같다.

<표25> 아주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과목명		반	학점	수업시간	수업장소
학점당 10만원(과목 당 30만원)	기초수학	1	3	월~금 11시~13시	성호관 104호
	물리학	1	3	월~금 9시~11시	
	물리학1	1	3	월~금 13시~15시	
	컴퓨터과학 입문	1	3	사이버강의(오프라인강의: 1월 매주 월요일 15시~16시)	성호관 303호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총학생회 주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의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신입생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26>과 같다.

<표26> 연세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관	일정	내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학생회	2/15(월)~2/17(수)	총학생회 오리엔테이션, 응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학생회	2/13(토)~2/19(금) 중 2~4일 진행	단과대 학생회 주관 하에 각종 강연 및 선배, 교수님과의 만남 프로그램 등 진행
신입생 수련회 (새내기새로배움터)	단과대학 /단과대학 학생회		

또한 연세대학교는 수시 합격자 중 600명을 대상으로 연세 예비대학(Bridge to Yonsei, Outreach to the World)을 3박 4일 동안 인천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 (참가비 50,000원)하였다. 이러한 예비대학을 통해 미래 지도자로서의 사명의식을 함양하고, 연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유대감을 경험하도록 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대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학 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대학교육과 전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세 예비대학은 '연세 비전을 공유하고, 세상 및 학문과 소통하며, 대학생활을 준비하면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¹⁷⁾

이화여자대학교는 전체 신입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밝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입생 환영행사 'Welcome to EWhA'를 진행하고 있다. 'Welcome to EWhA'는 학교 소개 및 대학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화 다우리, 국내외 사회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탐사 I, II 프로그램 등 주요 학생활동)을 소개하는데, 이를 졸업생과 재학생, 신입생들 간의 즐겁고 편한 수다, 토크 형식으로 친근감 있게 구성되고 있다.

○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3기에 걸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1기는(2월 15일) 간호대, 사회대, 환생대, 인문대, 자연대, 수의대, 의대, 치대가 포함되고, 2기(2월 16일)는 농생대, 사범대, 상대, 생활대, 예술대, 공공인재학부, 지미카터국제학부가 해당되었다. 3기는(2월17일)에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은 학교 소개 및 홍보, 신입생 특강, 동아리 공연, 캠퍼스 투어, 행정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7>과 같다.

<표27> 전북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시간		내 용	비 고
09:00		•삼성문화회관 집결 및 식당 내부질서 유지	
09:00 ~ 09:20	20분	•전북대 홍보영상 상영 •방문판매 피해 예방 동영상 상영(한국소비자원)	
09:20 ~ 10:00	40분	•특 강<신입생을 위한 연구실 안전교육>	
10:00 ~ 12:00	120분	•건지산을 활용한 "워킹캠퍼스 투어" •『덩더쿵』동아리 사물놀이 공연	- 학과별 멘토 인솔 - 건지산 오송제 공연장
12:00 ~ 13:00	60분	•점심 식사(제2학생회관, 예지원, 후생관)	- 식사장소 대학(학과)별 지정
13:00 ~ 13:30	30분	•동아리 공연	- 춤 동아리 『나래짓』 - 응원 동아리 『레오파드』

17)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ewha.ac.kr/mbs/ewhakr/subview.jsp?id=ewhakr_060101040000

13:30 ~ 13:40	10분	•보직자 입장 및 개회식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13:40 ~ 13:45	5분	•총장 환영사	
13:45 ~ 13:50	5분	•주요 보직자 소개	
13:50 ~ 13:55	5분	•총학생회장 환영사	
13:55 ~ 14:35	40분	•특 강<성희롱·성폭력 없는 대학캠퍼스>	
14:35 ~ 15:25	50분	•특 강 <세계로 향하는 전대인의 외국어 학습능력 배양>	- 언어교육부 소속 (주)바른교육 대표
15:25 ~ 15:35	10분	•육군 간부(장교/부사관) 모집 안내	- 학군단 및 35사단
15:35 ~ 15:45	10분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15:45 ~ 16:00	15분	•휴 식	
16:00 ~ 16:50	50분	•총장 특강<RC/OC를 통한 모험역량 강화>	
16:50 ~ 17:00	10분	•학교적응 주의사항 안내	
17:00		•귀 가<단, 일부 대학 및 학과 진단평가 실시>	

또한 전북대학교는 해당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등과 같은 기초 과목 강의를 개설하여 3주 동안 예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28>과 같다.

<표28> 전북대학교 예비대학생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구분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담당 교수	강의실	담당 교수	강의실	담당 교수	강의실	담당 교수	강의실
오 전	09:00 ~ 12:00	은호윤	인문대학 1호관 403호			윤원주	자연과학 대학 5호관 213호		
오 후	14:00 ~ 17:00			소재업	자연과학 대학 본관 328호			김병임	자연과학 대학 1호관 112호

o 조선대학교¹⁸⁾

조선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CU ST★AR'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단과대학별로 4일 동안 진행하고 있다. 전공 및 단과대학에 따라 대학생활 안내, 진로트랙 및 교과과정 안내, 학생 특강, 진로 특강, 멘토링, 양성평등교육, 수강신청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표29>와 같다.

<표29> 조선대학교 'CU ST★AR' 프로그램

그룹	행사일	A (1,075명) 공과대학		B (1,015명)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외국어대학		C (996명) 자연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기초교육대학		D (1,001명) 경상대학, 체육대학 전자정보공과대학	
		2016.2.18. (목) 해오름관	2016.2.19. (금) 학부별 자체장소	2016.2.18. (목) 학부별 자체장소	2016.2.19. (금) 해오름관	2016.2.22 (월) 해오름관	2016.2.23 (화) 학부별 자체장소	2016.2.22 (월) 학부별 자체장소	2016.2.23 (화) 해오름관
2	10:00~10:50	대학생활 안내 (학생복지팀)	진로트랙 및 교과과정 소개 (각 학부 (과)장)	진로트랙 및 교과과정 소개 (각 학부 (과)장)	대학생활 안내 (학생복지팀)	대학생활 안내 (학생복지팀)	진로트랙 및 교과과정 소개 (각 학부 (과)장)	진로트랙 및 교과과정 소개 (각 학부 (과)장)	대학생활 안내 (학생복지팀)
3	11:00~11:50	인성특강- 함께형 인재 (기초교육 대학)	특강-바람 직한 대학 생활 (각 학부 (과)장)	특강-바람 직한 대학 생활 (각 학부 (과)장)	인성특강- 함께형 인재 (기초교육 대학)	인성특강- 함께형 인재 (기초교육 대학)	특강-바람 직한 대학 생활 (각 학부 (과)장)	특강-바람 직한 대학 생활 (각 학부 (과)장)	인성특강- 함께형 인재 (기초교육 대학)
4	12:00~12:50	성공적인 대학생활 과 미래 설계 (기초교육 대학)	멘토링- 학부(과) 재학선배 (각 학부 (과))	멘토링- 학부(과) 재학선배 (각 학부 (과))	성공적인 대학생활 과 미래 설계 (기초교육 대학)	성공적인 대학생활 과 미래 설계 (기초교육 대학)	멘토링- 학부(과) 재학선배 (각 학부 (과))	멘토링- 학부(과) 재학선배 (각 학부 (과))	성공적인 대학생활 과 미래 설계 (기초교육 대학)

18) 조선대학교

<http://www2.chosun.ac.kr/mbs/chosun/jsp/board/view.jsp?spage=17&boardId=25989&boardSeq=42328582&mcategoryId=&id=&column=&search>

5	13:00~13:50	점심 (입학사정관팀)	점심 (각 단과대학담당)	점심 (각 단과대학담당)	점심 (입학사정관팀)	점심 (입학사정관팀)	점심 (각 단과대학담당)	점심 (각 단과대학담당)	점심 (입학사정관팀)
6	14:00~14:50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7	15:00~15:50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진로특강-커리어로드맵 구축 (취업경력)
8	16:00~16:50	TOEIC 가이드 (언어교육원)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TOEIC 가이드 (언어교육원)	TOEIC 가이드 (언어교육원)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TOEIC 가이드 (언어교육원)
9	17:00~17:50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센터)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센터)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학부(과)수강신청 (각 학부(과))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센터)

또한 조선대학교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예비대학(Winter Cam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도록 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통해 전공 및 교양 수업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비대학은 15일간 진행되며, 영어, 기초수학, 기초과학(물리/화학) 과목이 개설된다. 해당 학생은 오전 또는 오후 반을 선택한 후에, 과목을 선택하며, 오전과 오후에는 동일한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각 분반은 40명으로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수 기준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자에게는 입학 후 언어교육원 프로그램 강좌 무료 수강증이 제공된다. 또한 이수자에게는 문화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서 일정 마일리지 점수를 누적하여 해외 문화 탐방 및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예비대학 프로

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30>과 같다.

<표30> 조선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분반	시간	과목				
오전반	9:00 ~12:00	영어1(토익)	영어2(토익)	영어3(토익)	기초수학1	기초물리
	13:00 ~15:00	대학알기 프로그램(첫번째 주만 실시)				
오후반	10:00 ~12:00	대학알기 프로그램(첫번째 주만 실시)				
	13:00 ~16:00	영어4(토익)	영어5(토익)	기초수학2	기초수학3	기초화학

o 중앙대학교¹⁹⁾

중앙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로 교내행사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대학도 계열별로 운영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구체적인 예비대학 운영 내용은 <표31>과 같다.

<표31>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구분	내용		
일시	2011년 1월 25일(화) 오전 10~12시(제1부: 인문대학, 사범대학 신입생) 2011년 1월 25일(화) 오후 2시~4시(제2부: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내용	1부	1교시	(10시~10시50분): 대학생들의 설계와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사: 유권중 교수(철학과, 인문대학장)
		2교시	(11시~11시50분): 21세기 바람직한 인재상 연사: 송덕호 전무(두산 리더십 연구소장)
	2부	1교시	(2시~2시50분): 신글로벌 시대와 한국 연사: 장훈교수(정치국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
		2교시	(3시~3시50분): 21세기 바람직한 인재상 연사: 송덕호 전무(두산리더십 연구소장)

19) 중앙대학교

http://news.cau.ac.kr/bbs/news_view.php?idx=1460

o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는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의 예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 소개와 수강신청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표32>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표32> 창원대학교 신(편)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대 학	구 분	대학 및 학과별 예비대학			
		대학별 일정		학과별 일정	
		프로그램(오전·오후 구분)	장 소	학과	프로그램
공과	없음 (필수교육은 개강 후 별도 실시예정)		산업조선해양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3216, 53416
			토목환경화공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2401,52402
			건축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4422
			컴퓨터공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5516
			정보통신공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1312
			메카융합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85102 (19:00~)
메카트로닉스	없음 (필수교육은 개강 후 별도 실시예정)		기계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사립관강당
			전기전자제어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국제회의장, 55114
			신소재	학과소개 수강신청지도 등	52201

○ 충남대학교²⁰⁾

충남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 소개, 수강신청 안내, 영어능력진단 평가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한동대학교²¹⁾

한동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스트(HANST, HANdong Spiritual Training)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의 전통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학교 생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천로역정, 러브 피스트(Love Feast), 세족식, 한동 명예 서약식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봉사 및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을 배우도록 하였다.

한동대학교는 또한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전 특강, 성격 및 흥미 유형 기반의 진로 탐색, 강점과 가치 자아 탐색 프로그램, 사명선언문 작성, 10대 과제 조별 프로젝트 활동, 졸업생과의 만남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대학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1차 비전 설계 프로그램, 2차 ICT 융합 기초 과정, 3차 기초수학 등 총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차 비전 설계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4박 5일 동안, 2차 ICT 융합 기초 과정은 교내에서 3박 4일 동안, 3차 기초수학 과정은 3박 4일동안 교내에서 캠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한림대학교²²⁾

한림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모의토익(모의 토익 성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 4개의 교육과정 운영- 필수과목), MMPI 검사, 수강신청, 대학생활 안내, 학사제도 및 학습법 소개 등’의 내용을 운영하고 있다.

20) 충남대학교

http://plus.cnu.ac.kr/_prog/_board/?mode=V&no=2190701&code=sub07_0702&site_dvs_cd=kr&menu_dvs_cd=0702&skey=title&sval=신입생&site_dvs=&ntt_tag=&GotoPage=2

21) 한동대학교

<https://admissions.handong.edu/camplife/fresh/hanst/>

22) 한림대학교

<http://www.hallym.ac.kr/media/announcement/view.php?strLink=19:52290>

또한 한림대학교는 예비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대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영어 및 수학 과목을 3주 동안의 캠프를 통해 선행 학습하고, 대학수업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받고 대학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포함되어 조기졸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o 한양대학교²³⁾

한양대학교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표33>과 같이 2주간 ‘미리 가본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인성 프로그램은 1일 2시간씩 5일 동안 진행하는데, 1강좌내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VMS 봉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33> 한양대학교 ‘미리 가 본 대학’ 프로그램

영역	담당교수	강좌명	신청인원	일시	장소	비고
창의 (융합)	표정훈	정의(正意)란 무엇인가	20	2016.1.11(월)~15(금) 13:00~15:00	제2공학관 312호	
	전은진	고전에서 청춘을 읽다	25	2016.1.18(월)~22(금) 13:00~15:00	제2공학관 305호	
	김민경	화학의 변명	30	2016.1.11(월)~15(금) 10:00~12:00	제2공학과 405호	
나눔 (봉사)	김진수	국가발전의 원리	20	2016.1.11(월)~15(금) 10:00~12:00	제2공학과 312호	
	성수 종합 사회복지 관	자원봉사의 첫단추	30	2016.1.20(수) 13:00~17:00	성수종합 사회복지관 6층 생각나무	VMS 봉사 기간 인정
인성	서신혜	‘몽구’로 키우는 인성과 한자능력	20	2016.1.11(월)~15(금) 10:00~12:00	제2공학과 305호	

23) 한양대학교

<http://gs.hanyang.ac.kr/indexE.html>

2) 해외대학 사례 분석

외국대학 사례로 미국의 사립대학 6개(여대 2개 포함), 주립대학 4개로 총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국 대학의 경우 신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의 오리엔테이션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신입생들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교통편부터 필요한 서류, 예방접종, 관련 앱 다운 등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사후 오리엔테이션(Post-Orientation)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입학 전에 신입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은 숙박과 식사가 포함되어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 기초 과목에 대한 배치고사를 시행하여 모든 신입생들이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각 대학의 전통과 특징을 반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하버드 대학의 'Fall Clean-Up', 웨슬리 대학의 'Wellesley Plus' 등과 같이 다양한 체험 및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미국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요한 행사로 인식하여 참석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프로그램 중에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및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도서관 활용방법, 학술적 목적의 인터넷 검색 등 효과적인 공부 방법과 학사관리와 시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짜임새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²⁴⁾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4405&cid=43938&categoryId=43954>

o 텍사스 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²⁵⁾

텍사스 대학은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New student Services' 사이트인 (<https://orientation.utexas.edu>)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사회에서 신입생들이 정체성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이나 단과대학에 따라 운영되며, 신입생은 6~7월 또는 8월 오리엔테이션 중 1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박 3일(6~7월에 진행, 참가비 277불) 동안 이루어지며 '체크인, 단대별 모임, 학업 상담, 캠퍼스 이용 안내 및 캠퍼스 투어 포함, 수학 평가, 이브닝 소셜 액티비티, 학생증 발급, EID 업그레이드(재정 지원 관련), 수강신청, 체크아웃'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8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가능하며(참가비 175불), 이 외에도 썸머 스쿨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참가비 50불), 1월에는 봄 학기 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참가비 50불). 그 밖에도 편입생, 부모님과 가족,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텍사스 대학은 사전 오리엔테이션(Pre-Orientation)과 사후 오리엔테이션(Post-Orientation)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과, 예방접종, 관련 서류 준비, 평가 및 배치 시험 준비, 수강신청 준비, 짐 싸기, 대학 오리엔테이션 앱 다운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후 오리엔테이션(Post-Orientation)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록금 납입, 최종 성적 증명서 제출, 등록정보시트(RIS)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알코올과 약물에 관한 온라인 교육인 Alcohol Edu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러한 강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학기 성적의 온라인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숙사 생활 준비,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 허가, 대중 교통 숙지, HornsLink 활용, 의료서비스 이해, 캠퍼스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수업 확인, 교재 구입 경로 확인, 환영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하나씩 준비하면서 차질 없이 학기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텍사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의 [그림3]과 같다.

25)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s://orientation.utexas.edu/>

Freshman Orientation 2016 Schedule At-a-Glance



Programs in orange are required for all students

Day 1	
7:30 a.m.	Check-In Jester Center (BS)
7:30 a.m. 8 a.m. 8:30 a.m.	Campus Tours
10-11 a.m.	Roll Call #1 / Meeting with Orientation Advisor
11 a.m. - noon	Longhorn State of Mind (Opening Session)
Noon-12:45 p.m.	Lunch
1-3 p.m.	College Meeting #1
3-5 p.m.	UT Math Assessment SAT Subject Test in Math
3-5 p.m.	College of Liberal Arts 360 Connections Meetings
3-5 p.m.	Plan II Meeting
3-5 p.m.	College-Based Activities Architecture, Social Work, Nursing, Fine Arts, Engineering Honors
3-5 p.m.	Longhorn Lounge
3-4 p.m.	Obtain or upgrade your student ID card- EID Mobile ID Center, Jester Center (BS) West
4-6:30 p.m.	Student Organization and Resources Fair
5-6:15 p.m.	Texas BBQ
6:30-4 p.m.	360 Connections Meetings Required for students in participating 360 Connections
6:30-4 p.m.	Longhorn Lounge Social Activities
8:15-9 p.m.	Wing Meeting #1
9-10:30 p.m.	"Longhorns Take Care of Each Other" (Campus Safety Program)
10:30-11:30 p.m.	"Perks & Tea" (Traditions Program)
10:30 p.m. - 1 a.m.	Late Night Social Activities
1:30 a.m.	Students to be in Jester West residence hall

Day 2	
7-8 a.m.	Breakfast
8-8:15 a.m.	Roll Call #2
8 a.m. - 5 p.m.	Obtain or upgrade your student ID card- EID ID Center, Flawn Academic Center (BAC) First Floor
8:30-10 a.m.	College Meeting #2
8:30 a.m. - noon	Academic Advising and Peer Advising
10 a.m. - 2 p.m.	Texas Success Initiative (TSI) Assessment
10 a.m. - 5 p.m.	Student Veteran Services Open House
10:30-11:30 a.m.	UTransform: Session 1 of 4
Noon-1 p.m.	Lunch
Noon-1 p.m.	McCombs Leadership Coaching Session
1-5 p.m.	Academic Advising and Peer Advising
1-5 p.m.	Obtain or upgrade your student ID card- EID Mobile ID Center, Jester Center (BS) West
2-2:30 p.m. 2:30-3 p.m.	Freshman Research Initiative (FRI) Info Sessions
3-4 p.m.	UTransform: Session 2 of 4
3-5 p.m.	Longhorn Lounge
3-5 p.m.	Language Placement Exams
4-5 p.m.	Dodgeball
4-5 p.m. 5-6 p.m.	Discover UT: Sessions 3 and 4
4-5-5 p.m.	San Jacinto Residence Hall Tour
5-6 p.m.	UTransform: Session 3 of 4
6-7:30 p.m.	Dinner with your wing
7:30-8:30 p.m.	Wing Meeting #2
8-45-9-45 p.m.	"Through Your Eyes"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10-11 p.m.	"Longhorn Live" (Comedy Show)
10 p.m. - 1 a.m.	Advising and Registration Q&A (with Orientation Advisors)
10 p.m. - 1:30 a.m.	Late Night Social Activities
1:30 a.m.	Students to be in Jester West residence hall

Day 3	
7-7:45 a.m.	Morning Run and Workout
7-9 a.m.	Breakfast
8 a.m. - 5 p.m.	Obtain or upgrade your student ID card- EID ID Center, Flawn Academic Center (BAC) First Floor
8-11 a.m.	Academic Advising and Peer Advising
8:30-10:30 a.m.	UT Math Assessment SAT Subject Test in Math
9-10 a.m. 10-11 a.m.	Discover UT: Sessions 3 and 4
10 a.m. 10:30 a.m. 11 a.m.	Campus Tours
10:30 a.m. - noon	Immigration Briefing and Check-In Session (IBC) Requir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11 a.m. - noon	UTransform: Session 4 of 4
Noon-1 p.m.	Lunch
Noon-1 p.m.	University Leadership Network (ULN) Meeting (lunch provided)
Noon-1 p.m.	Terry and Gates Millennium Scholars Meeting (lunch provided)
1-1:30 p.m.	Travel to designated registration locations
1:30-2 p.m.	Final preparation for course registration
2-3 p.m.	Course Registration
2-3:30 p.m.	Check-Out

[그림3] 텍사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o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은 신입생을 위한 'Freshman Dean's Office' 사이트(<http://fdo.fas.harvard.edu>)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개학일(Opening Days)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숙박과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오리엔테이션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1개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첫째, Fall Clean-Up(FCU)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 기숙사와 선배들의 숙소를 대청소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대학 생활에 대한 팁은 물론 하버드와 보스턴 시내의 지리도 익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First-Year Arts Program(FAP)로 드라마, 음악, 무대 디자인, 스튜디오 아트, 시각 디자인/영화, 댄스, 창의적인 글쓰기 등에 관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First-Year International Program(FIP)로 4일간 진행되며, 이는 외국인 학생과 해외에서 공부하다 온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FIP 멘토들이 진행하게 된다. 넷째, First-Year Outdoor Program(FOP)으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이는 2~3명의 리더와 7~10명의 신입생이 팀을 이루어 6일 동안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신고식을 하게 된다. 다섯째, First-Year Urban Program(FUP)으로 하버드와 보스턴 지역의 사회봉사 및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사회적 책임과 행동, 변화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학일(Opening Days)에는 커뮤니티 대화(Community Conversation)와 교수들과의 대화(Faculty Conversation)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Community Conversation의 경우 신입생들이 미리 정해진 책을 읽고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성과 커뮤니티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보면서 다른 동료 학생들의 다양성과 관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공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도전적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대화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culty Conversations에서 신입생들은 지정된 책의 일부를 읽고 세미나 형식의 소규모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교수진들은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하여 대화를 촉진해 주는 것이다.

o 뉴욕 대학(New York University)²⁶⁾

뉴욕 대학도 신입생들이 온라인 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즉 오리엔테이션 포탈(<http://steinhardt.nyu.edu/orientation/undergraduate>)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담 교수(Academic advisor), 선배, 동료들에 대해 알고, 학교의 역사와 미션, 가치를 이해하며, 전공과 학위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첫 학기 일정 등록 및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리더를 통해 학교생활과 등록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은 교수 및 오리엔테이션 리더와의 만남, 학장과의 만남, 다양한 워크숍 및 활동, 대학과 지역사회 후원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입생 세미나(New Student Seminar, SAHS-UE 1)를 통해 대학생으로서 역할을 탐색하고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뉴욕 대학은 각 단과대학별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과학 대학(The College of Arts & Science, CAS)의 경우에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4일 동안 캠퍼스 투어, 환영인사, 서비스 안내, 국제학생 모임, 배치고사, 신입생 토론 대회, 학생회 이벤트, 학업성취 프로그램(Academic Achievement Program, AAP) 등의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신입생들은 신입생 세미나에 등록해야 하며, 다양한 주제에 관한 코호트 미팅(Cohort Meeting)에도 참여하여 상담 교수와 College Leader(상급생 멘토)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였다. 갈라틴 대학(자율전공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신입생 학제 세미나(First-Year Interdisciplinary Seminar), 신입생 글쓰기 세미나(First-Year Writing Seminar), 신입생 연구 세미나(First-Year Research Seminar)의 3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신입생 프로그램(First-Year Program)를 이수해야 한다. 특히 신입생 학제 세미나는 대학 교육의 목표 및 방법, 철학을 소개하고 학제와 개별화된 접근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26) New York University

<http://www.nyu.edu/students/undergraduates/getting-started-at-nyu/school-orientation-registration.html>

<http://steinhardt.nyu.edu/orientation/undergraduate>

o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²⁷⁾

미시건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의 간극을 해소하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http://www.onsp.umich.edu/>라는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가을, 겨울, 봄, 여름학기), 편입생, 외국인 학생, 부모 및 가족 등과 같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을 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유료로 진행되며(등록 보증금 300불), 여름에 3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입생들은 선착순으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배치고사가 시행되고, 그룹 및 개인 학업상담, 수강신청,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이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수학, 알고리즘 사고(Algorithmic Thinking)(공대생만 해당), 스페인어, 글쓰기 시험을 치러야 하며, 배치고사 결과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사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와의 상담 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연락처, 예방접종과 보험, 등록 관련 서류 준비 등과 같은 안내를 포함하는 사후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Post-orientation Checklist)도 제공하고 있다.

o 웨슬리 칼리지(Wellesley College/여대)²⁸⁾

웨슬리 대학은 미국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여자대학으로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학 소개 및 대학의 역사와 전통, 가치를 공유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만남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면서 학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웨슬리 플러스(Wellesley Plus)는 신입생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27) 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onsp.umich.edu/orientation/incoming-freshman>

28) Wellesley College

<http://www.wellesley.edu/esp/entering/orientation>

프로그램은 학문 역량 강화와 특별 워크숍, 인턴십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Enhanced Academic Opportunities)은 가을 학기에 지정된 2개의 세미나 중 1개를 선택해 참여 가능하며(2016년 가을학기의 경우, ‘옳고 그름: 윤리란 무엇인가(Right and Wrong: Ethics in Action)’, ‘독서 사회학: 문학과 미디어가 소셜 라이프에 주는 교훈(Reading Sociology: What Literature and Media Teach Us About Social Life) 중 선택1), 성공 세미나(Success Seminar)는 성공적인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기술에 관한 수업 시리즈 중 하나로서 목표 설정, 교수학습 스타일, 시간 관리, 웨슬리의 전자자료(electronic resources) 활용법, 독서 및 학습 전략, 교수들과의 관계, 시험 대비 전략 등을 포함(학점 미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입생들은 봄 학기에 글쓰기 수업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웨슬리 대학의 특별 워크숍과 인턴십은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외 활동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 탐색 워크숍은 1일 과정으로 취업지원처와 공동으로 1월에 운영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직업 탐색, 인턴십, 동료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월에 2주간의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4명의 교수 중 1명, 멘토 2명, 튜터 1명(학업적 측면), 교수학습센터의 디렉터, 학장으로 구성된 상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과 상담 팀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o 스미스 대학(Smith College/여대)²⁹⁾

스미스 대학은 신입생과 학부모 대상의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리엔테이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신입생들은 참여를 원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그룹은 스포츠, 교육, 지역사회, 자아 찾기, 봉사,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신입생들은 여름 독서(Summer Reading)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 동안 그룹 토론 및 독서와 관련된 다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9) Smith College

<http://www.smith.edu/firstyear/orientation.php>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다양한 신입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은 각각 정해진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학업계획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 신입생들은 교수와 함께 특정 주제나 문제 등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들을 알아가고, 동료 학생들과의 친밀감과 우정, 교수 및 직원들과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강화하는 등 풍부하고 유익한 대학생활 장려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학업상담과 리더십 등과 같이 대학 생활만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유용한 다양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워크숍 또한 운영되고 있다.

o 플로리다 주립 대학(Florida State University/주립대)³⁰⁾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신입생들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등록(유료)이 가능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여름 학기, 가을 학기, 봄 학기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신입생과 60학점 이하 수료 편입생은 2박(2일) 프로그램, 60학점 이상 수료 편입생은 1일 프로그램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가족 대상의 오리엔테이션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첫 학년(First Year Abroad/FYA)이나 첫 학기(First Semester Abroad/FSA)를 해외 대학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IPre-Depart meeting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정책 및 절차, 학업 관련 상담, 수업 등록, 다양한 팁들과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본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 전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한다.

o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주립대)³¹⁾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새로운 캠퍼스에 익숙해지고, 다른 신입생들과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첫 학기 수업을 등록하는 방법, 대학의 비전과 전통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자

30) Florida State University

<https://dos.fsu.edu/nsfp/orientation/orientation-dates>

3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ttp://calso.berkeley.edu/c-first.html>

원, 문화 등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을 학기(참가비 295불)와 봄 학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의 오리엔테이션(참가비 275불)도 운영하고 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동안 진행되는 Makeup CalSO에 참여 가능하다. 오리엔테이션은 선배 멘토(CalSO Leader)와의 만남, 학습 관련 워크숍, 학습 전략 팁, 캠퍼스 투어,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 다양한 교류 행사, 개별 상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버클리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용은 [그림4]와 같다.

Sample CalSO agenda for first-year fall admits (subject to change) & FPF	
Day 1	
7:15AM	Check-in
8:30AM	Welcome Address
9:10AM	Meeting with CalSO Leader
10:20AM	Academic Workshops by College
Noon	Lunch
1:10PM	Academic Workshops by College or Program
3:25PM	Academic Success Tips
3:45PM	Registration Overview
4:15PM	Berkeley Basics
5PM	Dinner & Tour
7:15PM	First Year Experiences of CalSO Leaders
8PM	Bear Territory (Diversity Activities and Discussions)
9:30PM	Late Night Activities
Day 2	
7:30AM	Breakfast
8:30AM	Personal Academic Advising, Class Registration, Enrichment Workshops, Cal 1 Card, and Cal Student Central (FPF students will have a group "Meet Your Advisor" session.)
Noon	Meeting with CalSO Leader
12:30PM	Closing
1PM	End of Program

[그림4]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o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주립대)³²⁾

UCLA에서 가을 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박 3일로 진행되며(선착순/참가비 445불), 캠퍼스 소개, 교수진 및 학생 커뮤니티 안내, 전공 및 학업 관련 워크숍과 배치고사, 캠퍼스 투어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편입생, 외국인 학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신입생과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Children's Orientation)도 진행되고 있음이 특기할만하다.

오리엔테이션 전에는 Pre-Orientation Planner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필수사항으로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하며, 그 내용은 추후 학업에 관한 상담 자료로 활용된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전공 선택, 시간표 짜기, 졸업학점 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신청 및 등록 과정 안내와 캠퍼스 서비스에 관한 안내, 대학원 및 전문학교, 경력 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해당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전이나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수학, 외국어 등의 과목 배치고사를 응시해야 한다.

또한 Wilderness Welcomes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낭여행, 스노쿨링, 캠핑, 하이킹, 카야킹 등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 /주립대)³³⁾

버지니아 대학은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하여 웹사이트(<http://www.virginia.edu/orientation>)를 개설하여, 여름과 가을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가족 방문주간, 신입생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가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신입생들이 이사를 시작하는 주말부터 개강 첫 주까지 계속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증 발급 및 배부, 학교 소개, 각 단과대학별

32)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ttp://www.newstudents.ucla.edu/index.htm>

33) University of Virginia

<http://www.virginia.edu/orientation/>

소개 및 인사, 상호 교류를 위한 리셉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학업 상담, 배치고사, 기숙사 관련 활동, 동아리 홍보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버지니아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용은 <표34>와 같다.

<표34> 버지니아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Friday, August 19	
8:00 am-5:00 pm	Student IDs Prepared and Distributed Observatory Hill Dining Hall- First Floor Students who did not have their ID photos taken during Summer Orientation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mplete this important step.
8:00 am-8:00 pm	Dining Halls Open Observatory Hill and Runk Dining Hall
9:00 am – 4:00 pm	Move into Residence Halls First-Year Students: Check in with Resident Staff for information about mandatory meetings and welcome events.
9:00 am – 4:00 pm	Greeters Available Student volunteers will be available in the first-year residential areas to assist new students with their move · Sponsored by the University Programs Council
2:15 pm – 3:00 pm	Beat the Heat with the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Darden Court (Rain site: Arcade · A Wing) Enjoy cookies, lemonade and a break from moving in.
3:00 pm – 4:00 pm	President's Address Old Cabell Hall Auditorium For all students and families who move in on Friday
8:00 pm – 9:30 pm	Welcome Meeting with Resident Advisors Mandatory for all First Years who move in on Friday
9:30 pm – 12:00 am	Welcome Week Program Sponsored by University Programs Council (UPC)
Saturday, August 20	
8:00 am – 5:00 pm	Move into Residence Halls First-Year and Transfer Students: Check in with Resident Staff for information about mandatory meetings and welcome events.
8:00 am – 3:00 pm	Greeters Available Student volunteers will be available in the first-year residential areas to assist new students with their move · Sponsored by the University Programs Council

8:00 am - 8:00 pm	Dining Halls Open Observatory Hill and Runk Dining Halls
9:00 am - 4:00 pm	Student IDs prepared and distributed Observatory Hill Dining Hall Students who did not have their ID photos taken during Summer Orientation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mplete this important step. View ID Card Office hours.
1:00 pm - 2:00 pm	President's Welcome Address Old Cabell Auditorium For all students and families who move in on Saturday
2:15 pm - 3:00 pm	College of Arts & Sciences Welcome Address Old Cabell Auditorium
2:15 pm - 3:00 pm	School of Architecture Welcome Address Campbell 158 and East Gallery
2:15 pm - 3:00 pm	School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Welcome Reception Rice 130
2:15 pm - 3:00 pm	School of Nursing Welcoming Reception Pavilion IX
5:00 pm - 8:00 pm	Dining Hall Open Newcomb Dining Hall
8:00 pm - 9:30 pm	Welcome Meeting with Resident Advisors: First Year and Transfer Students Residence Halls Mandatory for all first-year and transfer students who move in on Saturday
9:00 pm - 2:00 am	Welcome Week Program Sponsored by the University Programs Council

4. 심층인터뷰 분석

1) 심층인터뷰 내용 개요

대학별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 관련한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신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기획과 운영을 중심으로 공통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주체(신입생)와 행사를 주관하고 운영한 주체(직원, 교수, 재학생)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인터뷰 문항은 <표35>와 같다.

<표35> FGI(Focus Group Interview) 문항

대상	질문 내용
I. 참가한 신입생 대상질문	1.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 참석한 목적이 달성되었나요? 3.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4.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 참여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5.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을 진행할 때 어떤 식(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으로 하면 좋을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II. 주최한 학교 당국(담당자) 대상 질문	1.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을 기획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2. 해당 대학에서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서 특히 강조하고 계신 점(차별화 되는 사항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3.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을 준비, 운영하시며 어려웠던 점(걸림돌)은 무엇인가요? 4.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을 추진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5.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연계된 신입생 프로그램이 있나요?
III. 참여한 재학생 대상 질문	1. 예비대학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예비대학에 참석한 목적이 달성되었나요? 3. 재학생 선배로서 예비대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보람)은 무엇이었나요? 4. 예비대학에 참여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5. 앞으로 예비대학을 진행할 때 어떤 식(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으로 하면 좋을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초점집단 면담의 성격을 갖는 심층 인터뷰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에 참여했던 교직원을 비롯하여 전문가들, 학생회나 리더십 그룹 재학생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녀학생들과 학교 교수와 직원 등 30여명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서면 인터뷰로 기본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면담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특히 직접 만나서 현황을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개선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36>은 본 연구의 FGI에 응했던 대상자 명단이다.

<표36> FGI 참여 대상

대상구분	대학	대학구분	이름	응답자 특성
참여학생	A대학	지방국립대	신입생 1	오리엔테이션 참석
	B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2	오리엔테이션 참석
	C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3	오리엔테이션 참석
	C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5	오리엔테이션 참석
	C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6	오리엔테이션 참석
	C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7	예비대학 참석
	C대학	수도권사립대	신입생 8	예비대학 참석
	D대학	지방국립대	신입생 9, 10	오리엔테이션 참석
	E대학	지방국립대	신입생 11	오리엔테이션 참석
	F대학	지방사립대	신입생 12	오리엔테이션 참석
	F대학	지방국립대	신입생 13	오리엔테이션 참석
직원	A대학	지방국립대	직원 1	학생처 학생회 담당
	C대학	수도권사립대	직원 2	기초교양대학 총괄 예비대학 운영
	D대학	지방국립대	직원 3, 직원 4	국제교류본부 팀장, 중국학생 담당직원
	D대학	지방국립대	직원 5	학생처 학생회 담당
	F대학	지방사립대	직원 6	학생처 학생회 담당
운영학생	A대학	지방국립대	학생 1	오리엔테이션 기획·운영(단과대 학생회장)
	C대학	수도권사립대	학생 2	예비대학 참여
	G대학	수도권사립대	학생 3	단과대 오리엔테이션 준비
교수	D대학	지방국립대	교수 1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D대학	지방국립대	교수 2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H대학	지방사립대	교수 3	예비대학 운영 기구 담당
	I대학	수도권사립대	교수 4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J대학	수도권사립대	교수 5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K대학	지방사립대	교수 6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L대학	수도권사립대	교수 7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M대학	수도권사립대	교수 8	학과 오리엔테이션 참여

2) 인터뷰 결과분석

(1)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입생의 인식조사

①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대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 대학별로 수행되는 형식은 다르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입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목적은 무엇보다도 선배, 동기와의 만남, 학과 교수와의 만남,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획득, 향후 대학생활 계획을 위한 계기, ‘재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 등이 그것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소위 ‘군기’를 잡는다든지 음주를 강요받는다든 등의 소문을 들은 것이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참석을 망설였다는 학생이 있기도 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대학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비대학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선배와의 네트워킹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입학식과 함께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의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선배들과의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업이나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 등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사용법 등을 알게 되어서 실제 대학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예비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신입생 8)

사실 대학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형식적일 뿐 집중도 잘 되지 않았다. (신입생 1)

단과대 오리엔테이션과 학과 오리엔테이션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선배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수강신청 노하우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 (신입생 9)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선배들과 함께 학교 내 시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선배들로부터 이용 노하우와 함께 학교 곳곳을 돌아볼 수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부분 유용하였다고 하였다.

단과대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교내 시설을 둘러 본 것이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몰랐을 것 같다.
 (신입생 10)

②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배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포함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표37>과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7>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및 활동
대학정보	학교 소개
	전공소개
	동아리 소개
	학교 탐방, 캠퍼스 투어
	도서관 투어 및 이용법
	글쓰기 특강 등 대학공부에 필요한 강의
네트워킹 및 유대강화	선배와의 시간을 통한 수업, 수강신청 정보, 복수전공 등의 학사 관련 정보를 비롯한 대학생활 정보
	발표 및 토론: 동기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친목도모 레크리에이션
	학과별 대항 체육대회, 장기자랑
비전 수립	미래 계획을 위한 강의 수강
	졸업 선배 특강
	명사초청 특강
기타	인근 기관 및 문화 투어
	금연교육

③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

첫째, 예비대학을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한 대학에서 진행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가운데 리더십 워크숍을 하면서 조별로 논의했던 주제나 활동과제를 준비하며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폭넓고 스스로 미래의 리더로서 주체적인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그려보고 싶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2박 3일간 지내면서 친구도 사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비대학에 참석하게 되었다. 선배들이 조원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조별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함께 들었던 리더십 워크숍 주제가 새내기에게 적합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등을 깊게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단순히 ‘듣고 외우는’ 강의가 아닌, ‘듣고 말하는’ 강의였기에 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졌다. (신입생 7)

둘째, 예비대학을 통해 만난 선배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입학 이후에도 대학생활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선배들이 좋은 수업을 추천해 주었고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 등 대학 공부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많이 알려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사용법과 같은 실제적인 내용도 선배들이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논문작성방법, 도서관 이용방법, 출석체크 방법, 졸업요건 등에 대해 미리 알고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선배들과의 교류의 장을 가질 수 있어서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즐겁고 기대에 찬 생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입학 전에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학교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입학 이후에도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조장 선배와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에서 힘든 점이 있을 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얻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선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고 신입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대학생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입생 8)

셋째,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동료 학우들과 친분을 쌓고 대학을 경험했던 점이 좋았다고 하였다. 함께 조별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같은 조의 학생들과 대학에 와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만난 학우들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대학 생활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알게 된 학생들과 소중하게 유대를 유지해 가는 것을 보면 관계형성에 있어 신입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했던 조별 과제가 이런 우정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교양 과목에서 시간표가 겹치는 학우들이 많았고, 덕분에 대학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예비대학으로 친분을 쌓은 타 전공 학우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조별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이후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신입생 8)

④ 신입생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제안사항: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신입생들은 함께 참여한 선배들로부터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선배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학과 교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공 공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길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공별 모임 뿐 아니라 타과 학생들과의 만남이 폭넓은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으로 신입생들은 강의로 진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내용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었다. 선배와의 대화를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언급한 것도 본 제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학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강의나 워크숍이 포함되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가 자신이 속한 대학에 대한 자부심,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신입생 교육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주체(직원, 재학생, 교수)의 인식

①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및 운영과정:

신입생 교육은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주관하는 학교 본부와 단과대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회 및 재학생, 그리고 교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교본부에서 신입생 교육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의 경우 본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문제 없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는 재학생들은 선후배간의 유대를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성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올 초에 여러 대학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다. 그렇기에 이번 인문대학 학생회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정하여 진행하고자 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18시 이후부터는 모든 출입구에 학생회 인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출입자 방명록에는 나간 시간과 핸드폰 번호를 적도록 하여 나간 뒤 10분 동안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혹 휴대전화를 받지 않으면 해당학과 회장단에게 연락하여 같이 찾으러 나가기로 하였다. 이 결과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인문대학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학생 1)

한편,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한 재학생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그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 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섹션별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본 프로그램은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으로 전달하는데, 대체로 선후배간 네트워킹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신입생 교육으로서의 목적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내용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여대 바롬 예비대학 캠프에 참여했을 때, 서울여대만의 독특한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인 ‘바롬 인성교육’을 내건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너와 나 ‘우리’를 강조하는 서울여대의 모토가 가깝게 다가왔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게임 등의 다소 가벼운 형태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만의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만의 강점, 학교의 가치관과 교육 특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2)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신입생 교육의 방향과 다양한 접근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표38>과 같다. 신입생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하고 신입생들이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감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학습의 긍정적인 출발을 위하여 학업준비와 진로설계 등의 체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8> 신입생 교육의 다각적인 접근 사례

구분	세부 내용
대학에 대한 소속감 고취	대학 이해 프로그램(워크숍, 특강, 레크리에이션, 미니 운동회, UCC 제작 활용)
	대학생활 적응력 제고
	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애교심 함양, 소속감 고취
	대학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확립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제고
구성원간 유대 강화	교수-학생간 친밀감 조기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대학생활 도모
	학과 선후배간 친화
대학수학능력 강화 및 학업 준비 제고	기초학습능력 증진
	영어능력 시험을 통한 수준별 교육 실시 및 준비
	AP과목 운영(영어, 수학, 체육 등)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사전학습/보충학습
진로설계	MMPI 등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진로지도 및 관리 준비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타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대학생활 동기 고취
	신입생-학부모 공감대 및 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활 준비
	문화체험

② 운영의 방식 및 운영주체 :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생처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체 기획을 이원화하여 전체학생용 프로그램과 단과대학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대학은 학생복지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여 단과대학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내려 보낸다. 그리고 각 단과대학은 학과들과 협의하여 단과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이후 본부에서는 단과대학별 기획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부한다. (직원 5)

한편,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입학처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한 대학의 경우를 보면, 입학처, 대외협력단, 교학처, 학과, 학생회가 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로 설정되어 있었다. J대학의 경우 신입생 교육은 <표39>와 같은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 5)

<표39> 신입생 교육의 목적과 주관 사례(J대학)

목적	신입생 예비대학	-예비 신입생 기초학습능력 증진 -입학 후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능력 관점의 사전 보충학습
	학과 예비간담회	-학과교수-선배-후배 간담회를 통한 학과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및 전공 비전 제시 -대학 및 학과 교육시설 소개 -우수 학생의 대학/학과 소속감 고취 및 이탈 방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과 선·후배 및 동기간 친화 -학과 교수들과의 만남
	OO人spiration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서비스교육을 통한 대학생 대인관계능력 향상(캠퍼스 생활 매너 / 교수와의 의사소통 에티켓 등) -대학생활 동기고취
주관	신입생 예비대학	입학홍보처 주관 / 대외협력단 주최
	학과 예비간담회	입학홍보처 주관 / 학과 주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학처 주관 / 학생회 주최
	OO人spiration	교학처 주관 / 주최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대학의 경우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컨대, ‘반 성폭력 교양’, ‘강권금지 교양’ 등과 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문제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예방 교육을 사전에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재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교육받은 사항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학생 3)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입학처나 학생처가 아니라 교양교육원과 같은 교양교육 담당 기구에서 신입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신입생을 교육하는 전담기구가 존재할 경우 입학 이후에도 신입생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보다 체계적인 교양교과목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년도에는 교무처와 대학본부가 주체가 되었는데, 관할 부서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부터 교양교육원으로 주관부서를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

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함과 각 학과 학생 및 교수님과
의 친밀감을 조기에 형성하여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와 애교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
의 목적이었습니다. (교수 3)

③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체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전체의 행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학생 관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신입생 교육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행사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부서에서는 본 프로그램 담당자가 전체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직원 1)고도 하였다. 또한 일정
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생 참여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여타
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
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대학의 경우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입학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입학식
과 함께 진행된다. 그러하다 보니 오리엔테이션 자체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학사과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직원 2)

또한 예비대학이 처음에는 입학 팀의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사업의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배정의 규모
가 달라져 매년 일정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였
다. 사례가 된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원이 주관하는 예비대학 일정이 재학생 및 신
입생 수강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와 겹치는 관계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는 주관 부서의 부담이 컸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학처에
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총괄하거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
를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예비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종류, 규모, 일정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대학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과 정례화가 중요하다. 나아가 대규모 인원이 숙박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기에 기숙사, 시설 및 노무지원팀, 홍보, 입학, 정보통신 지원 등 다양한 부서의 양해와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비대학 행사 주관부서 문제로서 현재 입학 팀에서도 유사한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대학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원 2)

④ 향후 운영을 위한 제언 :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고 하였다. 또한 부서간 업무 분담 및 학교 전체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고 신입생을 위한 연계된 후속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외국인 학생, 야간과정 입학생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을 통해 선후배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보직 교수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캠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카드뉴스 등 접근성이 좋은 신입생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대학이 입학처와 교양교육원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다 보니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전담 기구가 필요하였다. 예컨대 예비대학 첫 날에 이루어지는 총장이나 원장의 인사말이나 특강의 경우 주제가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에 다른 부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운영 부처가 다른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두 번씩 이수한 학생이 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이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학 차원에서 신입생 교육을 전담하는 특정 기구를 만들어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니면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입학처와 1학년 교양 필수교육을 담당하는 기초교양대학이 역할을 조율하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

성하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대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연계된 신입생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목적과 필요에 공감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사전에 경험하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담지도교수 및 재학생 멘토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이에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서 “선배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아쉽다”는 신입생들이 많았다. 조장과 부조장을 맡았던 선배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얻는 기회가 많을 경우 학교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선배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고 입학 후에도 좋은 정보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배들과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조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특강 방식 보다는 신입생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고 친교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조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조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조 친구와는 거의 친해지지 못해 아쉽다”, “조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전공과 학부가 모인만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료들과의 친교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날에 자기를 소개할 시간을 넉넉히 갖고 서로 간에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였다. 미리 전공을 체험해 보거나 대학공부에 실제 도움이 되는 팁이나,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다. 이에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습수행에 자신감을 주는 방향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재학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공부하기에 도움 되는 논문작성법, 팀 프로젝트 수행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전략을 배우고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학습방법

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학 전 준비과정이 1학년에서의 학업과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이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즉 참여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멘토 선배와의 연결을 통해 신입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 관련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내용과 수행방법을 <표40>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40> 예비대학/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구성시 고려사항

기관 및 담당	내용	수행방법
총장/교무위원	대학 교육이념, 교육목표, 대학 발전 비전, 인재상, 미래사회 동향 분석 등 소개	특강
교무처(학사지원)	교육과정, 전공/복수/부전공 조건, 수강신청 방법, 휴학/복학 등 학사 제도 소개	특강
학생처	학교생활 규칙 및 생활상담, 학생지도,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소개	특강
교양대학, 교양학부	기초 학문탐구방법, 고전도서 목록, 기초과학, 학습윤리 등.	학생활동 중심
교수학습센터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협동학습 방법, 각종 프로그램 소개 등.	학생활동 중심
총학생회	선배들의 우수한 결과물 전시, 동영상 소개, 학생회 및 동아리 등 소개	공연, 소개
동문회/학부모	애교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멋진 대학생활, 청년정신 등 당부	동영상
전공학과/학생회	전공 특성 및 교육과정 소개, 미래 직업 소개 등. 교수/선배들과의 대화	그룹별 면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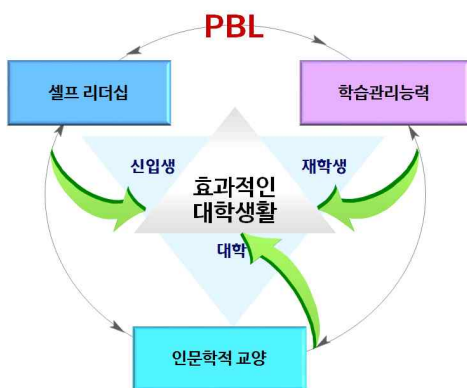
Ⅲ.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1.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2. 학습관리 능력 개발
 3.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계발
-

Ⅲ.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은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학을 소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과 의례처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에, 과연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문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입생교육의 차원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팀워크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입생의 순조로운 적응과 출발을 위해 출타동시(啐啄同時)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신입생들이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둘째 대학에서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관리능력 개발, 셋째 인문학적 교양에 대한 관심과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셀프 리더십과 학습관리 능력,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배양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뉘서 PBL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5]와 <표41>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5] ‘출타동시’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

<표41> 연구방향에 따른 PBL교육목적

연구 목적	관련 내용
셀프리더십 능력 개발	◦ 셀프리더십 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 목표관리-시간관리-관계관리 커리큘럼 구성 ◦ 피드백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습관리 능력개발	◦ 기초적인 학습방법 및 공부전략 개발 ◦ 기초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습역량 강화 ◦ 교과 및 비교과활동, 진로 및 취업관련 교육 로드맵 구축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개발	◦ 대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 ◦ 기초교양교육으로서 인문학·독서·토론·글쓰기에 대한 관심 제고 ◦ PBL을 통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

1.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1) 자기관리를 위한 셀프 리더십 프로젝트

신입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셀프 리더십 능력을 키워주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셀프 리더십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자세를 키워주려는 목적을 지닌다. 자기관리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찾고 비전을 세우고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셀프 리더십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셀프 리더십을 신입생교육에 포함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룹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되기에 셀프 리더십은 중요하다.

셀프리더십의 기초로서 먼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아보는 목표관리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계획해 보고,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리더십 교육을 통해 목표관리, 시간관리, 관계관리와 관련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한다. 리더십 교육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목표관리와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리더십의 기반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라는 점에서 관계관리의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목표관리	자신의 삶의 나침반인 비전을 세우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 성찰
시간관리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
관계관리	'무재칠시(無財七施)'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2) 미래 사회 동향 분석과 진로교육 프로젝트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향후 사회에 나갈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미래사회의 변화 트렌드와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이다. 학생들의 미래 진로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대학 생활을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며 그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계획을 짜보고, K-CESA(핵심역량 진단평가)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의사소통역량	사고력과 표현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초교육의 접목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인재로서의 능력을 위해 국내외 변화 흐름 이해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셀프리더십, 관계리더십 능력 진단과 개인별 피드백 제공

3) 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한 훈련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학교 당국-재학생-신입생 3자가 공동 책임을 갖고 협업하면서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즉 학교 당국은 대학생활 전반에 관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 부처와 기관별로 입학전형의 특성과 신입생들이 갖고 있는 관심 영역에 따라 주제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총학생회나 리더십 그룹의 재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배들이 멘토로서 신입생들을 이끌어주는 멘토링이나 학습지도를 위한 튜터링 등을 통해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동시에 신입생들이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선배의 특강 자리를 마련하여 해당 대학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신입생의 역량을 측정하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역량을 진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역량진단	학생 개인별 적성과 특성, 역량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관리
재학생멘토제	재학생 선배가 멘토가 되어 신입생을 지원하는 멘토링, 튜터링 등 운영
동문선배 특강	사회 각 분야의 선배들의 경험을 듣는 자리

4)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입생에 대한 음주와 성추행, 가혹행위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인권의식과 젠더적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존중하는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야 한다. 젠더적 관점을 갖고 학생들이 성 평등 의식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자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요청된다. 미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젠더적 감수성	남녀의 특성 차이와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기대 검토
성평등 교육	한국사회의 남녀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고
인성교육	인권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2. 학습관리 능력 개발

1)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되기 프로젝트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인 교육 모델을 통해 학습수행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학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	주요 내용	방법(예시)
선배에게 듣는 대학 공부	교육과정 로드맵 소개	특강 및 토크콘서트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	플로어 질의응답
	대학공부를 위한 준비사항	분임별 질의응답
입학하면 도움 되는 학습전략	디지털 미디어 활용	강의 및 실습
	도서관 정보이용	강의 및 실습, 견학
	영어강의 준비하기	강의 및 질의응답
	글쓰기의 기술	강의 및 실습
나의 대학공부	생각표현 연습	발표
	학업계획서 작성	발표

2)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는 학생들이 전공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습역량을 측정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충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퍼실리테이터로 투입하여 학생밀착형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트랙	주요내용	방법(예시)
학습전략 일반	- 공부하는 '나' 찾기: 학습스타일 진단	분반별 세미나
	- 효과적인 학습전략 수립: 인지전략 훈련	
발표능력	- 프레젠테이션 준비	조별 협동학습
	- 프레젠테이션 실행	
	- 프레젠테이션 실습	개인별 실습
외국어능력	- 영어강의 수강을 위한 청취 및 노트 전략	
	- 영어 프레젠테이션 실습	
수학적사고력	- 대학수학을 위한 기초 미적분학	
비판적 사고력	- 고전강독	
	- 주제별 토론	

3) 체계적 학습전략 수립 및 학습설계 프로젝트:

이는 학생들의 입학 전 준비와 1학년 기간 동안의 학습지도의 측면에서 연속적인 개념을 갖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대학의 학습개발 전문가와 그로부터 훈련된 학습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학생 자신의 학습수행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학습 멘토는 전공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으로 편성된 멘티와 함께 공동으로 학습전략을 탐색하고, 멘티가 자신만의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살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신입생의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멘토링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서 학습수행 점검, 지도
스터디 그룹	동일한 교과를 듣고 있는 신입생들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 지원
포트 폴리오 구성	신입생이 작성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성장 지원

3.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계발

1) 대학의 기원, 정체성, 사명에 대한 특강 프로젝트

대학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양 중세에서 대학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학문적 자유를 보장받은 대학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적인 교수와 학생의 관계, 학생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특성 및 대학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단체주의, 자치권, 면세특권, 보편성, 파업권, 수업료의 의미 등과 관련해 대학 교육을 이해하고 대학이 왜 초·중·고 등 여타 교육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 신입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과화, 실용화 등 산업화 이후의 대학의 변화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인문교양교육의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별 대학의 건학 이념과 학생 자신의 꿈을 반영한 대학 생활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교의 건학 이념과 전통,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원과 본질	대학의 성립 배경과 기원,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이해
대학교육의 특성과 변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차이 및 대학교육의 변화 양상 이해
모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개별 대학의 역사와 건학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

2)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 인지 프로젝트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욕망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인문학, 특히 철학교육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현실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자신의 욕망과 행복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이에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인문교양교육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성숙한 인간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인문고전교육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류 보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성인으로서의 삶과 학문 탐구의 삶을 동시에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인문고전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신입생들이 접하는 교양필수 교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말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사고와 표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욕망과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자신의 욕망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숙고와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계기 마련
인문고전교육의 중요성	고전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문고전에 대한 탐색의 기회 제공
사고와 표현교육에 대한 이해	글쓰기, 발표와 토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3) 생애설계 및 대학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

첫째 성인으로서의 자아 발견과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주체적이었나를 반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의미와 실재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계획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둘째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작업과 그 구체적인 과정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20대부터 각 단계별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학기, 방학, 휴학 등 대학 생활의 각 기간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졸업 때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계발해 갈 것인지, 학점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떠한 교과, 비교과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채어나갈지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성인으로서의 자아 발견	성인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아 발견과 정체성 수립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
생애설계	20대부터 각 시기별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구성
대학생활 설계	구체적으로 매학기별로 대학생활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계획해보는 기회 제공

.....

IV.신입생 교육 모델 개발

1. 신입생 교육 설계의 기본 요소
 2. PBL 기반 신입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3.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모델
-

Ⅳ. 신입생 교육 모델 개발

1. 신입생 교육 설계의 기본 요소

1) 목적에 대한 검토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에서 설정하는 목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따라서 각 대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각 대학이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것들이다.

(1) 대학의 이념과 사명에 대한 교육:

대학이 무엇인지, 대학이 초·중·고등학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교육하는 일은 대학 신입생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이 단지 학점을 따고 졸업장을 취득하여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다면 대학생활은 도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12세기부터 시작된 대학의 설립이 교황과 황제라는 종적인 권위에 대항하고 교수·학생의 자유로운 교류라는 횡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그 기반 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유와 진리라는 대학의 이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학 신입생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2) 소속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학교에 대한 자긍심은 우수한 신입생들의 소속 대학의 중도 포기를 방지하고 학업과 자치활동 등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각 대학이 가지는 전통과 이념을 설명하고 신입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그 전통을 빛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 재학생, 교수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선발하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고, 최근 해당 대학이 이룩한 각종 성과에 대해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오리엔테이

선과 예비대학을 실시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고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인간의 삶의 통과의례 중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유인하는 자리가 성인식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성인식의 전통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성인식 문화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실정에서 성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대학 신입생 프로그램이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으로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4)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고등학교 때까지의 생활은 시간표, 학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정해진 바를 따르는 삶이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자유가 부여된다. 따라서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삶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와 안내는 중요하다. 대학 신입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목적이 바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수강신청, 학점관리, 졸업요건, 방학 중 생활, 동아리활동, 스펙관리, 캠퍼스 안내, 학생 및 교수와의 관계 등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 가능한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구성원간의 친목 도모:

심층 인터뷰 결과 학교 관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적이 바로 친목 도모였다. 특히 학생회 간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리엔테이션 목적이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였다.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재학생과의 튜터링과 멘토링을 통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기획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의 여부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 당국 주도:

대학 당국이 주도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는 대학의 이념과 각 대학의 전통, 학교생활 등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획, 운영, 안전상의 문제로 많은 대학에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 주도는 운영 주체가 입학처인지 학생처인지, 아니면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인지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2) 학생회 주도:

학교 전체가 다수의 신입생을 관리, 운영하는 부담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특히 단과대 학생회) 주도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행사 내용이 주로 친목도모라는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구성되는 경향이 높다. 장기 자랑, 게임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1학기 중에 있을 새터나 MT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리엔테이션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라면 따로 할 이유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에 노출되는 단점도 있다.

(3) 공동 주도:

학교 당국과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는 오리엔테이션의 여러 목적들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운영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친목 위주의 행사는 학생회에게 맡기고 대학의 이념,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등과 같은 내용은 학교 당국이 맡는 식으로 분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기에 대한 검토

신입생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개최 시기는 2월 중순부터 3월 첫째 주까지가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월 중순:

겨울방학 중이기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여 여유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시모집 신입생의 추가 합격자를 포함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등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학 전 학생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2) 2월 말:

최종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과 입학 전에 수강신청과 학교생활 등에 대해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강 전에 학사일정상의 여유가 없고 보험 가입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3월 초: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기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학과 수업 시작 후에 학교생활 안내를 한다는 한계와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4) 장소에 대한 검토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장소는 대학 사정상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부 :

대학 내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을 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 곳곳을 신입생들이 살펴볼 수 있는 캠퍼스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학생과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이 경우 가능하면 기숙사를 활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외부 :

대학 밖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사진행의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숙박 비용 부담이 크고 음주문제나 이 동시 안전상의 문제에서 불리하다. 더구나 신입생들이 캠퍼스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학교 투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내용에 대한 검토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내용은 각 대학이 설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이념에 대한 설명: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의 대학이 가지는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 대학이 어떠한 정체성을 띠게 되었는지 대학의 역사에 대해 영상이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학이 표방하는 자유와 진리의 이념이 왜 자신과 사회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하고, 대학이 단순히 취업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나아가 21세기 대학의 방향과 대학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각 대학이 처한 위치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 목표에 대해 공유하게 한다.

(2) 각 대학의 전통 소개와 자긍심 고취 :

각 대학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당 대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역사와 현재의 위상과 미래의 비전을 신입생들에게 알려주어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졸업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를 빛낸 동문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게 하거나 조별로 졸업선배와의 간담회를 가지게 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에 투사하고 꿈꾸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의 동아리 공연이나 춤, 노래, 응원 등을 통해 즐거

운 분위기를 돋우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학생 리더십 그룹 학생들과 신입생을 짝지어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와 친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바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회를 모색하게 한다.

(3)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 :

학생 스스로 자신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일종의 성인식으로서 인생 전체의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성인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교육하고, 통과의례를 통해 자신의 인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성인의 의미에 대한 교육은 학교 전체나 단과대학 단위로 진행해도 좋지만 성인식은 과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통문화 보전에 관심과 노하우가 있는 인근 향교나 전통문화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 대학의 자체적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성인을 인증하는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절주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술과 담배는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캠퍼스에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는 달리 성인으로서 성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정보와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알려주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4) 학교생활 안내 및 학습법 교육: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동아리, 기숙사, 지역사회 등 대학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신입생 시기에 이수하게 되는 의사소통능력 교과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해 준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토론, 발표, 대화, 논문작성법, 기말 보고서 작성법, 시험 준비 등 대학공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력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대학생활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기별, 방학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적관리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서관 위치, 시설, 정보 이용 방법, 대출 및 반납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선배들로부터 성적 관리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나아가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를 안내함으로써 각종 대회에 도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선배를 통해 준비 요령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중앙동아리, 단과대 동아리, 학과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학교 투어를 통해 대학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캠퍼스 투어의 경우 재학생 1인과 신입생들로 조를 편성하여 학교 건물과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되, 요즘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방식으로 게임하듯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기숙사 및 식당 등 숙식 관련 생활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자취, 하숙, 식당 등 학교 주변의 숙식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기숙사 이용 수칙이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안내는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따로 개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온 학생들이 있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소개를 통해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5) 생애설계 및 각종 검사 실시 :

생애설계 프로그램으로 이력서(국문, 영문) 쓰기와 10년, 20년, 30년 후의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학습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공부 습관을 진단해 보는 것이다. U&I 학습유형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적성 검사로서 MBTI, MMPI, DISC 등과 같은 직업적성검사 및 행동유형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고 동시에 학생생활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입생 기초 조사가 취업까지 연결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처의 취업과, 학과 지도교수와 연결되는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기초학습능력 검사로서 모의 토익 등 영어 테스트를 실시하고 졸업 시까지 영어실력 향상의 준거점으로 활용한다.

(6) 학과별 프로그램 마련 :

학과별로 자체적으로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생, 재학생, 교수와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공통적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강신청 안내가 필요하다. 단지 수강신청 방법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재학생의 시연을 통해 수강신청의 실질적인 요령을 제공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신입생, 재학생, 교수가 서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과와 전공을 소개함으로써 과의 역사와 현황, 비전에 대해 인지하고 특징적인 점들을 공유한다. 학부제 모집의 경우는 학과를 결정하기 전 1학년 생활 동안 겪을 소속감의 부재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부 단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전공을 소개하고 각 전공의 재학생, 교수와 같이 조를 혼합 편성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6) 방법에 대한 검토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혼합한 일종의 BL(Blended Learning)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이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대학에 들어와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료를 올려놓고, 오프라인에서는 학습자 활동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접근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즉 대단위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여 동일한 콘텐츠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자료를 올려놓아 기본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교육현장에서는 각 단과대학이나 전공별로 특성화와 개별화를 통해 콘텐츠를 해석하고 면대면 지도를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존재하는 사이버 강의실과 같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거나 신입생 교육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수강신청방법, 도서관 이용방법, 학교 캠퍼스 활용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점들을 묻고 해결할 수 있도록 Q&A 코너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On-Line 상에서 One 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의 학습 환경과 융합하여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는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해당 정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클립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의 부서별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해당 내용을 PPT로 정리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10여분 정도의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플랫폼에 링크해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모바일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접하고 상시적으로 기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는 PBL 등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에, 재학생과 신입생간에, 혹은 신입생들의 상호간 면대면 논의와 협동학습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주제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입생 교육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혼합형 BL(Blended Learning) 교육체제는 <표42>과 같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표42>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교육 체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신입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시하여 기본 사항 이해 퀴즈, 토론 등 온라인 참여학습	교수와 신입생, 재학생 멘토와의 면대면 상호작용, 조별 협동학습을 통해 운영 PBL, 프로젝트, 워크숍 등으로 문제해결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영상 클립, PPT 등의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 학습내용 스스로 정리하도록 함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숙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공간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상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7) 기타 적용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

학교의 사정에 맞춰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많이 쌓이면 기숙사 배정, 장학금 등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제고한다. 또한 특수 그룹 오리엔테이션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생과 편입생 등을 배려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끌어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학생은 각 학교에서 전담부서를 두어 별도로 맞춤형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 학생과 짝을 지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여 이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원 신입생 중에서 외국인 학생도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 제고가 요구된다.

2. PBL 기반 신입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졸업 때까지 대학생활 전체를 조감하여 신입생 교육 차원에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입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년별 로드맵 속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전형에 따라 소수의 학생들만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학교육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 대학생활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학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대학을 소개하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교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 공부의 방법과 각종 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향과 수준 등을 파악하여 프로파일 형태로 만들어 맞춤형 상담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평생지도 교수제와 선배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여 신입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1학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고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교과와 인문학 교양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전공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1학년 생활을 가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 PBL 운영절차

문제중심학습으로 불리는 PBL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방법”이다. PBL은 수업 초반에 문제가 주어지고, 학습자는 문제 상황의 해결주체로서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조직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강인애,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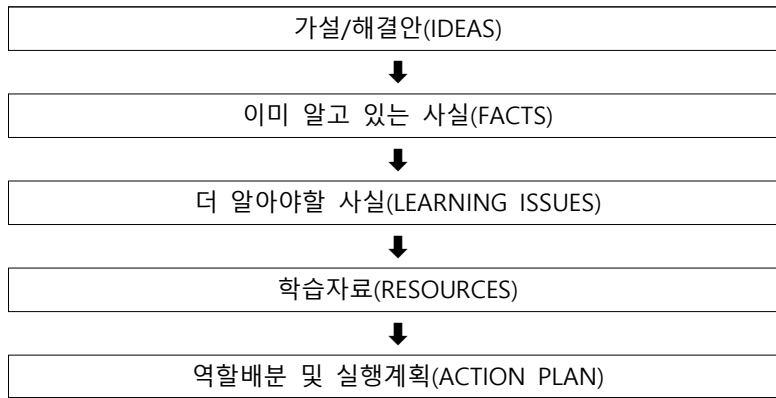
PBL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PBL 기반의 학습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 PBL은 교과서를 통해 획득되는 단편적 지식의 조각보다는 통합된 지식기반을 얻을 수 있다. 실제적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문제 상황에서 제시된 단서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어진 문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지식 기반을 토대로 이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실제 맥락에서 사용되는 문제해결 과정과 얹혀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단편화 된 지식보다는 실제 적용을 통한 ‘생생’하고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PBL은 ‘문제’로 시작한다. 이때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거나 일정한 틀에 매여 하나의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복잡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문제에는 학습의 핵심 내용과 맥락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PBL은 ‘학생 중심’이다. 학생은 문제해결자로 학습에 참여하여 좋은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직접 다루면서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고 학습에 책임을 맡게 된다. PBL은 교수자의 역할을 ‘지식전달자’에서 ‘학습진행자’로 전환한다. 교수자는 수업을 계획하고 문제를 개발하고 평가를 준비한다. 일종의 학습 촉진자로서 학생들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제공하고, 안내자로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관점을 제공하기도 하며 평가자로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조연순, 2006).

(1) PBL 기반의 학습과정: 과제수행 계획의 과정

PBL 기반의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인 학습요건인 문제가 주어지면 학습자는 다음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워나가게 된다. 이것을 과제수행계획서라고 부른다. 먼저 각 팀에서는 문제를 통해 자신들이 학습하게 될 ‘학습목표’

를 결정한다. 설정한 학습목표를 토대로 [그림6]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6] PBL 수행의 기본 과정

즉 ‘가설/해결안(Ideas)’의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들, 가정들, 해결방법 등을 적어본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본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성과를 고려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Facts)’을 탐색한다. 이 항목은 기존의 개념, 지식, 또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배경을 토대로 학습이 시작됨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주어진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선가 들은 사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더 알아야 할 사실(Learning Issues)’의 단계에 이르러 해결안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수행하게 되는 기반이 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식을 구성할 뿐 아니라 통합적 지식 기반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수행되는 다음의 두 과정은 학습이 ‘내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탐색과 선택의 과정이 중요하고,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료(Resources)’ 탐색 과정에서는 위의 세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난 후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 가운데 필요한 사항을 고를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자료를 마련한다. 이때 학습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문서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제 전문가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역할배분 및 실행계획(Action Plan)’의 단계에서는 선택한 학습 자료를 어떻게 배분하여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문제해결안이 도출되고, 그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른 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또는 다른 팀의 결과물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식 구성과 지식 공유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민혜리, 김선영, 윤희정, 2016).

(2) 대학 PBL의 진행 과정

대학에서 진행되는 PBL은 대체로 모듈을 단위로 진행된다. 모듈은 문제 제시부터 학습수행 및 결과발표를 거쳐 학습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다.

① PBL 오리엔테이션

PBL 기반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태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준비한다.³⁴⁾ 먼저 강의계획에 대한 소개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소개한다. 이어 PBL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학생들의 자기소개와 팀을 구성하고 그라운드 룰을 설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수업방법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고 PBL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② 문제제시 및 과제수행 계획

PBL 문제의 제시방법은 문서의 형태로부터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모듈의 문제가 제시되면 학생들은 문제를 우선 소리 내어 읽으며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 용어들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해결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발견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³⁵⁾

34) 부록의 “PBL 오리엔테이션” 양식을 활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PBL 수업활동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③ 개별-팀 학습 수행 및 해결안 도출

과제 수행계획에 따라 학생들은 개별학습과 팀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리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그림7] PBL 기반 과제수행 계획 및 학습수행의 과정

④ 발표 및 평가

학습의 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팀 평가와 동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듈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교수자의 정리가 요청된다. 학생들의 과제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모듈별 과제 수행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심사항과 심화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해당 모듈에 대한 학습의 완료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도록 하여 자기를 평가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2) 신입생 교육내용과 PBL 모듈설계

(1) 셀프 리더십 능력 개발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 신입생들은 아직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에 미숙한 경우가 많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中等교육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주도하는 셀프 리더십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전인교육, 인성교육이라는 거창한 표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시 위주

35) 부록의 “PBL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학습수행을 계획할 수 있다.

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이러한 자아 발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도 자신을 여전히 어린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신입생 교육 과정에 통과의례로서 성년식을 마련하고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대학생활을 주체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자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즘 대학생들의 문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도 없고 방향도 없다는 데 있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만족하는 경향은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에 진정한 행복과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바람직한 인성”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곤란하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 비전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목표관리, 시간관리, 관계관리 기술을 배우고 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셋째,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주체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세계의 흐름에 대해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잘 나가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분야가 어떤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는 과정인 것이다.

넷째, 학생 멘토제 운영과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당국과 재학생, 신입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재학생과 신입생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어 학교생활 안내와 설계, 학습지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젠더적 감수성이 부족한 신입생들이 성적 차이와 성 평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43> 셀프리더십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모듈 번호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 내용
1	<모듈1> 비전 설계- “30년 뒤에 우리는?” 30년 뒤에 모교 동기들이 함께 자리하는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모교 캠퍼스를 대학 졸업 이후 처음 방문하여 그동안 대학의 발전상과 변화된 교정을 둘러보면서 행사장에서 총장의 축사와 동문회장의 환영사를 들으며 각과별로 모여 서로 지내온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재학시절을 회상하고 우리 대학이 어떻게 성장하고 달라졌는지 교내외 평판은 어떤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또한 30년 뒤에 자신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각 조별로 주제를 잡아 총장과 동문회장 역할을 맡아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하고, 전지에 30년 뒤의 모교와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발표하고 소감을 서로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2	<모듈2> 동문 네트워크 구축-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우리 대학을 졸업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을 만나서 재학시절 얘기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보사의 학생기자가 되어 모교를 빛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라는 코너를 맡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조별로 선정한 선배님의 대학 생활의 추억을 듣고 어떻게 진로를 잡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경험을 들으며, 이를 교내방송국 PD로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IPTV에 올리려고 합니다. <대학신문>편집과 교내방송국 제작을 하면서 신입생 후배들이 대학생살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동문 선배 인터뷰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학교 신문과 방송에 보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봅시다.
3	<모듈3> 성평등 교육-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성평등 워크숍’ 자리에 와있습니다. 남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가족, 학교에서 어떻게 사회화 되어 왔는지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을 규정짓는 속담, 격언 등을 찾아보고 사회문화적으로 전제화된 남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남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갈등 사례를 찾아 조원간에 역할극을 해 보고, 서로간에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려면 어떤 점에 서로 유의해야 할지 대화의 팁을 찾아 조별로 발표해 보길 바랍니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한국사회에서 차별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이슈를 들어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먼저 대학 캠퍼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표43>는 셀프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한 PBL문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고, 대학생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모듈1>의 “30년 뒤에 우리는?”과 같은 비전설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생

각해 보고 동시에 자신이 속한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듈2>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대학을 나온 선배들과의 만남과 인터뷰 과정을 통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모듈3>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는 성 평등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성 차이를 인지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PBL 모듈에 따라 학생들이 서로 논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생들 상호간에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각 조당 5~6명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그룹 이름을 재미있게 만들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그룹 구호와 심볼 등을 만들어 팀워크를 다지는 작업을 하고 나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해당 모듈을 진행하는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먼저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미션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별로 재학생 선배 멘토를 배치하여 신입생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자원을 안내하거나 조별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모듈1>의 ‘비전설계’를 운영할 경우 조별 활동 결과물을 전지에 그림으로 그려 정해진 시간(5분 정도)내에 발표하도록 하거나 총장과 동창회장 연설을 할 때는 소품 등을 준비하여 역할극 방식으로 진짜 총장(동창회장)처럼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조별 발표와 연설이 모두 끝나면 함께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학교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계획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표44> 모듈1-1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첫째 날 오후	그룹명	재미있고 재치 있는 그룹명을 학생들 스스로 짓기 (EX:속풀레옹, 비전둥이)
학습 목표	학교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자		
가정/해결안	학생들이 조별 협동학습을 통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배, 교수들에게 질문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문제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 예를 들어 해당 대학의 교육의 비전, 목표, 인재상, 총장의 연설문 사례 각 개인이 대학 입학할 때 작성했던 '자기 소개서' 자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 대학에서의 학업계획서		
더 알아야 할 사실	해당 대학의 미래의 중장기 계획, 청사진 조사 총장(동창회장) 연설문의 특징, 형식의 이해 조별 주제 관련 콘텐츠 조사 해당 대학의 캐릭터 등 상징물 조사하여 그림 그릴 때 반영		
학습자원 (참고자료)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해당 대학 재학생 커뮤니티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주는 텍스트 유튜브, 테드 등의 유명한 연설 동영상 자료 EX: 벤자민 프랭클린 지음, 정혜정 옮김, 『덕의 기술』, 21세기북스, 2004. 서영근, 『셀프 리더십』, 좋은땅, 2016. 백미숙, 『스피치 특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하워드 가드너 지음, 김한영 옮김, 『미래마인드』, 재인, 2008.		
개별 역할	총장 - 30년 뒤의 모교의 총장으로서 축하 연설 동문회장 - 30년 뒤 모교의 동문회장으로서 환영사 연설 발표자 - 조별 미션 과제를 수합하여 5분 동안 발표 서기 - 조원들의 논의내용을 기록, 정리 화가 - 전지에 30년 후 모교와 조원들 모습을 그림그리기		
비고	5~6명이 한 그룹으로 활동하며 고유한 역할과 업무 분담		

<모듈2>는 신입생들이 모교를 빛낸 선배들에 대해 조사하고 선배와 후배의 역할극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묻고 인터뷰 내용을 신문기사로 정리하거나 방송 콘텐츠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동문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약식이지만 교내신문과 방송에 담을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조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로 역할을 맡아서 실제 교내신문 형태로 기사작성도 해보고, 인터뷰 동영상 촬영하여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동문 선배와의 인터뷰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체험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45〉 모듈1-2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마지막 날 발표	그룹명	자유롭게 학생들이 작명하도록 함
학습목표	동문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진로를 계획해 보자		
가정/해결안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들이 있기에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노하우를 듣고 대학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학교를 빛낸 명망 있는 동문들의 사례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에 대해서는 교수나 선배들에게 들은 바가 있을 수 있음		
더 알아야 할 사실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선배들을 찾아보되, 이미 이름이 알려진 명사중심만이 아니라 최근에 졸업한 동문 선배들 가운데 자신들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선배들을 더 찾아보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동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봐야 할 것임		
학습자원 (참고자료)	동문회 사무실에 비치된 동문회 명부 언론에 보도된 동문 관련 기사 및 인터뷰 자료 동문회장, 학과 교수, 선배들과의 면담 인터뷰 방식 및 신문기사 작성과 관련한 책 남영신,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휴먼컬처아리랑, 2014. 김창룡, 『인터뷰 그 기술과 즐거움』, 김영사, 1994. 이자혜, 『방송 콘텐츠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개별역할	교내방송국 PD - 동영상 기획 및 편집 교내 방송국 카메라 촬영기사 - 동영상 촬영 교내신문사 기자 - 인터뷰 내용 기록 및 신문에 인터뷰 기사로 작성 재학생 인터뷰어(interviewer) - 신문사 기자와 함께 질문자로서 역할 동문회장 - 역할극 형태로 동문회장 역할을 맡아 진행할 수 있음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interviewee)- 역할극 형태로 선배 역할을 맡아 진행할 수 있음		
비고	동문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에 언론에 보도된 동문 선배 관련 기사나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할 수 있음		

<모듈3>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불편한 현실을 진단해보고 성 평등 관련 이슈로 제기된 사회적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평소 언어, 비언어적 측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역할극을 통해 되돌아보고, 혹은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갈등이 되는 사안을 논제로 정해 토론해 봄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탐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표46> 모듈1-3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 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자
가정/해결안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캠퍼스 환경에서도 여학생들에게 불평등한 문화는 없는지 살펴보면, 일상 생활에서 자신부터 스스로 성평등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가정하고, 개인적, 학교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본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양성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고등학교때까지 배웠던 교육내용을 정리한다
더 알아야 할 사실	남녀차별의식을 담은 속담 등 사례 조사 남녀평등관련 법률과 학생인권관련 조례 조사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방법에 대한 조사 토론의 의미와 진행방법 조사 토론할 논제를 선정하고 토론 모형 선택
학습자원 (참고자료)	토론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남성과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해를 도와주는 동영상 자료 매튜 맥케이(외), 임철일·최정임 옮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마셜 B.로젠버그, 캐서린 한 옮김, 『비폭력 대화』, 바오, 2007. 존 그레이, 김정숙 옮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친구미디어, 2005. 리 L.툰슨, 김성환(외) 옮김, 『지성과 감성의 협상기술』, 한울아카데미, 2005. 이정옥, 『토론의 전략』, 문학과지성사, 2008.
개별역할	남학생 대표 토론자(3명) / 여학생 대표 토론자(3명)/ 토론 사회자 남녀대화 역할극(남1, 여1)
비고	역할극을 통해 남녀대화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불평등 문제에 대한 아카데미 토론방식에 따라 논제를 정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

(2) 학습관리 능력 개발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교과 내용을 암기하고 답을 쓰는 주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의 방법과 과정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법을 터득할 기회가 없었다. 대학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학습 방향과 내용, 방법과 습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첫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술과 습성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입학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의 교과수업, 비교과 과정의 학습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수 및 선배 멘토가 신입생에게 학습 설계의 기술을 알려주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듬는 과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8학기 전체의 수강 신청을 미리 해보고, 방학,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어학, 동아리, 공모전 등 각종 비교과 활동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보도록 한다.

둘째, 기초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모든 전공에 기초가 되는 공통된 학습역량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입학 초기에 신입생들의 읽기, 쓰기, 외국어, 수학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춰 수준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학습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수학습센터와 교양교육원, 취업전략센터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입생들의 능력과 성향, 목표에 맞는 학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신입생들의 학습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피드백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듈1>은 “선배와 함께 하는 대학공부 체험”을 통해 선배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모듈2>는 “대학에서 필요한 학습전략”을 주제로 노트필기와 팀 프로젝트, 보고서 쓰기 등과 같이 고등학교 때와 다른 공부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듈3>은 “대학에서의 공부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워보고 입학후 1학기부터 졸업때까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교과, 비교과 활동과 관련지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각각의 모듈별로 제시한 아래의 문제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여 학생들이 과제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표47〉 학습관리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모듈번호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 내용
1	<모듈1> 선배와 함께 하는 대학공부 체험 OO 대학 새내기인 O신입은 고민과 기대가 크다. 오늘이 바로 대학에서의 첫 날이기 때문이다. 멋지고 능력있는 대학생이 되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교에 도착했다. 왓! 그런데 부푼 기대로 들어선 강의실... 뭔가 어렵다. '아 내 대학생활! 멋지게 보낼 줄 알았는데...뭘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어렵게 1교시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건물 앞에 쌓여있는 안내물을 발견했다. <나의 대학공부 전략> [부록 참조] 이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바로 신청해야지! 안내된 주소로 들어가 보니 선배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되어있다. 궁금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쪽 적어보고, 그 중 한 가지만 골라서 신청했다! [부록 참조] 아 선배는 나를 위한 공부법을 알려주겠지? 특강이 기다려진다.
2	<모듈2> 대학에서 필요한 학습전략 선배와 함께 하는 대학공부 전략 특강은 새내기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다들 궁금한 것이 많았구나....' 선배는 공부시간 관리부터 노트필기, 팀 프로젝트와 보고서 작성 등 대학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주었다. 특강의 마무리 시간은 특강에서 이야기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전략을 선택해서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세워보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우리만의 학습전략 발표자료를 준비했다.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3	<모듈3> 대학에서의 공부 로드맵 작성하기 돌아오는 길, O신입은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우리는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위해 나의 꿈에 따른 목표블록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나의 꿈을 찾는 것은 그 꿈으로 이어줄 수 있는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

는데 에서부터 시작된다. 역량이란, 내 꿈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자 꿈으로 이어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와 나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특강에서 받은 인생목표와 로드맵을 작성해서 검토해 주기로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내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공부로드맵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블록 완성하기

나의 꿈				
필요한 역량				
중간목표				
필요요건	전공	부전공/복수전공	어학	기타
	%	%	%	%
8학기				
7학기				
6학기				
5학기				
4학기				
3학기				
2학기				
1학기				
현 재				
구체적인 실천계획				

〈표48〉 모듈 2-1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대학에서의 공부를 위해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가정/해결안	성공적인 대학 학습을 위한 고려사항 리스트 작성 리스트의 우선순위 매기기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선배가 들려주는 학습특강 리플렛 - 나의 공부시간 관리 - 성공적인 대학공부를 위한 노트작성 - 대학생활의 꽃 팀프로젝트 - 보고서, 이렇게 준비하자!
더 알아야 할 사실	대학 수업의 특성 수업별 학습전략
학습자원 (참고자료)	팀별 퍼실리테이터 대학학습전략 관련 도서 인터넷을 통한 검색
개별역할	공동작업 질문지 작성
비고	[부록] 학습법 특강 안내자료 및 신청서(예시)

〈표49〉 모듈 2-2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수행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발표자료 제작 원칙에 적합한 학습전략 소개를 위한 발표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가정/해결안	대학 공부를 위한 학습전략 소개 자료 제작(예: 코넬 노트시스템을 활용한 노트작성 전략, 효과적인 스케줄링 및 To Do List 작성법, 팀프로젝트를 위한 협업전략 등)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선배가 들려주는 학습 노하우 - 나의 공부시간 관리 - 성공적인 대학공부를 위한 노트작성 - 대학생활의 꽃 팀 프로젝트 - 보고서, 이렇게 준비하자!
더 알아야 할 사실	효과적인 학습 노하우 수집 파워포인트 등 발표자료 제작 기술
학습자원 (참고자료)	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노하우 동영상 자료 대학학습전략 관련 도서 인터넷을 통한 검색
개별역할	학습전략 자료 수집 PPT 제작을 위한 내용 설계 PPT 작성 발표 연습 및 피드백
비고	

<표50> 모듈 2-3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자신의 장기목표에 따라 필요역량 및 요소를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다. 현재로부터 졸업까지 자신의 꿈과 연결되는 필요 요건을 시간에 따라 계획할 수 있다.
가정/해결안	장기목표 수립 목표에 따른 필요 역량 도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역량의 개념 목표블록 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 장기목표(꿈) 실행 전략
더 알아야 할 사실	1:1 토론을 통한 나의 장점과 단점 찾기 이상적 인생목표 설정 Sheet 작성 10년간의 로드맵 작성
학습자원 (참고자료)	팀별 퍼실리테이팅 인터넷을 통한 검색 상호 피드백
개별역할	개별적으로 워크시트 작성 동료의 인생목표와 로드맵 피드백
비고	[부록] 워크시트 참조

(3)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계발

대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준비 과정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교양과 의사소통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대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학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대학에서 자유의 보장과 진리의 추구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학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자신이 다니게 될 각 개별 대학의 건학이념과 전통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대학생활을 가치 있게 보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둘째, 기초교양으로서 인문학·독서·토론·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이 분야의 교육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신입생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 있다. 기초교양 교육은 대학에서의 전공교육 뿐 아니라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소양을 키우는 교육이다. 따라서 신입생 스스로 이 분야의 교육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교양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기 주도 학습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자기주도형 학습의 능력과 습관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문제기반학습 등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배려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혐오는 팀플의 과정에서 겪는 무임승차에 대한 부당함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학교생활 뿐 아니라 직장생활까지도 모두 팀 작업의 연속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적극적으로 팀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습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문교양과 사고와 표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모듈 사례는 다음의 <표51>과 같다. <모듈1>은 대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모듈2>는 인문학적 성찰을 목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신입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며 어른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모듈3>의 “후회 없는 대학생활의 설계도는?”는 졸업할 때를 상상하고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문제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표51> 인문교양 및 사고와 표현 능력 개발 PBL문제 사례

모듈 번호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 내용
1	<모듈1> 대학의 의미 이해- “대학이란 무엇인가?” 1년 후 자신의 출신고교에 초대받아 대학이란 무엇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특강을 부탁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강의할 내용의 강의 자료를 작성합니다. 대학이 어떤 역사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대학의 주인은 누구이고 대학은 어떤 이념을 가져야 하는지, 산업혁명과 20세기를 거쳐 달라진 대학과 21세기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을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해있는 학과(학부)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를 요약해서 조별로 5분씩 발표합니다.
2	<모듈2> 인문학적 성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른이란 무슨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조사, 탐구하여 조별로 어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정의에 맞게 어른의 권리와 의무, 그 이전의 존재인 청소년과 다른 점을 가능한 많이 제시하고 조별로 발표합니다. 이상적인 어른과 그 바람직하지 못한 어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러한 어른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른이 되는 통과례인 성년식 프로그램을 작성해봅니다.
3	<모듈3> 대학생활 설계- “후회 없는 대학생활의 설계도는?”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8학기 및 매번의 방학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봅니다. 대학생활을 이미 경험한 재학생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인터넷, 학교 신입생 포탈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참고로 작성합니다. 우선 졸업 때 갖춰야 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학기와 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학부성적, 어학능력, 공모전, 자격증, 독서,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 각 분야로 나누어 준비할 내용들을 작성합니다. 조별로 작성하는 대학생활 설계도는 한 사람의 경우로 작성하지만 해당 조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해 만드는 공동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 설계도를 조별로 발표하고 다른 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개인적 대학생활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표52〉 모듈3-1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출신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을 경험한 선배로서 대학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해결안	대학의 역사, 의미, 미래와 관련한 발표 자료 작성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소개도 포함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신입생 OT에서의 특강 자료 조별로 선배가 제시한 대학 소개 자료
더 알아야 할 사실	대학의 이념, 역사에 대한 신입생 포탈 자료 대학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 내가 다닐 대학 사이트의 소개 자료
학습자원 (참고자료)	김동구, 『중세대학의 설립과 발전』, 문음사, 2003. 요시미 순야, 『대학이란 무엇인가』, 서재길 역, 글항아리, 2014. 케빈 캐리, 『대학의 미래』, 공지민 역, 지식의 날개, 2016.
개별역할	PPT 제작을 위한 내용 설계 PPT 작성 발표 연습 및 피드백
비고	

〈표53〉 모듈3-2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진정한 어른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인 성년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
가정/해결안	진정한 어른의 의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역사적 맥락 고려 의미 있는 성년식 프로그램 설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신입생 OT에서의 특강 자료 조별로 선배가 제시한 대학 소개 자료
더 알아야 할 사실	어른, 성년식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 통과의례의 구체적인 예 다른 나라의 성년식 관련 자료
학습자원 (참고자료)	요시모토 바나나, 『어른이 된다는 것』, 김난주 역, 민음사, 2015. 편집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미래출판기획, 2009. 반 건넵, 『통과의례』,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95.
개별역할	통과의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관례 및 계례의 전통, 의미, 역사, 절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성년식 프로그램 설계
비고	

<표54> 모듈3-3의 문제해결 가이드

일시	그룹명
학습목표	대학생활에 대한 완벽한 설계를 하고 이를 수행할 준비를 마친다.
가정/해결안	4년 동안 들을 수업, 방학 중 계획을 완료한다. 졸업과 취업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파악한다. 대학 생활 중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특강 자료 조별로 선배가 직접 만들어본 자료 예시 조별로 선배가 조언하는 팁
더 알아야 할 사실	졸업요건에 맞춰 4년간 들어야할 과목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정보 기타 대학생활 관련 자료
학습자원 (참고자료)	이무근, 이찬, 『대학생의 진로 멘토링』, 교육과학사, 2012. 오세성 외, 『대학생활 사용 설명서』, 팬덤북스, 2013. 최근 1,2학기 개설 강좌 목록
개별역할	졸업 요건 조사(수업, 자격증 등) 대표적 직업과 직장의 선호 스펙 조사 모범적 대학생활 소개에 대한 예시 조사 일정에 따른 계획표 작성
비고	

3.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모델

1) 예비대학 모델 - 예시

신입생 예비대학의 목적은 다양하다. 신입생들의 학습역량을 체크하고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수시 전형에 선발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입생들에게 해당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의 정체성과 대학인으로서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예비대학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대학 고유의 건학 정신과 그에 따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대학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념과 각 대학이 표방한 건학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한 전통과 학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의 정신과 전통을 신입생들에게 전수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해당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에 예비대학 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건학정신과 교육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비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동기를 갖고 신청을 하여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예비대학에 단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배움을 형성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예비대학이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비대학을 통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모색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고 해당 대학에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고 해당 대학의 실정과 정체성을 반영한 예비대학 교육과정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대학은 신입생 교육의 첫 시작으로 나아가 입학 후에 받게 되는 기초교양교육과 연계하여 전공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 공부에 대한 관심과 질문능력을 키워주는 인문학적 성향을 키워주는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 시기에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역량 개발의 기반이면서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자질을 훈련할 수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교양과 리더십 역량이 각 전공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예비대학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대학공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비대학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기초를 사회화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리더십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보다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비대학 모델의 예시로서 숙명여대의 ‘불꽃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박 3일동안의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표55>와 같다.

<표55> 예비대학 프로그램(2박 3일) 일정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입학식 -리더십그룹 재학생이 진행	리더십워크숍2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	조별 발표준비
<리더십과 비전설계> 특강	동문선배 특강	리더십워크숍3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
도서관 투어 및 기숙사 입소	Field Trip -문화체험	환송식 -리더십그룹 재학생이 진행
리더십워크숍1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	조별로 리더십그룹 재학생 선배들과 자율적으로 외부저녁식사 및 토론	점심식사(뷔페)
조별 활동	조별 활동	

각 대학마다 예비대학의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주요 테마와 컨셉을 잡아서 워크숍 형태나 PBL 방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예비대학의 경우 ‘리더십 워크숍’을 중심 테마로 설정하여 학교의 비전에 대한 특강과 아나운서인 동문 선배의 특강, 도서관 이용법 및 학교 캠퍼스 투어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의 일환으로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리더십그룹 소속의 재학생 선배들과 조를 편성하여 2박 3일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 캠퍼스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핵심 프로그램인 리더십 워크숍 활동을 조별로 수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신입생들이 “30년 뒤에 모교의 모습과 자신의 미래를 연결지어 그동안 조사하고 상

상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전지에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예비 대학인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렇듯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리더십 그룹으로 훈련받은 재학생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짝을 지어 운영되어 좋은 영향을 주었다. 입학식과 환송식도 리더십 그룹 대표 재학생들이 진행함으로써 선배 멘토가 후배 신입생을 맞이하는 방식을 통해 예비대학 모든 과정에서 재학생 선배들이 책임지고 신입생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예비대학을 마무리하는 환송식에서 재학생 선배들이 2박 3일 동안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마지막 날에 화면에 띄우고 같은 조원이었던 후배들에게 축복카드를 써서 나눠주는 등 선배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멘토 선배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를 발전시켜 재학생 선배들이 예비대학 입학식을 준비하고,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나서 수료식은 예비 신입생이 기획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신입생도 스스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비대학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미리 체험해 보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가 효과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PBL 방식을 활용하여 신입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교육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예비대학의 경우 PBL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2) 오리엔테이션 모델- 예시

PBL 기반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1일 프로그램은 숙박 없이 하루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2일 프로그램은 1박 2일, 3일 프로그램은 2박3일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사례다. 단, 학교 사정상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

(1) 1일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총장, 학장 등의 인사, 소개 등 장황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시간과 동선을 고려해서 가능한 같은 장소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끼리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과대학 별로 고유한 행사로 기획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 관계상 PBL식 교육 모듈 중에서 각 학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내용으로 <모듈1>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배부해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가급적 구체적 정보에 대한 교육은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하루인 관계로 점심식사와 자료집에 대한 비용 외에는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교뿐 아니라 신입생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 또한 숙박과 그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56>과 같다.

<표56> 오리엔테이션 1일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9:30~09:40	접수 및 조 편성	과별, 조별 자리 배치	강당
	09:40~09:50	환영인사 및 소개	학장, 학과장, 학생회 소개	
	09:40~10:00	졸업선배 특강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10:00~10:20	학사정보 및 수강신청 안내	학사정보, 졸업요건, 수강신청 방법 안내	
	10:20~10:40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 방법	
	10:40~11:00	동아리 공연	교내 동아리 공연	
	11:00~12:00	캠퍼스 투어	조별 게임식 캠퍼스 투어	교내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00~13:30	학과 및 전공 소개	학과 역사, 특성화, 과목, 교수, 학생회 등	강의실
	13:30~15:30	모듈1: 대학의 의미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5:30~16:30		조별 발표	
	16:30~17:30	기초능력평가	외국어 시험 혹은 인성검사	강당
	17:30~18:10	성평등교육	성평등교육 혹은 성폭력예방교육	
	18:10~18:20	비전선포식	대학인으로서의 비전 선포	

2) 2일 프로그램:

대학 사정 상 1박2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기숙사 이용이나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1일차 저녁 행사를 줄이고 출퇴근형으로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숙소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별로 실시하고, 동선을 고려해서 가능한 같은 장소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끼리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단과대학 별로 특화된 행사로 기획하고, 동아리 공연과 같이 흥겨운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배정해서 친목 프로그램과 연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신입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준비해 올 것을 사전에 공지하여 주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고 조사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일차는 대학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과 대학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기회를 갖고, 2일차는 3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 꿈꾸는 <모듈 2>와 1~8 학기와 매 방학으로 구성되는 대학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모듈 3>을 진행하여 인생과 대학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학과별 친목 시간에 간단한 음주 허용 여부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결정하지만, 가급적 캠퍼스에서의 음주는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일차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PBL결과를 조별로 발표하여 공유하게 하고, 비전 선포식을 하여 명확하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며 마무리 짓는다. 오리엔테이션 2일 프로그램 사례는 <표57>과 같다.

<표57> 오리엔테이션 2일 프로그램

1일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9:30~09:40	접수 및 조 편성	과별, 조별 자리 배치	강당
	09:40~09:50	환영인사 및 소개	학장, 학과장, 학생회 소개	
	09:50~10:10	졸업선배 특강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10:10~10:40	학사정보 및 수강 신청안내	학사정보, 졸업요건, 수강신청 방법 안내	
	10:40~11:00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 방법	
	11:00~12:00	캠퍼스 투어	조별 게임식 캠퍼스 투어	교내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00~13:30	학과 및 전공소개	학과 역사, 특성화, 과목, 교수, 학생회 등	강의실
	13:30~15:30	모듈1: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5:30~16:30	대학의 의미	조별 발표	

	16:30~17:30	기초능력평가	외국어 시험	
	17:30~18:00	장기 자랑 준비	과별 장기 자랑 준비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성폭력예방	성폭력예방교육	강당
	20:00~21:00	동아리 공연	학내 동아리 공연	
	21:00~22:00	학과 대항 장기자 랑		
	22:00~24:00	학과별 친목	자기소개, 게임	
	24:00~	취침		
2일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8:30~08:30	기상 및 운동		
	08:30~09:30	아침식사		식당
	09:30~11:00	모듈2: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강의실
	11:00~12:00	비전 설계	조별 발표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00~14:00	인성검사	MMPI 등 인성검사	강의실
	14:00~16:00	모듈3: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6:00~17:00	대학생활 설계	조별 발표	
	17:00~17:40	PBL 결과 발표	학과별 PBL 결과 발표	강당
	17:40~18:00	비전선포식	대학인으로서의 비전 선포	

(3) 3일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3일이나 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지만 다섯 개의 모듈을 통해 신입생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가급적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 사정 상 기숙사 이용이나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1,2일차 저녁 행사인 성년식과 친목프로그램을 줄이고 출퇴근형 3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숙소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첫날과 마지막 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조별로 실시하고, 첫날 저녁은 엄숙하게 성년식으로 치르고, 둘째 날 저녁은 친목 위주로 편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

리엔테이션 자료집을 배부해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가급적 구체적 정보에 대한 교육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모듈 진행을 위해 신입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찾으며 황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1일차에서는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어른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일차 저녁에 성년식 진행하는 것이다. 성년식 전에 모교를 졸업한 선배의 특강을 마련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성인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일차는 오전에는 <모듈2>를 통해 대학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모듈3>을 통해 3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 꿈꾸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2일차 저녁에는 친목 시간 전에 재학생 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학습법과 과외 활동 등 대학생활의 모범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3일차에 진행될 <모듈4>와 <모듈5>에 활용하도록 한다.

3일차는 대학생활 설계를 통해 학기 중, 방학 중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모듈4>와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짜는 <모듈5>를 진행하여 대학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도록 유도한다. 학과별 친목 시간에 음주 허용 여부는 단과대 차원에서 결정하지만 가급적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3일차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PBL교육 결과를 발표하여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 모범적인 내용들은 자료집의 형태로 신입생을 위한 온라인 포털에 공개하도록 한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비전 선포식을 하여 대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전체를 명확하게 마무리 짓는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접수 때 재학생 멘토 1인 신입생 5~6인으로 조를 편성하고, 오전 행사 뿐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학생 멘토는 사전 선발과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 학과별 프로그램의 적정 인원을 고려하여 학과별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20~50명에 미달 혹은 초과하는 경우 이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간의 휴식 시간은 일정을 조정해 10분 정도씩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음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거나 성폭력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학생에 따라서는 3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행 간 휴식시간을 짧게 하거나,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여길 경우도 있으므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 3일 프로그램은 <표58>과 같다.

<표58> 오리엔테이션 3일 프로그램

1일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9:40~09:50	접수 및 조 편성	과별, 조별 자리 배치	강당
	09:50~10:10	환영인사 및 소개	학장, 학과장, 학생회 소개	
	10:10~10:40	학사정보 및 수강신청안내	학사정보, 졸업요건, 수강신청 방법 안내	
	10:40~11:00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 방법	
	11:00~12:00	캠퍼스 투어	조별 게임식 캠퍼스 투어	교내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00~14:00	학과 및 전공 소개	학과 역사, 특성화, 과목, 교수, 학생회 등	강의실
	14:00~16:00	모듈1: 인문학적 성찰	어른의 의미: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6:00~17:00		조별 발표	
	17:00~18:00	기초능력평가	외국어 시험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성폭력예방	성폭력예방교육	강당
	20:00~21:00	졸업선배 특강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성인의 의미 고취	
	21:00~23:00	성년식	성년의 의미에 대한 특강 및 성년식	
	24:00~	취침		
2일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8:30~08:30	기상 및 운동		
	08:30~09:30	아침식사		식당
	09:30~11:00	모듈2: 대학의 의미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강의실
	11:00~12:00		조별 발표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00~14:00	인성검사	MMPI 등 인성검사	강의실
	14:00~16:00	모듈3: 비전 설계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6:00~17:00		조별 발표	
	17:00~18:00	장기 자량 준비	과별 장기 자량 준비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재학생 강의	학습법, 과외활동 등 모범 사례 발표	강당
	20:00~21:00	동아리 공연	학내 동아리 공연	
	21:00~22:00	학과 대항 장기자량		
	22:00~24:00	학과별 친목	자기소개, 게임	
	24:00~	취침		
3일차	시간	프로그램	주요내용	장소
오전	08:30~08:30	기상 및 운동		
	08:30~09:30	아침식사		식당
	09:30~11:30	모듈4: 대학생활 설계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강의실
	11:30~12:30		조별 발표	
	12:30~13:30	점심식사		식당
오후	13:30~14:00	휴식		강의실
	14:00~16:00	모듈5: 학습전략: 학습스타인	조별로 강의자료 작성	
	16:00~17:00	진단 및 맞춤형 학습전략	조별 발표	
	17:00~17:40	PBL 결과 발표	학과별 PBL 결과 발표	강당
	17:40~18:00	비전선포식	대학인으로서의 비전 선포	

.....

V.신입생 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1.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3. 자기관리능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필요
4. 재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해 선후배 네트워킹 강화
5. 학생들의 참여과정 활성화 및 피드백 모색
6. 신입생 인문교양교육과의 연계
7. 신입생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V. 신입생 교육 운영을 위한 제언

1.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입학식의 연장선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는 안할 수는 없고 잘하기도 부담되는 행사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입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었고 행사는 더욱 간략하고 형식적으로 끝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즉 신입생을 교육하는 의미는 소략되고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학생회 주관의 행사들을 살펴보면 선후배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수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돌아가고, 학생회 주관의 장기자랑 대회나 각종 레크리에이션으로 프로그램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회 입장에서는 친목과 단결을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신입생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기대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신입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 확립, 학습관리 능력과 인문교양 및 의사소통능력 계발이라는 교육목적에 초점을 맞춰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거나, 운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신입생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신입생들이 대학 교육의 시작인 만큼 독립적인 성인으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대학교육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타대학교 경우는 학부모를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와 공동으로 가정에서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tarting Something New'란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은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을 위해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학업상담 및 학생회, 클럽활동 등 학생생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Recognizing Your

Role as a Leader'란 주제로 한 두 번째 워크숍은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주체적인 리더십과 각 전공영역별 주제를 테마로 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이 과정에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자녀의 대학 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것과 자녀의 학업 및 대학 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다³⁶⁾고 한다. 이처럼 신입생들만이 오리엔테이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대학을 알리고 자녀들의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대학 교육도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2. 대학의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목적과 정체성을 고려하고 신입생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소속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자기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한 전문대학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비전 세움'³⁷⁾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입생 전체

36) <http://news.donga.com/3/all/20160302/76783180/1>

37) 주현재, 『교양교육연구』 (6권 3호)에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특별학기 사례연구”(2012)를 보면 “S보건전문대학의 경우 2-3학년제의 짧은 수업연한과 국가고시를 치루는 간호과, 치위생과 등 보건학과로 구성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2주간(총 50시간)의 교양특별학기를 도입하여, 명칭을 ‘비전세움’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대학생활 초창기에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운영단위는 대학 주도 프로그램과 학과 주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대학차원에서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인문학 지식을 담당하고, 학과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초소양교육을 담당하도록 구분하였다. 대학주도 교양교육은 명사초청 특강을 통한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소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협동교육으로 구성되었고, 학과주도 기초소양교육은 전공기초 교육을 비롯하여 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미래 산업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정규 학점을 부여한다는 점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부분으로서 학생들의 필요와 전문대학의 특성이 결합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한 여자대학의 예비대학 사례³⁸⁾ 처럼 미래 여성 리더를 키우는 목적을 살려 기획된 리더십 워크숍 중심의 교육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대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신입생들이 핵심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가는 커리큘럼과 비교과 활동을 개발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극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비전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워크숍을 예비대학에서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와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듯 각 대학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자기관리능력을 위한 셀프 리더십 교육 필요

대학 신입생들의 자기관리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셀프 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찾고 대학생활을 통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질과 역량을 키워주고 자극하는 것이다. 셀프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룹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셀프 리더십의 기초로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비전 세우기부터 목표 관리, 시간관리,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관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내다보며 대학생활을 계획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이와 관련한 리더십 교육³⁹⁾이 필요하다.

리더십 역량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기에 여러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주고자 비전 설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동안 자신의

38) 신희선, “S여대의 ‘예비대학’ 사례분석을 통한 교양교육과정으로서 예비대학 운영의 시사점 고찰”, 2016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6.11.25~26) 자료집, 465~487쪽.

39) 김경아(외), 『직원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8. 자료집에서 리더십교육의 모듈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삶이 과연 주체적이었나를 반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의미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육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MV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MVP 캠프는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3박 4일간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명사 초청 강연, 공동체 훈련, 학과별 미팅, 총장과의 대화로 진행되고, 선배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돕고 있다.

입학한 뒤에는 다시 ‘MVP+캠프’를 학과별로 인성교육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설정, 겸손 예식, 사랑 나눔, 봉사 활동, 습관 고치기 등을 다루고, 또한 ‘노작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며 자연의 소중함과 노동으로 흘린 땀의 결실을 느껴보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과도 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속해서 3학년 학생을 위해서는 심화 인성교육 과정 ‘MVP 챌린저’를, 4학년 때는 국제협력 개발과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MVP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의 체계적인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4. 재학생 멘토제 운영을 통해 선후배 네트워킹 강화

멘토링, 튜터링을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접목하여 대학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대하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학생활 노하우도 얻게 되고 대학의 소속감을 높여줄 것이다. 재학생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링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고, 학교 생활과 직업, 진로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교

40)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09573/1>

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선배들도 신입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키워 가는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선배의 특강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 기획과 운영에 재학생들도 참여하여 후배인 신입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배들이 멘토로서 신입생들을 이끌어주는 재학생 멘토제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을 지도하는 활동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멘토링을 확대하여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낯선 대학 캠퍼스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개인별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신입생들이 캠퍼스 문화에 조기에 적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후에도 선배들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동문 네트워킹을 강화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훈련하는 장으로서도 교육적 의미가 크다. 대학생활을 이미 경험한 선배들이 신입생을 환대하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선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이나 튜터링은 재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을 스스로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경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미국대학 문화와 한국 문화의 장점을 합친 차별화 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속학과 교수진과 선배들이 멘토링을 하는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전설계(My Dream Tube) 및 삶의 수레바퀴(Life Balance Wheel) 등의 프로그램이 그 사례이다.⁴¹⁾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링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이고, 학교 생활과 직업, 진로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 상호간에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한다.

이처럼 선배들과 교수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멘토링을 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써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나 리더십 그룹 재학생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신입생 후배들을 지원하는 멘토링이나 튜터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필요가 있다.

4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716>

5. 학생들의 참여과정 활성화 및 피드백 모색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에 신입생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생주도적인 PBL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장려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워크숍 방식을 활용하여 조별 활동과제를 주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보게 하고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을 수동적인 객체로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두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입생들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태도를 키워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팀워크도 강화될 것이다. 신입생들은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 학습의 주체가 됨으로써 스스로 학습동기를 갖고 대학생활의 시작을 즐거운 경험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과 피드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입생들이 낯선 대학 캠퍼스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밭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신입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상담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들에게 학사행정, 수강신청, 기숙사 이용 등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초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 전통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거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장치를 둌으로써 학업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캠퍼스 문화에 조기에 적응하여 대학 생활을

4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603077440341&outlink=1>

즐길 수 있도록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

6. 신입생 인문교양교육과의 연계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교양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감성과 포용력을 갖춘 성숙한 인재로 커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이 부재한 한국사회 중등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깊이 있는 성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예비대학에 인문교양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1학년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신입생으로서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문 탐구를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사고와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양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신입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비대학이나 오리엔테이션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대학의 예비대학처럼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⁴³⁾ 가운데 문화예술 체험을 포함하여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공동으로 관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키워가는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입생들이 보고 난 느낌을 자신의 글과 말로 표현하거나 나아가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여러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예비대학에 신입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즉

43) 숙명여자대학교 예비대학의 경우 2박 3일 숙박프로그램 가운데 둘째 날에 Field Trip 활동으로 뮤지컬을 관람하는 활동을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오,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리더십그룹(플라리스, 에이블) 선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불꽃 프로그램> 책자, 2016.1.45쪽 참조.

전형적인 진행방식인 대학생활 소개, 학사안내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친구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교수, 선배와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연 전후로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거나 학과별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⁴⁴⁾ 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입생 교양필수 과정으로 연결하여 계속해서 인문교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7. 신입생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이제는 21세기형에 걸맞는 새로운 신입생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에 해 왔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을 관리하는 명확한 주체의 확립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별, 시점별로 관련 프로그램의 설계가 있어야 한다. 우선 국가, 대학교, 단과 대학, 학과 별로 명확한 관리 주체와 업무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관리 센터->학교 본부->단과 대학->학과’라는 종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시기별로는 신입생들의 ‘입학 전->예비대학->오리엔테이션->입학 후 교육과정->취업’이라는 로드맵 속에서 단계별로 특정 목표 아래서 프로그램과 행사가 기획되고,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입생 교육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과 유기적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국고 지원 사업이나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신입생교육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평가가 요청된다. 국가와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신입생 지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표59>와 같이 협력체제 구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4) <http://news.tf.co.kr/read/life/1618310.htm>

〈표59〉 신입생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안)

주체 수준	주요활동	내용	세부내용
국가	신입생정책 평가	각 대학 교육평가요소에 반영	신입생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 평가
	신입생정책 연구기구(YFCY)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연계	신입생 교양교육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제공
대학	신입생센터	연석회의 구성	신입생센터 주도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단과대학
	신입생관리		신입생 조사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학사지도(AA)
	단과대학	학과별 프로그램 조직 및 관리	
		학생위원회 조직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과프로그램 운영	전공교수-조교-학회

또한 신입생 교육을 전담하는 신입생 전문 학장(Dean of Freshmen) 제도가 필요하다. 사실상 신입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대학이 많다. 입학처는 신입생 선발에만 관여하고, 학생처는 재학생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에 신입생을 초기에 잘 관리해 줄 부서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과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하지만 주로 재학생 위주로 학사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입생은 한동안 길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신입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와 그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 학부대학이나 기초교양대학이 있는 경우 이와 연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목 차원에서도 학과 단위로 1학년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심하고 지속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하고 학점관리, 전공 전망, 자격증, 장학금, 학습방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신입생들에게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

VI.결론

1. 연구 요약
 2. 기대 효과
-

VI.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신입생 교육의 측면에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21세기 대학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PBL에 기반한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즉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강조하였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FGI를 통해 발견한 점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학습자 중심의 PBL을 접목함으로써 신입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대학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 사례와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에 입학한 이후 효과적으로 1학년 교양교육과 연계되도록 신입생교육의 방향에서 학생주도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PBL 교수학습 방식의 접목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의 운영사항을 보면 학교당국이나 총학생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신입생, 재학생)과 학교 본부(교직원, 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애교심, 대학생활, 미래 비전을 구상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관습적이고, 지루하고, 임의적이며, 행정편의적이며, 선배들이 후배 길들이기 과정이라고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형식적인 행사와 일회성 프로그램을 극복하고 참여했던 학생들을 니즈를 검토하여 신입생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FGI 결과를 보면, 특히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충실한 정보의 제공과 재학생 선배들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선후배간의 멘토링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비된 선배들의 노하우를 나눠주고 동문 네트워킹이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 주도적인 활동의 장이 가 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방적인 강의 형태 보다는 PBL을 접목하여 학생들 의 협동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 대학에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내실을 기하고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입생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양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의 시 작이 될 수 있도록 신입생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로드맵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이 주체가 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생들이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성패는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앞 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학 공부를 통해 핵심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입생들이 계속해서 대학생활을 통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 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신입생들의 대 학생생활에 대한 기대와 포부, 학문탐구의 자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 다.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도 신입생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변화와 함께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 기대 효과

1)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국내외 여러 대학의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관 련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 결과가 각 대학의 현실에

맞도록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편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에 바탕을 두고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실질적인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제대로 된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신입생들의 1학년 대학생활과 연계하는 로드맵 속에서 본격적인 교양교육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활용되길 기대한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PBL 교육모델을 제시한 만큼 형식적인 관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많은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어 향후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2) 신입생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인문 교양교육의 강화

본 연구는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신입생들의 인문학적 마인드와 사고와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자극함으로써 교양 및 전공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교육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신입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책임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리더십, 학습관리,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함으로써 계속해서 이러한 관심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효과가 전파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신입생을 담당하는 입학처, 학생처, 교양교육 담당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총학생회 및 단대학생회와 교수자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입생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교양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3) 신입생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교육의 성패는 프로그램 내용 못지않게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 이에 신입생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핵심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학습동기를 갖고 진로에 맞는 교과,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과의 멘토링 과정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상호간에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입생 교육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위해 공통으로 참여해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원화된 트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해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입학 이후에도 학사설계 및 진로지도만이 아니라 향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입생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은 예비대학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입생들이 1학년 과정에 들어와서도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될 것이다. 입학 이후에도 학생들 스스로 기초역량과 융합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효과를 확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참고문헌〉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1997.
- 강인애,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03.
- 곽병선(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 권해수, 「전공기반의 신입생세미나 운영효과 검증-상담심리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2호, 2013, 249~272쪽.
- 김경아(외), 『직원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8.
- 김동일, 『2011 통합 예비대학 프로그램 연구』, 가람문화사, 2011.
- 김은경·김은정·이원경·홍혜경, 『준비하며 시작하는 대학1학년』, 문음사, 2004.
- 나카지마 미네요(저), 신현정 옮김, 『기적의 대학 - 국제교양대학은 어떻게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가』, 새움, 2012.
- 다니엘 R. 드니콜라(저), 손종현(외) 옮김, 『배움과 행복: 교양교육의 철학적 탐색』, 양서원, 2015.
- 마이클 해크먼, 크레이그 존슨(공저), 김영임, 최재민(편역), 『소통의 리더십』, 에피스테메, 2010.
- 매튜 맥케이(외), 임철일·최정임(공역),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민혜리, 김선영, 윤희정, 『성공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교수법 가이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6.
- 박민수, 『8가지 커뮤니케이션 기법』, 시그마 프레스, 2008.
- 박성종 외, 「논문/선취 학점 인정을 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공학 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0, 53~62쪽.
- 상주대학교, 『예비대학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02.11.30』, 상주대학교, 2002.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PBL 수업활동자료
-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2016 새내기 예비대학 불꽃프로그램』,

2016.1.12.

- 스티븐 코비(저), 김정섭(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2003.
- 신의항, 「대학교육을 베스트셀러 읽기, 토론으로 시작하다: 미국대학의 신입생을 위한 하계 독서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1호, 2010, 133~175쪽.
- 신의항, 「미국대학의 1, 2학년을 위한 학사지도」,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179~211쪽.
- 신희선, 「PBL을 활용한 대학글쓰기교육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1호, 2014, 11~52쪽.
- 신희선, “S여대의 ‘예비대학’ 사례분석을 통한 교양교육과정으로서 예비대학 운영에의 시사점 고찰”, 2016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11.25~26) 자료집, 465~487쪽.
- 오은정 외,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8권, 2015, 1~133쪽.
- 유솔아, 「미국 대학의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실행 사례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5호, 2011, 29~57쪽.
- 유홍준 외, 『새내기 멘토링: 대학생들의 첫걸음』, 우리전자책, 2015.
- 이문정 외, 「신입생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67~73쪽.
- 이민주, 『지금까지 없던 세상 - 당신이 만날 미래의 業』, 쌤앤파커스, 2015.
- 이영애, 「대학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 9권, 제1호, 2006, 95~104쪽.
- 이용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제 115호, 2002, 14~20쪽.
- 이원경, 한상희, 「신입생 예비대학이 대학구성원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진화」,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460~480쪽.
- 이제봉, 「대학생 기초학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대학교육의 준비성 모형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2007, 103~123쪽.
- 장경룡, 김정희, 『대학공부 길라잡이』, 심미안, 2015.
-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2006.

- 줄리아 T.우드(저), 배현석 옮김, 『대인관계와 소통 - 일상의 상호작용』, 한경사, 2015.
- 재클린 브룩스, 미틴 브룩스 지음, 추병완, 최근순 옮김,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2001.
- 차영은, 「201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상담연구』 제8권, 2015, 69~98쪽.
- 천인성, “도전하는 대학- 각 대학의 혁신 움직임”, <중앙일보> 2016.3.31.
- 추문식 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 201~202쪽.
- 한미희,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2011, 95~113쪽.
- 헨리 퇴디거(외) 지음, 김아영 옮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와이즈베리, 2016.
- Bass, J.M.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Manz, C. C.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1986. pp. 585~600.
- Manz, C. C. *The 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8.
- Neck, C.P., & Houghton, J.D.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006, pp.270~295.

.....

<부 록>

.....

[부록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 FGI 질문지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신희선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공모한 <2016년 신입생 기초교양교육 방안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대학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및 PBL을 활용한 졸탁동시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윤희정(서강대 교수학습센터), 이진남(강원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하고 있는 본 과제에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관련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선생님들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해당 관련 자료들이 있으신 경우 보내주시면 본 연구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시간 내어 함께 생각을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은 행사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2.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특히 강조하고 계신 점 (차별화 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3.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준비, 운영하시며 어려웠던 점(걸림돌)은 무엇인가요?
4. 앞으로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할 때 어떤 지원과 협조사항이 필요한가요?
5. 예비대학 /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연계된 신입생 프로그램(시스템)이 있나요? 혹은 어떤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부록2] 신입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PBL 개발을 위한 도구

[활용서식]

1. PBL 모듈 문제

모듈번호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 내용
1	<모듈1>
2	<모듈2>
3	<모듈3>

2. PBL 운영결과 보고 (교수용)

프로 그램			
교수명		소속(학부/학과)	
진행 단계	주요 활동	어려웠던 점	향후 개선할 사항
모듈 설계			
자료 개발			
운영 과정			

3. PBL 과제수행계획서 (학생용)

일시		그룹명	
교육 목표			
가정/해결안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더 알아야 할 사실			
학습자원 (참고자료)			
개별역할			
비고			

4. PBL에 대한 교수자 평가

구분	항목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준비	1. PBL운영원칙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가?					
	2.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시할 방법을 준비하였는가?					
진행	3. 필요한 매체 및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4. 모듈별 계획안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5.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가?					
평가	6. 학생들의 토의활동을 촉진하였는가?					
	7. 코칭을 통한 평가를 적절히 제공하였는가?					
	8. 참여학생들의 만족도 및 의견을 파악하였는가?					
운영	9. PBL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0. PBL이 강의식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11. PBL은 교육목표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					
	12.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3. PBL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14. PBL을 위한 온라인 환경은 적합하였다.					
14. PBL을 하는 과정에서 잘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15. PBL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6. PBL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5. PBL 개인성찰보고서 (학생용)

그룹명		이름	
-----	--	----	--

1.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2.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3.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4. 앞으로 더 공부하고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PBL 그룹평가 (학생용)

그룹명		이름	
-----	--	----	--

평가 항목	우수조 이름
1.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한 조는 어느 조입니까?	
2. 학습 자료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내용을 잘 정리한 조는 어느 조입니까?	
3. 전체 학습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는 어느 조입니까?	
4. 조원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팀워크가 돋보인 조는 어느 조입니까?	
5. 새로운 내용과 결과 발표로 주목을 받은 조는 어느 조입니까?	
※ 그룹평가에서 가장 잘한 조의 장점이 무엇인지 서술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7. PBL 동료평가 (학생용)

그룹명		이름	
-----	--	----	--

평가 내용		팀원 이름			
1.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토론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3.다른 사람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4.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5.가설을 논리적으로 도출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6.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7.학습결과 게시물을 충실하게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8.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9.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팀원 점수주기(10점 만점)					
이름					
점수					
기타사항					

8. PBL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학생용)

항 목		매 우 긍 정	긍 정	보 통	부 정	매 우 부 정
학습 활동	1. 나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같은 조의 동료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교수는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었다					
	4. 조별발표는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업 만족도	6. PBL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7. PBL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되었다					
	8. PBL이 강의형태보다 효과적이었다					
	9. PBL 방식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10. PBL을 하게 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12. PBL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13. PBL을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9. PBL 자기평가 (학생용)

평가 내용		상	중	하
1.토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토론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였습니까?				
3.다른 사람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습니까?				
4.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습니까?				
5.주제를 풀어갈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였습니까?				
6.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7.학습결과를 충실하게 공유하였습니까?				
8,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였습니까?				
9.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습니까?				
10.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습니까?				
기타 (서술식)	자신의 활동내용 가운데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기술하십시오.			

10. Feedback Sheet (학생용)

이름		일자	()년 ()월 ()일
학번			
그룹명		주제/모듈	
새롭게 배운 내용			
질문사항			
※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여 주길 바랍니다.			

11. 학습 팀 구성

팀 이름				
목표(취지)				
팀원				
이름	연락처	E-mail	전공/학년	비고
팀 규칙				
1				
2				
3				
4				
5				
6				

[참고자료]

1. PBL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 PBL 오리엔테이션 >

I. 실시의 목적

-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중도 포기를 방지한다
-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전략 수립을 촉진한다

II. 주요활동

1. 오리엔테이션

가.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 소개 -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의 목적 안내 / 내용 정보 / 구체적인 학습목표

나. 교수-학습 방법(PBL) 소개 - PBL 기반 수업의 필요성 / PBL 방법을 도입하는 이유 / PBL의 강점

다. 주제 및 방법에 따른 평가 계획 소개 - PBL로 인해 요구되는 평가활동 제시/
- 평가의 주안점을 수업의 목표와 연결하여 설명

2. 아이스 브레이킹 및 팀 목표 설정

가. 팀 구성하기

- 팀 활동이 기반이 되는 것이니 만큼 학습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함
- 팀 구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팀 편성의 원칙 :
 - 팀의 응집력을 위하여 제약 요인 최소화: 사적인 관계나 친분 지양
 - 팀 구성을 위해 학생들에 정보를 최대한 반영: 학습 수준, 학습 성향, 개인적 성격 등을 팀 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팀원들이 모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구성: 5~7명이 적당
 - 팀은 한 학기 동안 유지
 - 활발한 의사소통 유도: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각 모듈 수행 시 팀원의 역할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극대화

나. 팀 규칙 정하기

- 팀 편성 후 각 학습 팀의 이름을 토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 이름의 의미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팀의 목표 및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팀장 정하기 :
 - 팀장의 역할- 프로젝트 매니저: 과업의 수행과정을 관리,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수행 전반을 주도
 - 팀 역동 관리자: 팀 활동을 관찰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
- 팀장 정하기: 필요에 따라 다음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함 - 지원자 선정 / 팀원 추천 / 무작위 선정
- 학습팀 편성표 작성:
 - 팀 이름 정하기
 - 팀원 연락처 교환
 - 팀별로 효과적인 팀 학습을 위한 규칙을 결정

다. 자기/팀 소개하기

- o 작성한 학습 팀 편성표를 토대로 팀 이름과 팀원, 규칙 등을 소개
- o 발표자에게는 팀원들의 첫인상이나 기대사항을 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팀 결속을 높임

2. PBL 문제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매뉴얼

단 계	주요활동	주의사항
전 반	- 과제소개 - 팀 역할분장(순환적) - 과제계획서 작성 도움	- 학습자료 조사 통제 - 초기 과제수행계획 도출의 중요성 강조 (학습목표, 기대, 역할의 명확성은 곧 성공적 과제수행과 연결) - 수행계획서 사본 작성 시와 제출 시 지속적 피드백
중 반	- 팀 학습 진행, 팀 다이내믹 강조 - 개인저널 작성 강조 - 참여관찰자의 역할 수행 - 개별적 상담/만남 가능(필요시)	- Divide & Conquer식이 안되도록 할 것 (문맥/상황성 감소 방지) - 팀 학습 끝에 각 팀의 잘된 점, 역할수행방법, 개선점들 다 같이 논의 - 팀 학습 시작 전에 전달 학습된 것은 충분히 공유하고 시작할 것 당부 - 주어진 과제와 학습내용,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지속적 검토 - 자기 주도적, 자율적 학습능력 습득 강조 - 소수인의 의견독점 방지, 역할분장의 순환적 적용, 학습자에 의한 정기적/지속적 정리, 요약, 명료화 요구 - 개인저널을 통해 학습자 개별학습활동, 팀 활동 파악 - facilitator로서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되 분명히 존재하는 점임을 자각
후 반	- Reflective Meeting관리 - 팀별 발표시간 엄수 강조 - 팀별 발표 진행 - 발표 팀에 대한 다른 팀의 질의응답 - 발표내용 및 논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	- 각 팀의 중간발표 때마다 피드백(잘된 점, 개선점, 요구사항)을 제공하여 후속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제공 - 가능한 Reflective journal을 몇 차례 건어서 피드백을 제공한 후에 돌려줌: 학습자들과의 대화의 확장 효과 - 중간발표에 대한 피드백 제공 시 '정답'이 있다는 인상이 들지 않게 할 것

3. PBL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동	항목	확인
분위기 잡기	▫ 나의 역할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 학습자들은 내가 제시한 학습 환경에 어떻게 반응했나?	
문제 소개하기	▫ 학습자들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지식을 공유하는가? ▫ 학습자들은 문제와 그들의 선지식, 정보, 경험을 연결하는가? ▫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가?	
문제해결 착수하기	▫ 학습자들은 ideas를 잘 생각해내는가? ▫ 학습자들은 이전에 지식/경험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잘 사용하는가?(facts) ▫ 학습자들은 ideas와 facts로 부터 학습할 내용(learning issues)를 잘 잡아내는가? ▫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자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은 action plan을 잘 작성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역할분담을 잘 하는가?	
문제 재검토하기	▫ 학습자들은 개별학습을 통해 익힌 내용, 지식을 문제와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 학습자들이 가장 잘 사용한 학습자원은? 어떤 것이 왜 가장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있나? ▫ 학습자들은 먼저 세웠던 Ideas를 재검토하는가? 수정, 보완할 이슈는 없나?	
결과물 제출	▫ 모든 학습자가 참여했나? ▫ 그 결과물의 질(quality)은 좋은가? ▫ 학습내용(지식, 정보)이 결과물에 나타나있는가?(주장에 대한 근거 충분한가?)	
결과물 수행평가	▫ 학습자들은 자기평가와 팀원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는가? ▫ 학습자들의 수행/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및 PBL을 활용한 ‘졸탁동시’ 교육과정 개발

2016년 12월 23일 인쇄

2016년 12월 26일 발행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전화 02) 6919-3914

인쇄처 (주)선명씨앤피

전화 02) 797-9590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